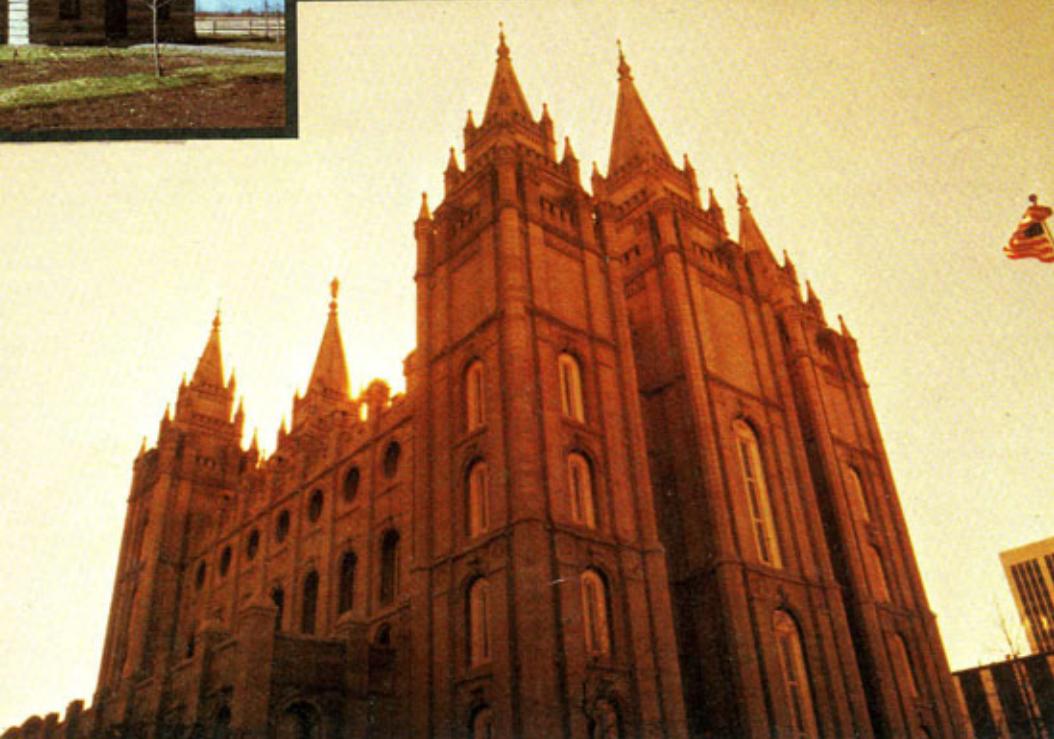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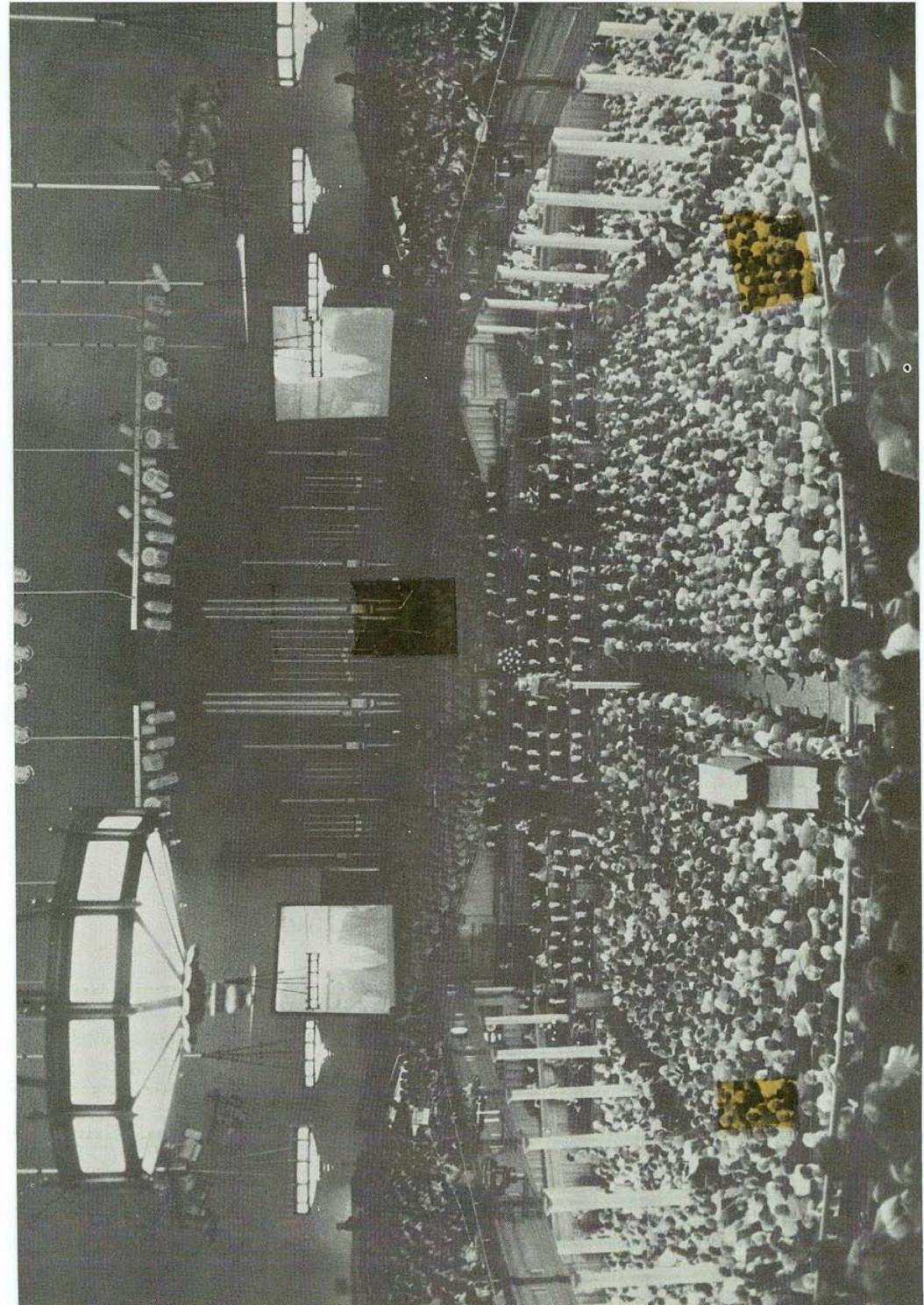


성도의 빛 11

1980





차례

성도의 벗 11 1980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월顿 태너
매리온 지 룰니

십이사도 정원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험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콤키
엘 톰 페리
에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엘 러셀 뱘리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의원/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0차 연차 대회 보고	2	
"더러운 손이 이 과업을 막을 수 없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4
걸을 예비함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7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11
성령과의 교통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15
해의 왕국의 결혼과 영원한 가족	엔 월顿 태너 부대관장	20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윌로드 저 에드링	26
1979년도 통계 보고	프레시스 앤 기번스	27
교회 본부 역원 지지		29
경전 말씀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31
단련받는 백성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35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39
기꺼이 받아들임	매리온 디 행스 장로	42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46
예언자와 교도소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50
타임 아웃	폴 에이치 던 장로	56
영원한 고마	에이 디어도 터틀 장로	60
세상의 소금 : 그 맛과 인간의 구원자들	찰로스 이 애슈 장로	63
여러분이 음성이 될 수 있음	엘 러셀 뱘리드 장로	67
성령으로 가르침	더블류 그랜드 뱅거터 장로	70
개인 및 가족 역사를 기록함	존 에이치 그로버 장로	73
성령을 구함	매리온 지 룰니 부대관장	76
성명서의 소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78
성명서		79
뉴욕주 페이에트 말씀 및 현급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82
"하나님이 그의 종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던가!" 고든 비 험클리 장로	84	
교회의 평화원에게 드리는 청사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판리 역원		92
물론경	매리온 지 룰니 부대관장	94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가	마크 이 피터슨 장로	98
앞으로 닥칠 시험과 시련과 영광	브로스 알 매콤키 장로	102
나부 - 신앙의 증거	엘 톰 페리 장로	106
자신에 대한 책임과 인간의 발전	딘 엘 라슨 장로	110
회복된 복음	휴 더블류 피녹스 장로	113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16
교회 복지 - 영적인 면에 대한 육적인 복사	매리온 지 룰니 부대관장	118
복지 사업에서 보인 모범	해롤드 저 힐 람 스테이크 부부장	122
상호부조회에서의 복지 원리	설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	125
복지 사업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빅터 엘 브루운 관리 감독	128
신진 평의회 : 물질적 및 영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열쇠	로널드 이 포울스 장로	132
복지 사업의 원리를 적용하겠나는 굳은 다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36
지역 대표 세미나 보고		137
대회 말씀과 교회 교파 과정과의 상호 관계		142
기념 업서 발행에 즐음하여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146
청녀 노번의 모임 소개		148
자신에 대한 책임	카일라 킴볼 자매	149
지금 이곳에서 이후의 그곳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52
기억하고, 즐기며, 준비하라	노마 비 스미스 자매	154
인생의 지침	알린 비 대거 자매	158
소리	엘레인 에이 캐넌 자매	160
주민의 등대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165
지역 지도자 메시지	고 원용 등 스테이크 부부장	171
지역소식		173

통권 : 제184호, 제18권 제11호

동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털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건수

STOCK NO. PBMA 0507 KO PRINTED IN SEOUL, KOREA 11/80 International magazine

© 1980년
제단 밀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0차 연차 대회 보고

1980년 4월 5일과 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태버내클과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시행된 설교와 진행 과정



화

요일인 1830년 4월 6일은 계시로 선정된 날이었다. 그날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지상에 정식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날에 대하여 경전도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은 이러하니,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지 일천 팔백 삼십년이 되는 해 벳째 달, 곧 4월의 제6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으로 우리 나라의 법률에 죄아 정식으로 조직 창립되었느니라.”(교리와 성약 20 : 1)

금년의 연차 대회는 참으로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4월 6일은 온 인류가 구세주의 부활을 경축하는 부활절이었으며, 교회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시 하에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정식으로 조직된 지 150 주년이 되는 기념일이기도

하였다. 교회 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을 경축하기 위하여, 대회 모임이 템플스퀘어와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함께 열렸다.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몇몇 총관리 역원은 4월 5일 토요일 모임의 개회 순서에 참석한 후 곧 뉴욕주로 출발했다.

대회 모임의 감리는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진행은 그의 제1보좌인 엘든 태너 부대관장과 제2보좌,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이 맡았다.

모임은 토요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시작되었다. 일요일 오전 모임은 태버내클에서 시작하였으나, 곧 텔레비전을 통해 생방송으로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의 농가를 원형 그대로 다시 복원시킨 집 내부의 장면으로 바뀌어졌다. 그 후에는 휘트머 농장에 있는 방문자 센터의 일부인 새로운 집회소로

모임 장소가 옮겨졌다. 이 두 곳에서의 의식과 말씀이 방영된 후, 다시 장면은 솔트레이크시티 태버내를로 옮겨졌다. 이와 비슷한 과정이 일요일 오후 모임에도 계속되어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페이에트 농장 집회소에서의 모든 남은 절차와 킴볼 대관장의 폐회 말씀을 들려 주었다.

또한 교회 회복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국 우편국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다. 토요일 오전의 복지 모임이 끝난 후, 솔트레이크 신전 기념 그림 엽서 발행 첫날 기념식을 30분 동안 가졌다. (93페이지 참조)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교회 회복 150주년 경축 의식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외에도, 4월 2일 수요일에 일곱 개의 새로운 신전 건축 발표와 킴볼 대관장

의 다음과 같은 발표를 받아들였다.
“이제 교회 역사상 신전 건축에 가장 박차를 가하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참조)

그 밖에도 이 대회에서는 새로운 초등 협회 본부 회장단이 발표되어, 회장에 드엔 제이콥슨 영 자매, 제1보좌에 버지니아 비즐리 캐넌 자매, 제2보좌에 마이컬린 패커 그래스리 자매가 지지를 받았다. 병후 회복기에 있는 디어도어 엠 베튼 장로와 로이든 지 데릭 장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총관리 역원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회 모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방송되었다.

연차 대회가 있기 이틀 전인 4월 4일 금요일에 지역 대표 세미나가 열렸다.
(99페이지 참조) —편집자— *



“더러운 손이 이 과업을 막을 수 없읍니다”

“약속된 영광스러운 앞날을 내다 보면서 주님의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매진합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그려하듯이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며, 가까이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연차 대회는 늘 영광스러운 행사이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차 대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지 1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이므로, 더욱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본질적으로 교회 회원 개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역사를 가장 훌륭하게 경축하는 방법은 그것을 더 풍부하고 더 의미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여러분도 작년에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권고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받은 권고의 말씀에는 각 활동 회원 또는 가족이 1980년 4월 연차 대회 때까지 개인 또는 한 가족을 교회로 인도해 오

라는 것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고를 수행하였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평범한 이웃으로서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충분히 나누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대관장단은 지난 주 교회 선교사 위원회로부터 현재 복음 선교사의 수가 30,004명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수는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 수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영화로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기쁨과 화평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는 온 세계의 아버지의 자녀들의 생애에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해야 할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우리 전체 선교사 수의 79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복음 선교사로 일하는 자매는 전체의 13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며, 8퍼센트가 부부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봉사하든지 그들은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많은 경험을 쌓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 할 때로다.”(교성 4:4)

여러분은 또한 지난해 연차 대회와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새로 조정된 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기억하실 것

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정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고 단순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독교적인 봉사에 힘쓰고, 모든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순화, 계획화하고, 신권의 계통을 존중함으로써 이를 수 있읍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9년 10월 5일)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도 알려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면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가정 생활이 실속있게 향상되고, 기독교적인 봉사가 크게 급증하며, 교회 모임의 출석율이 크게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여러분이 일련의 일요일 모임을 갖기 전이나 가진 후에, 구제주제서니파이 재자들에게 부탁하신 바와 같이 집에 가서 듣고 배운 바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니살 17:3 참조) 그러한 것이 습관이 되도록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에, 우리가 고지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휴식을 취했음을 말씀드리고 평의회, 곧 가족 평의회,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 그리고 지역 및 교회 전체 평의회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의깊게 관찰해 보시면 이 모든 발전이 우리를 한곳으로 지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백성이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일을 보다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위치에서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기독교적인 봉사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갖기 위하여, 우리는 말일성도의 전통적인 가족 환경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 수많은 독신 말일 성도들을 목과하지 않기를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형제 자매들을 소홀히 다루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공은…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복음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스펜서 더 블류 킴볼, 엔사인, 1979년 5월호, 83페이지) 그것은 참으로 진실하며, 우리는 교회의 회원들과 이웃의 친지들에게 훌륭한 이웃, 훌륭한 친구가 될 때 그만큼 영적으로도 성공하게 됩니다.

일곱 개의 새로운 신전 건축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교회 역사상 신전 건축에 가장 박차를 가하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전 건축은 교회 모든 회원들이 계보 탐구에 역점을 두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속히 완수되어야 한다는 긴박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이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격려하는 바입니다. 회원들은 자신의 개인 일지와 가족 기록을 작성하고, 조상의 명단 작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4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죽은 조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가족의 탐구를 계속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돋고 격려하기 위하여 계보파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를 받아, 교회 조직 15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8월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될 기록에 관한 세계 계보 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세계 30개국으로부터 가족 기록의 전문가들이 4일간에 걸쳐 열리는 세미나에서 각국에서 오는 대회 방청객들에게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하시기를 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15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150년 전 교회를 공식으로 조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터 휘트먼의 집에 모였던 소수의 고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충성심을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의 충성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증가되는 스테이크의 수를 헤아

릴 수 있습니다. 그 증가되는 스테이크의 수는 우리가 진보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전율을 느끼게 되며, 앞으로 더 중요한 방법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적대자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관심으로 진보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거나 때로는 고의로나 무지로 우리를 잘못 인식하여도 낙담하거나 혼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태초로부터 주님의 백성은 그려한 운명을 겪어 왔으며, 이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비평받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신앙을 지키고,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여행에서 지혜와 훌륭한 판단력을 사용하여 교회나 성도들이 악평을 받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무너뜨리려 애쓰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업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항상시키고자 이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다.

나는 이 회복된 교회가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이 세상에 세워진 150년의 반 이상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가 놀라우리 만큼 크게 성장하여 온 세상의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제 각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팔레스타인, 화란, 호주, 인도 등등 여러 나라에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어떠한 더러운 손도 이 과업이 발전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읍니다. 불길같은 박해가 밀어 닥치고, 폭도들이 규합하고, 군대가 집결하고, 중상 모략이 판을 친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대답하고 고귀하고 꿋꿋하게 온 세상에 퍼져 나아가 민족과 모든 나라를 찾아 방문하고, 모든 사람의 귀를 울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모두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게 될 것

입니다.”(교회 정사 4 : 540)

그러므로 약속된 영광스러운 앞날을 내다보면서 주님의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참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회복 150주년 대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



길을 예비함

여러 젊은이가 아론 신권과 거룩한 능력과 확신과 하늘의 도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집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새로 지지받은 드웬 제이 영 회장과 보좌로 버지니아 비 캐년 자매와 마이컬린 피 그래슬리 자매님들이 새로이 책임을 지고 일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나오미 셜웨이 회장님과 보좌, 콜린 비 레몬 자매님과 도로시어 시 머독 자매님은 눈부신 봉사의 기록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또한 고귀한 여인이요 개인적인 친구이기도 한 또 다른 초등협회 지도자 한 분께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초등협회 회장이셨으며, 미국 소년단 국립 자문 평의회 회원이기도 했던 라번 더블류 팜리 자매님이십니다. 팜리 자매님은 그녀의 측근들이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였듯이, 1980년 1월 27일, 일요일에 이지상에서의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며칠 후에 거행된 자매님의 영결식에서 부른 추모곡은 자매님의 덕을 기리고, 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읍니다.

라번 팜리 자매님과 나오미 셜웨이 자매님은 모두 그들의 보좌들과 함께 여러 해 동

안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기꺼이 바쳐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생활하기를 가르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길을 찾아가지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함께 노래를
B-76)

그들이 보여 준 큰 사랑의 일부는 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소년들로 하여금 아론 신권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소년단의 길을 올바르게 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시 아래 11세 되는 소년들은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를 의워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개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도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소년을 인도함에 있어서 신앙개조보다 더

굳건한 기초, 더 기본적인 이념을 생각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를 훌륭한 자매님들이 각 소년들이 이같은 표준을 알고 그에 따르는 생활을 하도록 기대하셨을 때, 그분들은 참으로 놀라운 은사를 전해 주신 것이었읍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아들였으니, 곧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요 21: 15-16 참조)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론 신권이 무엇이 그리 중요해서 그와 같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론, 신권이 소년의 생활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아론 신권은 “엘기세덱 신권에 부수된 연고니, 외형적 의식을 집행할 권능이 있으니라.”(교성 107: 14) 침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이며 아론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아론 신권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의 생애와 사명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 먼 나라 팔레스타인이라는 속국에는 기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광야였고, 때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유대 왕, 헤롯의 시대인 이 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았읍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눅 1: 6)이었읍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사람은 자식을 바라고 있었으나 그들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이르게 되었읍니다.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같이 선포한 것이었읍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눅 1: 13-15)

엘리사벳은 임신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아들이 태어났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를 요한이라 불렀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종 요한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도 거의 없읍니다. 요한이 태어난 후부터 광야에서 그의 성역을 베풀 때까지의 30년 동안의 역사가 단 한 문장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눅 1: 80)

그의 복장은 고대 예언자들의 복장과 똑같이 약대털로 짠 옷이었읍니다. 그의 음식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이었읍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결한 것이었읍니다. 그는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전파하였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1: 20) 고 그는 그를 죽는 제자들에게 말하였읍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눅 3: 16)

그런 후 요한의 성역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달한 장면은 그리스도의 침례였읍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갈릴리에에서 오셨읍니다. 요한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 3: 13-15)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 16-17)

요한은 예수가 세상의 구속주이시라는 증명을 담대히 선포하였읍니다. 요한은 두려움없이 용기있게 가르쳤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요한에 대하여 구세주께서는 후에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 11:11)

요한의 일반 민중에 대한 성역은 막바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속물적 근성을 질책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왕의 탐욕을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왕의 약점과 여인의 증오가 함께 어울려 요한을 죽이는 데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체가 안치되었던 무덤조차 그 육신을 불들어 들 수 없었습니다. 살인 행위 조차 그의 음성을 잠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829년 5월 15일,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에서 온 세계에 “요한이 말씀하는 한 천사… 이분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침례 요한”(교성 13편 머릿말)이 부활한 몸으로 써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방문한 천사는 멜기세덱 신권이라 하는 더 높은 신권의 열쇠를 지닌 고대 예언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교성 13편 머릿말) 이와 같이 하여 다른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이 길이 기억될 이 사건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 말일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아론 신권을 소유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론 신권의 참된 의미를 스테이크 부장이셨던 작고하신 풀시 차일드 부장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내가 바야흐로 18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고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려 하고 있을 때 나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으라는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일드 부장님께 전화를 걸어 약속을 하고 접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경전을 사랑하고 이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경전을 사랑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이 다소 접견을 자세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였으며, 우리의 전화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일드 부장님. 저는 몬순형제입니다. 감독님이 제게 부장님과 접견하라고 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몬순 형제. 언제 방문할 수 있지요?”

그분이 참석하는 성찬식 모임이 6시에 있으며, 그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의 경전 지식이 탄로날까 두려워 되도록이면 시간을 줄이고 싶은 생각에서 나는 “5시에 가면 어떨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몬순 형제, 그러면 경전 지식을 알아볼 충분한 시간이 없게 될 텐데요. 두 시에 오면 어떨까요? 올때에는 형제님이 사용했던 경전을 가지고 오세요.”

마침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인디애나 애비뉴에 있는 차일드 부장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부장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으며 곧 접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몬순 형제, 형제님은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지요. 천사가 형제님에게 성역을 베풀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일드 부장님.”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몬순 형제, 교리와 성약 13편을 의워 보세요.”

나는 의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교성 13:1)

“그만.” 차일드 부장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조용히 친절한 음성으로 가르

쳐 주셨습니다. “몬슨 형제,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천사의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요.” 그날 그 방안에는 마치 천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 접견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에 임했던 엄숙한 영을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을 존중합니다. 나는 그 권능을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그 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권능이 수행한 기적에 놀랐습니다.

약 30년 전 나는 아론 신권의 권능을 소유하였던 제사인 소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나는 그의 정원회 회장이었습니다. 로버트라는 이 소년은 말을 심하게 더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수줍어 하며 자의식이 강한데다가 언어 장애가 겹쳐, 그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무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일련의 범상치 않은 사건들로 인하여 그는 다른 사람을 침례하는 제사의 책임을 수행하는 임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거룩한 태버내클의 침례실에서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흰 옷으로 갈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버트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마른 바닥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조리에 맞지도 않게 더듬거리면서 두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가 그의 임무를 잘 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후고 서기가 말하였습니다. “이제 넬시엔 맘아더 자매가 제사 로버트 월리엄즈 형제로부터 침례를 받겠습니다.” 로버트는 내 옆에서 일어나 침례반 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린 넬시의 손을 불들고 부축해 주며, 인간의 생을 깨끗이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물 속으로 들어오게 도와 주었습니다.

다. 그러더니 그는 오른손을 직각으로 올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넬시 앤 맘아더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 (교성 20 : 73 참조) 단 한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멀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의 기적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내가 로버트에게 축하의 말을 하였을 때 나는 그에게서 이제부터는 유창한 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내 생각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밀을 내려다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더듬거리며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내가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로버트는 아론 신권의 권능으로 행할 때 능력과 확신과 하늘의 도움을 받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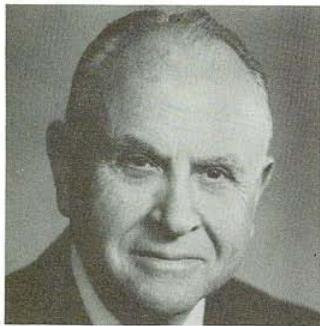
그것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가르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신앙을 일깨워 줍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명으로 우리가 영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생애에서 크게 깨달음을 받아 아론 신권과 그의 거룩한 권능을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고대 사도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늘 아침 영혼 속 깊이 확신하는 바를
오 말씀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신앙과 기도로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킴볼 대관장님이 전강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감어린 권고와 지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기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언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나, 성도들은 더욱 더 그를 사랑합니다.

지금은 일년 중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모든 것이 소생하는 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와 혼신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요한의 기록을 살펴볼진대, 아마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그가 사랑한 가족의 조용한 집(요 11:5 참조)에서보다 더 안락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작

은 마을은 예루살렘 성문 밖,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남자 동생 나사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3.2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이 한적한 마을은 군중의 시끄러운 소요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곳으로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과 평화로 체울 수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족과 온정을 나누는 데서 따사로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들었답니다.

예수께서 성역을 베풀고 계실 때 그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 11:3 참조) 나사로는 사도들 이외에 예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절친하게 지낸 친구였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가 중요한 일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즉시 떠나지 못하고 대신 그가 곧 가리라는 전갈만을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흘 후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였을 때, 남달리 눈에 띠는 유대인들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함께 애통하려 모여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자매들은 구세주께서 그처럼 늦게 오신데 대하여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요 11:21)라고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 다음과 같이 들려주신 말씀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위안이 되었으며 온 세상에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요 11:23)

그의 동생이 죽음의 잠에서 곧 깨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요 11 : 24)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 : 25—26)

마르다는 깊은 신앙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읍니다. “주여 그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 11 : 27)

이와 같은 강한 간증을 드린 후 마르다는 마리아를 찾았읍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한 것처럼 비통해 하며 예수께 굽히 달려 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요 11 : 32)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친구들이었읍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께서 온유한 자비심을 베푸시어 그를 주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속 깊은 감정과 놀라움을 일깨워 준 순간이었읍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그들은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대답하였읍니다. (요 11 : 34)

그 자리에 있었던 그의 원수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가 그의 친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읍니다. 예수께서는 애통해 하는 군중 속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전형적인 무덤이었던 그의 무덤은 아마도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는 입구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또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요 11 : 43—44)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에 가서 고하였다.

예수의 명성이 높아가면 갈수록, 예수가 기존 질서를 파괴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한 대제사장들의 반대도 더욱 심해졌읍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열두 사도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 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눅 10 : 32—34 참조)

다락방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마 26 : 21)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마 26 : 26 ; 막 22 : 19 참조) 같은 방법으로 다시 잔을 들고 예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죄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 : 28)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에서 거룩한 의식으로서 성찬식의 유형을 세워 놓으셨읍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 : 39)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눅 22 : 44)

그가 팔리고 아침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그의 원수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그를 결박하여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읍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마 27 : 1—2, 26 참조)

그는 잘보리산으로 끌려 갔습니다. 제 삼 시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못박았습니다. (막 15 : 25, 27 참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위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눅 23 : 44—45)

사흘 후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눅 24 : 6 참조)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복음을 대하여 좀더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눅 24 : 50—51)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잘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 : 10—11)

우리는 고대의 사도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권능과 영광 중에 천군 무리와 함께 올 것임을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사 40 : 5)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만유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충만한 복음이 그 모든 구원의 능력과 함께 지상에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행 3 : 20—21 참조)

우리는 최후의 위대한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하늘로부터 천사의 성역이 임하였고,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육성이 들렸으며, 성신의 은사와 신권의 권능이 모든 축복과 약속과 더불어 또 다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목격했음을 확실한 지식과 권능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내일은 뜻 깊은 축거움과 감사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150년 전 이날에 재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험난한 시대에도 교회를 보호하고 변성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장해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조직한 모임에 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설명을 거듭 읽고 깊이 생각할 때마다 큰 영감을 부어 줍니다. 휴트머의 집, 개회 기도, 주의 명대로 교회를 조직하여 승인하고, 요셉과 윤리버 카우드리의 장로 성임, 성찬, 그리고 참석한 모든 회원은 성신의 은사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언과 기쁨이 가득했읍니다. 150년 전 4월 6일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지하신 것이었읍니다. 회원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조직을 승인하였으며, 성신이 그들의 영혼에 그날에 있던 일들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일임을 증거해 주었읍니다.

그 후에는 고난에 가득 찬 극적인 사건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온의 진영, 혼즈 밀 대학살, 리버티 갑옷, 나부로부터의 추방, 카테지에서의 참극, 원터 쿼터즈, 손수레 부대, 존스頓 군대의 유다 진입…백성들의 시험, 신앙의 시련이 잇달았으나 항상 구세주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요셉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지켜졌읍니다.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빛들여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교성 121 : 8)

오늘 이 평화로운 계곡의 이 역사적인 태버내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결실을 주신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든 것 잘되리”라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놀라우리 만큼 성장하고 커가는 이 면에서 큰 힘이 되어 주는 것은 교회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은 인생에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는 1892년 러시아를 방문한 미국 외교 사절인 앤드류 디 화이트씨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국 종교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국교가 없읍니다.”라고 화이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종교는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박사는 톨스토이에게 미국에는 각 사람이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종교에 속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미국인의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직된 통칭 몰몬교라고 하는 교회 말입니다. 몰몬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화이트 박사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는데요.”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러자 레오 톨스토이 백작은 대사를 꾸짖었습니다. “화이트 박사님, 박사님처럼 해박한 지식과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이 이처럼 중요한 것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계시다니 정말 놀랍고 실망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그것의 영광에 대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상호간의 견천한 기반 위에서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맺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읍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다면 어떠한 것도 그들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읍니다. 한없이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습니다. “과거에 시작된 커다란 사건의 움직임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소멸되었거나 채 성숙되지도 못하고 모습이 바뀌었읍니다. 만일 물론이즘이 수정되지 않은 채 삼사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임프로브먼트 이라, 1939년 2월호, 94페이지)

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에 주님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시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만 훌로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에 있는 나의 친구들인 여러분에게 나의 간음을 드리노니,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그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 주셨읍니다. 나는 구속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축복과 평화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



성령과의 교통

어떠한 종교나 국가를 막론하고 순종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혼신적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976년, 사모아 지역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킹 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기자 회견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성장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보조 맞추기를 감당치 못할 실정에 있습니다.”(1976년 사모아 지역 대회 대회 보고, 9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가 이토록 극적으로 번창하고 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979년 한 해에 교회의 자연 성장 이외에 거의 이십만 명의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이 질문에 보다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

한 예언자와 사도가 있는 조직(엡 2:20 참조), 칠십인 제일 정원회, 신전 지도력의 질서, 선교사 체제, 복지 프로그램, 신전, 계보, 그 밖의 여러 가지 특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교회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1839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당시의 미합중국 대통령이었던 마틴 뷔 브렌파의 대답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답 중에 대통령은 우리에게 우리 종교가 당시의 다른 종교와 어떤 점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요셉 형제는 침례 형식,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가 다르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요인들이 성신의 은사 하나로 집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교회 정사 4:42)

예언자가 그토록 영감받은 대답을 하게 된 이유로는 성신의 놀라운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례를 받은 후 곧 교회 회원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세주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이 능력이 많은 은사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합당한 회원들로 하여금 신회의 구성원인 성신이 함께 하심과 그 은사를 누리게 하는 것이니, 성신의 기능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요 14:26 참조) 이러한 성신의 부여의 결과로 150년 동안 이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계시와 옳고 그름을 지시하는 영감을 지금까지 누려 왔고 현재도 누리고 있습니다.

영감과 계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총

실한 회원들 사이에서 지극히 일반적이고 이미 널리 퍼져 있으므로, 이전에 수행된 과업에는 강한 영적인 기초가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어느 집회에서든지 찾을 수 있읍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변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자와 회원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1820년 어느 봄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 이 교회의 회원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마호멧이나, 공자와 같은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 및 종교 개혁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위시한 철학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빛을 부분적으로 받았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덕적인 진리를 알려 주시어 그들이 온 세상을 밝게 교화시키고 각 개인이 보다 고차원적인 면에서 이해하게 하시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식을 주어 그들이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서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대관장단의 성명, 1978년 2월 15일)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구원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요인은 개인의 계시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어떠한 사람도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성신을 받을 수 없읍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교회 정사 6 : 58)

안수례로 성신의 은사를 받은 말일성도는 인생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를 맞게 될 때 항상 개인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단지 담대한 목동

이었던 다윗은 자청하여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로 하였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위풍당당한 거인의 모욕적인 언사로 조롱당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사울왕은 이 어린 소년의 신앙과 결단력에 크게 감동되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우도록 하였읍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아직 어리고 무장도 하지 않은 것을 조롱하였읍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며 온 무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삼상 17 : 47)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읍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힘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돌팔매질을 하여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히 박히게 하였읍니다. 골리앗이 죽어 땅에 쓰러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하였읍니다.

다윗의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읍니까?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그 밖의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그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벙어리가 되어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모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대 선지자들에 의하여 인도받던 사람들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지시를 조금밖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읍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그의 음성을 잃으셨습니까? 주께서 영원한 휴가에 들어가셨습니까? 주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까? 이러한 제언에는 하등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세주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는 분명하게 그의 신성을 표명하

였습니다. 곧 이어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려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끼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한복음 6:66-69)

우리는 베드로가 받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와 똑같은 간증이 우리의 거룩한 지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증거하는 바랍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진리에 대한 간증과 영적 및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은 일상 생활의 모든 면과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하여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교성 42:61 참조) “누가 나의 반려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충실한 말일 성도들은 영의 경고를 받아 사고나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윌포드 우드럽 대판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개척자들이 여행길로부터 원터 쿼터즈로 되돌아갔을 때 [1847], 영 대관장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드럽 형제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보스턴에 가서 뉴잉글랜드와 캐나다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시온으로 보낼 때까지 그곳에 머물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모으는 데 이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마지막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무리는 약 100명쯤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해질 무렵에 피츠버그에 도

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출항하려는 기선으로 갔습니다. 나는 선장을 보았으며 그 기선에 모두 탑승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마치고 나자 곧 영이 내게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 기선에 오르지 말라. 성도들도 승선시키지 말라.’ 물론 나는 선장에게 가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배는 출항하였고, 겨우 8킬로미터 정도 항해하였을 때 배에 불이 나 300여 명의 탑승객들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내가 영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을 데리고 그 배에 올랐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는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지 호머 더럼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46년], 294-95페이지)

계시와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 지침과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1) 하나님의 계명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며, (2) 하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고, (3)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로 구하며, (4) 혼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영감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인도와 침의 근원이 됨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은 귀중한 인생의 보화에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계시와 영감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모든 인간은 잘 조립된 천부의 “수신기”를 갖고 있어, 조정만 잘하면 하늘로부터의 통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 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욥 32:8) 니파이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차리기도 전에” 완전히 영에 인도될 수 있습니다. (니일 4:6 참조)

어떻게 하면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노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

개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임하시어”(이노 10절) 반드시 청각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의 영은 하늘로부터의 확신을 통하여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교성 8:2)고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주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계셨습니다.(왕상 19:11-12 참조)

그것은 모든 것을 깨뚫고 침투하는 속삭임의 능력을 지닌 영의 내적인 음성입니다. (교성 85:6 참조) 힐라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음성은 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보라 다만 심히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요 작은 속삭임 같았으나, 듣는 자의 심령을 깨뚫었고”(힐 5:30)

이처럼 주님은 계시로써 말하는 음성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해롤드 비 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나는 열 살이나 열 한 살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년 시절에 갖게 된 단순한 간증으로 믿는 마음을 갖게 된 적이 있었읍니다.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실 때까지 하루 종일 바삐 일을 거들었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담장 너머에는 나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은 소년을 유혹하는 무너져 가는 헛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울타리를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읍니다. 나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가지 말아라!’고 외치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읍니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나 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들판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한 사람도 눈에 띠지 않았읍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게 말해 주는 음성을 들은 것임을 깨달았읍니다. 그리고 내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듣고 읽었을 때, 나 역시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음을 알았읍니다.”(하늘로부터의 계시, 브리검 영 대학교 올해의 말씀, 프로보, 1952년 10월 15일, 6페이지)

교회의 모든 충실히 회원이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회복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지도자로서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임명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있었읍니다.

교회 제4대 대관장이신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가 없이는 24시간도 살아 있을 수 없읍니다.”(월포드 우드럽 설교집, 61페이지)

로이 더블류 독시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과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매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온 세계의 전반적인 교회 일이나 지역적인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시로써 인도를 받고 있읍니다.

“말일 성도 선교사들은 매일 계시의 영을 받아 간증하고, 말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 가르침을 주고 있읍니다.

“매일 교회 표준 경전에 계시된 주님의 생각과 뜻이 계시의 영에 의하여 말일 성도의 머리 속에 비추어지고 있읍니다.

“매일 충실히 성도들이 마음속에서는 일상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결혼, 직업, 가정사, 사업 문제, 공과 준비, 위험에 대한 예교 등

의 모든 결정 사항에서 계시의 증거로서 신앙이 증가됩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계시의 영으로써 조셉 펠링 스미스 대관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고 왕국의 열쇠를 지닌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을 계시의 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구원의 교리, 1 : 264)

1978년 6월 1일에 세계 사상 가장 위대한 계시가 인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피부색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합당한 형체들은 신권을 받을 수 있다는 계시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 지상의 예언자는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종교나 국가를 막론하고 순종하고 의로우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현신적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빌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임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150년 동안 그처럼 놀라운 성장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 교회는 끊임없이 증가 일로를 걸으며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의 계시와 영감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성신의 통반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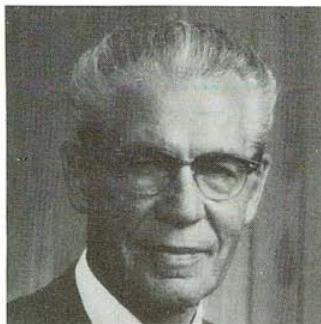
왜냐하면 성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 백성과 지도자를 이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150년 동안 줄곧 인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길 나의 임무요 간증입니다. 아멘. *



뉴욕주 페이에트 지역의 회원들과 만나는 김봉 대관장

해의 왕국의 결혼과 영원한 가족

“우리 자신과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교회 공직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나는 신랑 또는 신부 후보자들로부터 결혼 주례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항상 기쁘게 수행하는 일이며, 그래서 나는 많은 쌍을 결혼이라는 유대로 결합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총판리 역원이 되기 전에는 일반 결혼의 주례를 맡아 행하였고, 현세와 영원을 위한 영원한 결혼을 하나님의 신전 안에서 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결혼에 대하여 생각하는 때, 즉 특별히 배우자가 자신에게 합당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당시에는 누구나 자신이 올바르게 선택하였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신혼 여행으로 끝이 나고 곧 문제가 일기 시작하여 결혼이 결국은 이혼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자,

성직자나 합법적인 인정을 받는 것은 아예 무시하며, 아무 뜻없는 의식을 치르지 않는 생활 방식을 취하게까지 되었습니다. 나는 종종 그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창조 목적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결혼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세정하였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경전을 탐구하였는지 의문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지구의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전은, 지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상태로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떠나온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합당한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된 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 26-28)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테려다 주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 24)

그렇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있은 후에 우리는 경전에서 혼인

잔치가 따르는 결혼 의식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증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다만 “먹고 마시고 즐기”(니이 28:7) 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땅을 받았으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의할 만한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창 1:28 참조)

우리가 경전에서 배울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의 창조가 영원하고 그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브와 아담을 결혼시키신 그 유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임하시고 거룩한 신전에서 집행되는 결혼은 영원한 것이며, 그것은 죽을 때까지만 지속되는 결혼이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전도서 3:14)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말해 보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이를 안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계시에 의한 것이며, 이 계시는 반석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5-19 참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 혼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러므로 하나님이 짹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태복음 19:4-6)

이 성구는 하나님께서 성임하시고 그의 거룩한 신전에서 그의 권능으로써 집행된 해의 왕국의 결혼은 영원하며, 그와 같이 연합된 부부는 현세와 영원토록 인봉되고 그들의 자녀는 영원한 복음의 성약된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충실성에 따라 영원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결혼을 준비합니까? 젊은이들은 영원토록 반려자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 또 자기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높은 도덕 표준을 지니고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사귀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자신의 목장에는 건강하고 품종이 좋은 동물만을 들여 보내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의 아들딸은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과도 어울려 다니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밤에 자동차를 써도 괜찮을까요?”

“자동차 여기 없는데.”라고 아빠가 대답했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없다니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모른다. 어떤 사람이 빌려 갔어.”

“누군데요?”

“모른다.”

“이해할 수 없군요. 언제 가져 올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설명하였습니다.

“너는 내 자동차에 대해서는 꽤나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아빠가 네 데이트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구나. 네가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하며, 어디로 갈 것이며, 언제 돌아올지 말이다. 나는 내 자동차보다는 너와 네 장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단다.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녀는 그들 부모가 그들에게 쏟는 사랑과 관심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들은 친구나 부모에게 그들의 계획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나에게 구혼과 결혼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할 때, 나는 항상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도록 제언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되어 주기를 바라는가?

나는 어떠한 부모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영적 및 도덕적인 자질을 더욱 깊이 고려하는가?

나는 우리의 배경, 문화 그리고 지적인 면에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는가?

나는 그와 같은 차이점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결혼하기 전에 적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이상과 같은 고려 사항은 영원히 함께하게 될 배우자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소홀히 넘겨 버릴 수 없는 책임도 많이 있지만, 쌍방이 각자의 책임을 온전하게 완수할 때 만큼 이 세상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젊은 부부를 위하여 결혼 의식을 주례할 때, 그들과 함께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도 나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항상 빠뜨리지 않습니다.

첫째,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결혼할 때 맷는 성약을 지킬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둘째, 나는 남자에게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해 줍니다. 남편이 최선을 다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아내는 남편을 평안하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나는 그들 상호간에 품을 수도 있는 오해를 풀어버려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누가 옳은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부부간에 의견이 충돌된 채 잡자리에 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무릎을 끌고 주님께 축복해 주실 것과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할 때 용서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 들어, 주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 서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나는 그들에게 서로 계속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결혼이란 서로가 똑같이 반씩 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줍니다. 각자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보다 조금 더 행함으로써 누가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 논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별적으로 은밀히 지켜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족이나 친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물질적인 안락이나 사치품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참을성있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너무 조급하게 갖기를 원할 때 남편과 아내는 모두 곤경에 빠지게 되고, 가정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경제적인 부담을 받게 되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갖출 수 있는 물질적인 소유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가정에서 사랑과 조화와 영성의 분위기를 이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같은 행복한 가정과 안락한 분위기를 이루게 되면 마침내 결혼 생활의 극치에 달하는 자녀를 갖게 되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지시하셨을 때 계획하신 즐거움과 성취감을 온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여, 그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가정에 태어나는 각 자녀의 창조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협조가 됨을 인식하게 되어 출생의 기적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계시에 대하여 초기 지도자였던 고 멜빈 제이 빌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말일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참조)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육신을 주어 지상에서 살게 하는 일이 인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명예로운 결혼을 통하여 육신을 갖고 이 지상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 지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재능을 발전시켜 얻게 되는 명예와 영광,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켜 보내 주는 성원과 찬사, 영웅 호걸로 축망받는 일 등은 여성의 첫째되는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어머니

가 됨으로써 받게 되는 지고한 명예와 영원한 영광과 행복에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설교와 선교 사업,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펫 출판사, 1949년], 203—4페이지)

자녀의 출산과 가족의 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쟁이 구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애국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 면에서 물질적인 소유가 부족하였던 우리의 옛 조상들은 대가족 제도를 응호하였습니다. 그 가족에서 위대한 정치가, 법률가, 과학자, 교육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영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난한 가정에서 양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가족이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함께 놀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부모가 서로에게 사랑과 예절을 보이는 가정을 말합니다. 사랑은 종종 행동과 말로써 표현됩니다. 우리는 아내의 임종 시에 친구들로부터 동정의 말을 듣는 스코틀랜드 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에게 한 이웃 사람이 그 부인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요. 아주 훌륭한 여자였지요. 한두 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고 말았지요.”

최근에 출판된 가족의 문제라는 간행물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80년대를 무사히 넘기게 될 것인가?” 이 책자는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80년대에 가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핵심 문제는 도덕적인 부패가 될 것이다. 그것이 베터 홈스 앤드 가든스지가 조사한 설문에 응답한 다수의 의견이다. 그들은 무관심한 부모와 도덕성에 대한 영적 기반의 결여를 탓하고 있다.

“오늘날의 경향은 부모가 좀더 관심을 보

여야 한다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 기사는 크게 증가되는 이혼율, 십대의 임신, 마약과 알코올 남용 등에 대한 놀라운 통계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보람된 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겠는가?” 인구 조사소의 인구 통계학자인 폴 글릭 박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부모는 자녀가 인생을 훌륭하게 출발해 나가도록 도와 줍니다. 자녀가 가장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아메리칸 페밀리 소사이어티, 제4권, 제1호)

최근 연합 신문란에서 시드니 해리스 박사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읍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왜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글을 쓰지 않느냐고 묻자, 그 주제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만한 분명한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합니다. 그는 인류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가 진실로 염려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도덕적인 문제라고 말하였읍니다.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에너지나 기타 어떤 기술적인 장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같은 가족으로 생각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는, 기타 어떠한 지식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소식, 즉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시려고 지상에 오셨읍니다. 그분은 생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계획을 주셨으며 천하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 (행 4 : 12 참조) 이 말일에 우리는 그와 같은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역사를 통

해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해 오신 방법대로 오늘날에는 살아 계신 예언자 킴볼 대판장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계시는 현재 당면한 문제에 관한 충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읍니다.

약화되어가는 가정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어도 매주 한 번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고, 즐겁게 놀고, 서로를 좀더 알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부모는 가정의 축복사와 축복사의 아내로서 사랑과 친절과 예절과 지지의 본보기를 보여 주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미래의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데 필요한 도덕적인 원리와 기타 가치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성장한 후에 역시 의로움과 도덕의 기초 위에 스스로의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몸과 정신으로 결혼 성약을 맺고, 그들의 자녀에게 미덕의 본보기를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개종해서 신전에 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한 후 가족과 함께 신성한 하나님의 신전으로 가서 인봉 의식을 받은 어떤 형제가 보낸 편지를 읽어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말일성도 친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기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가정은 파탄 직전에 놓여 있었읍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지난 토요일을 생각하면, 저는 교회가 거의 파탄 지경에 놓여 있던 가족을 영원한 가족으로 바꾸어 놓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

“밝게 빛나는 빛 가운데 흰 옷을 입고 선제 아내와 아이들을 보는 것에 비교될 만한

것은 참으로 어느 곳에도 없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저에게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존, 저들은 언제나 영원히 그대의 가족이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또 주님의 계명과 그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자신과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진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과 카밀라 김볼 자매님이 피터 휘트미의 농가에서 임시로 만든 설교단에 서 있다. 그들이 기대고 서 있는 낡은 상자는 실제로 예언자 요셉이 금관과 우림과 동판을 숨겨 두었던 상자이다.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귀하

보고자 : 윌포드 지 에드링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1979년 12월 31일 현재의 교회 연례 재정 보고서와 같은 날 마감된 연간 교회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한 재정 결산 및 운영에는 교회의 모든 기금과, 교회 재정과가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타 교회 운영 조직의 모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예산, 회계, 감사, 절차 그리고 기금 수입과 지출 관리 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단이 예산 절차에 따라 교회의 제반 기금 지출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읍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체 모임에서 예산에 따라 기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재정과와 기타 조직에서는 빠른 교회 확장과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현대 회계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재정 위원회와 법률과는 공동으로 연합하여 재무성과 주 및 외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교회 세금에 관계되는 제반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읍니다.

교회의 다른 과와 독립되어 있는 감사과는 세 가지 면, 즉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체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과, 기타 교회 산하 조직(회계는 교회 재정 위원회가 맡고 있읍니다), 선교부, 재정 센터

및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교회 각과 활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감사가 정규적으로 실시되고 있읍니다. 교회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교회 감사과의 관리의 규모와 범위는 교회의 성장과 광범위한 활동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있읍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에게 지명되어 있읍니다.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교회 재정과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재단 법인의 사업은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조사 기관이 감사를 맡고 있읍니다.

연례 재정 보고서와 기타 회계 자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재정을 맡은 부서의 회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재정과와 감사과와 법률과의 책임자들이 함께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우리는 1979년 한해 동안 들어오고 나간 교회의 일반 기금이 확정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회계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교회 재정 위원회

윌포드 지 에드링

해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튼 이 해밀튼

데이비드 엘 케네디

워렌 이 퓨

1979년도 통계 보고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79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자 : 프랜시스 앤 기번스

대관장단 서기

교회 단위 조직

시온의 스테이크 수	1,092
복음 선교부 수	175
와드 수	7,235
스테이크 산하 독립 지부 수	2,130
선교부 산하 지부 수	2,121
와드나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국가의 수	81

(이 통계 수치는 1979년 1년 동안에 1,632 개의 와드와 지부가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

1979년말 현재 스테이크, 선교부 및 교회 본부 사무실에서 보고된

교회 회원 총 수	4,439,000
-----------	-------	-----------

1979년의 교회 성장

축복받은 어린이 수	107,000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수	67,000
침례 받은 개종자 수	193,000

(개종자로 침례받은 수치는 대회에 앞서 교회 본부에서 받은 1979년의 보고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사회적 통계

회원 1,000명 당 출산 수	30.0
회원 1,000명 당 결혼한 사람 수	13.7
회원 1,000명 당 사망자 수	4.2

신권

집사	152,000
교사	122,000
제사	232,000
장로	394,000
칠십인	33,000
대제사	161,000

(이 수치는 1979년에 107,000명의 신권 소유자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복음 선교사 수	29,454
----------	-------	--------

(이 수치는 지난 연말 이후로 3,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 기구

1978-79학년도의 총 등록자 수 :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및 특별 프로그램 등록자	304,000
교회 학교와 대학 및 상급 교육 기관	72,000

복지 사업

현금 또는 생필품의 혜택을 입은

인원 수	139,300
------	-------	---------

말일성도 사회 사업의

도움을 받은 수	43,000
----------	-------	--------

유급 직장에 알선받은 인원수	23,400
-----------------	-------	--------

복지 사업을 위해 봉사한

연인원의 근로일 수	479,500
------------	-------	---------

창고에서 분배된 생필품 중량(단위 : 파운드) 23,253,000

계보 협회

신전 의식을 위해 1979년에

조사된 명단 4,574,000

계보파는 39개국으로부터 기록을 입수하였으며 30미터짜리 마이크로필름 1,024,000개에 달하며, 이것은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4,927,000권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신전

1979년에 침행된 엔다우먼트의 수 :

산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51,600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3,873,30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전의 수 17

설계 혹은 건축 중에 있는 신전 5

(이 수치에는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신전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79년에는 1978년보다 116,700의 엔다우먼트가 더 행해졌습니다.

한해 동안 작고한 유명 회원 :

칠십인 제일정원회 일원인 로널드 이 풀먼 장로 부인 클래어 스토더드 풀먼 자매, 상파울루 신전의 펜 비 펠슨 신전장, 앤부퀴크 뉴 멕시코 동스데이크 부장, 노팅엄 잉글랜드 스테이크의 앤버트 스탠리 그린 스테이크 부장, 관리 감독을 역임하셨던 조셉 엘위드린 감독의 미망인 매들린 비 위드린, 초등 협회 본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라빈 더 블류 팜리 자매, 유타주 출신 상원의원 오아브라함 머독 이세, 유타주 출신 하원의원 웰만 피 로이드 형제. *



대회 활동 모습

교회 본부 역원 지지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지금부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총관리 역원, 본부 역원 및 본부 보조 조직 역원의 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펠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지지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네이단 엘든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

워드 더블류 헨터,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퍼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이상의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재단 이사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프랭크린 디 리차즈,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넬 에이 맥스웰, 칠로스 이 애시, 엘 레셀 벨라드, 린 엘 라슨, 로이든 지 데릭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매리온 디 험스, 에이 디어도어 터틀, 디어도어 엘 버튼, 버나드 피 브록뱅크, 폴 에이치 던,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 던, 로버트 엘 심슨, 오 레슬리 스토크운, 렉스 디피네가, 윌리암 그랜트 뱅거터, 로버트 디 헤일즈, 애드리 와이 고마쓰, 조셉 비 워스린, 진 알 쿡, 찰스 디데이, 윌리암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본 제이 케더스토운, 로버트 이 웰즈, 지 호머 더럼, 제임스 엘 패러모어, 리차드 지 스코트, 휴 더블류 피녹

크,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구찌, 로널드 이 포울맨, 데릭 에이 커스버트, 로버트 엘 백맨, 렉스 시 리브 일세, 에프 버튼 하워드, 테디 이 브루어튼,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이상의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관리 감독단의 관리 감독으로서 빅터 엘 브라운 형제를, 제1보좌로 에이치 버크 피터슨 형제를, 제2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명예 축복사로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명예 회원으로 에스 딜위스 영, 스터얼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제임스 에이 캐리모어, 조셉 앤더슨, 윌리암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반덴버그, 이상의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역 대표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 대표 전원.

주일학교 회장으로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제1보좌로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제2보좌로 잭 에이치 고슬린드 이세,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남 회장으로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제1보좌로 본 제이 페더스토운 형제, 제2보좌로 렉스 디 피네가 형제,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제1보좌로 매리언 알 보이어 자매, 제2보좌로 셀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청년 회장으로 엘레인 에이 캐넌 자매, 제1보좌로 알린 비 대거 자매, 제2보좌로 노마 비 스미스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 전원.

초등협회 회장으로 드웬 제이 영 자매, 제1보좌로 버지니아 비 캐넌 자매, 제2보좌로

마이컬린 피 그래슬리 자매.

이상의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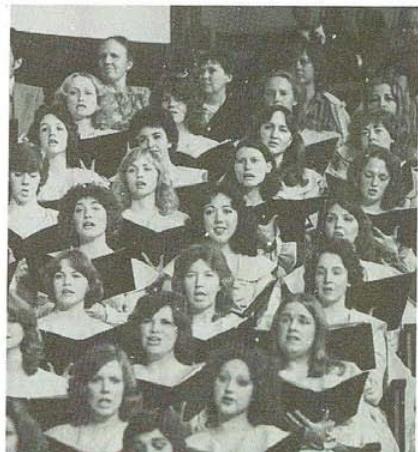
교회 교육 기구 임원으로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저 롬니,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닐 에이 맥스웰, 매리온 디 행스, 빅터 엘 브라운, 바바라 비 스미스. 이상의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으로 윌포드 지 에드링, 해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트론 이 해밀턴, 테이비드 엠 케네디, 워렌 이 퓨.

태버내를 합창단 단장으로 오클리 에스 이반스, 지휘자로 제럴드 더 오틀리, 부지휘자로 도널드 에이치 리플링거, 태버내를 올랜 반주자로 로버트 컨덕, 로이 엘 달리, 존 롱거스트.

이상의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상 전원 단장일치로 지지 받았습니다. *



경전 말씀

“지금은 영원한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천사가 보았던 심판의 시간입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대관장님과 지도자로부터 경전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십이사도의 지역 대표가 같이 한 모임에서 그에 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번 대회에서 헝클리 형제님이 물론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도들로부터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편지를 천여 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경전을 읽으라고 충고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이 세상에서 영생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지난 6개월 동안은 물론경과 성경을 거의 다 읽었읍니다. — 전에 읽었을 때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성경에 있는 나훔서 2장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 항오를 벌이

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같고 번개같도다”(나훔 2:3-4)

자동차같은 것은 꿈도 주지 못한 그 시절에 자동차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확실히 그것은 번개같이 달리고, 횃불같이 보입니다. 특히 밤에 전조등을 켜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밀고 부딪칩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고 싶으시다면 차체 수리점에 가시기만 하면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성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항오를 벌이는 날, 곧 주님의 준비의 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00백년 전만 해도 이 예언은 성취될 수 없었지만, 오늘 날 그 예언이 자동차를 지칭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께서 준비하시는 시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성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라기서에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재림을 예비할 목적으로 그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신전에 홀연히 오시어, 그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것들과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말 3:1-2 참조)

분명히 그의 첫번째 오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의 신전에 홀연히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것들과 같이 깨끗하게 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말일에 그분이 오실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바위에 대고 “우리 위에 떨어져 그

의 면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계 6:16 참조)고 외치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재림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사람을 보내실 때, 예언자 외에는 누구도 그 사자가 될 수 없읍니다. 구세구께서 절정의 때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셨으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 그보다 큰 예언자가 없다고 간증하셨습니다.(눅 7:28 참조) 예언자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 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 드린 것과 같이 준비의 시간이 될 때,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세우시지 않고 그의 재림을 준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현대의 윤법 시대의 예언자는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읍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성스러운 경전의 예언이 수없이 많이 성취되었읍니다.

저는 오순절 다음날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사망으로 몰아 넣은 자들에게 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는 하늘이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행 3:20-21) 받아들이게 되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살이 뒤져 본다 해도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모든 만유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교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구세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회복에 관해서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오심은 신회의 참된 개체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며, 모로나이는 물론경으로 번역된 금관을 가지고 왔으며,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인 아론 신권을 가

져다 주었고(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몬슨 형제가 간증한 바 있읍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 거룩한 사도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을 세울 권능을 가지고 온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기는 했지만 잊어버려 모든 출사와 박수와 술객을 불려 알아내려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 왕의 꿈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렀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단 2:28)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파괴되거나 다른 백성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왕국을 세우실 말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세워질 여러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해 말했읍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작은 돌과 같이 그것은 커다란 산이 되고 전세계를 덮을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단 2:44-45 참조)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할 거룩한 사도의 직분과 권능을 갖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오심으로 인해,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 말일에 왕국의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읍니다.

내가 미국의 남부에서 선교부장으로 있었을 때 한 선교사가 그 꿈과 말일에 주께서 세우실 왕국의 건설에 대하여 말씀을 했읍니다. 모임이 끝나, 내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당신은 그 왕국이 바로 물론 교회를 말한다는 뜻은 아니시겠지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왜 그러시지요? 목사님.”

그는 “그럴 수는 없읍니다.”라고 말했읍니

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왕이 없는데 어떻게 왕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는 왕이 없으므로, 왕국이 되지 못합니다.”

“아, 목사님은 경전을 충분히 읽지 않으셨군요. 다니엘서 7장을 읽으시면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왔다는 귀절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 아래의 나라와 모든 나라들, 권세와 권능을 주어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7 : 13-14 참조)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왕국이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왕국을 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말씀을 좀더 읽어 보면 아시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불인바 되어서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영원이라는 말만으로도 부족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삼만여 명의 선교사와 함께 일하고 계신 모든 분은 위대한 왕의 재림을 위해서 이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시자 요한이 밖모섬으로 쫓겨나 있을 때 경험한 것을 참조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계 4 : 1)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삼십년 후의 일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악마, 곧 사악한 자들이 성도(성도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들과 싸워 이겨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주어짐을 보여 주었습니다. (계 13 : 7 참조)

조)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가 완전히 배도되는 사실을 성스러운 경전이 명확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를 보여 주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복음은 인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계 14 : 6)을 가겼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계속해서 지상에 존재해 왔다면, 요한은 천사가 회복시키는 것을 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받아들인다고 베드로가 말씀했을 때 마음 속에 품었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져 온 천사가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계 14 : 7)라고 고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만 해도 과거의 세계 역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세상에 더 많은 심판과 고통과 전쟁과 논쟁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보았던 영원한 복음이 회복된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 : 7)고 덧붙였습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놀라운 시현이 열려,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을 때만 해도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는 존재, 육체, 자질이나 감정도 없는 신을 경배했습니다. 육신이 없다면, 눈이 없으니 볼 수 없으며, 귀가 없으니 들을 수 없고, 음성이 없으니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런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경배할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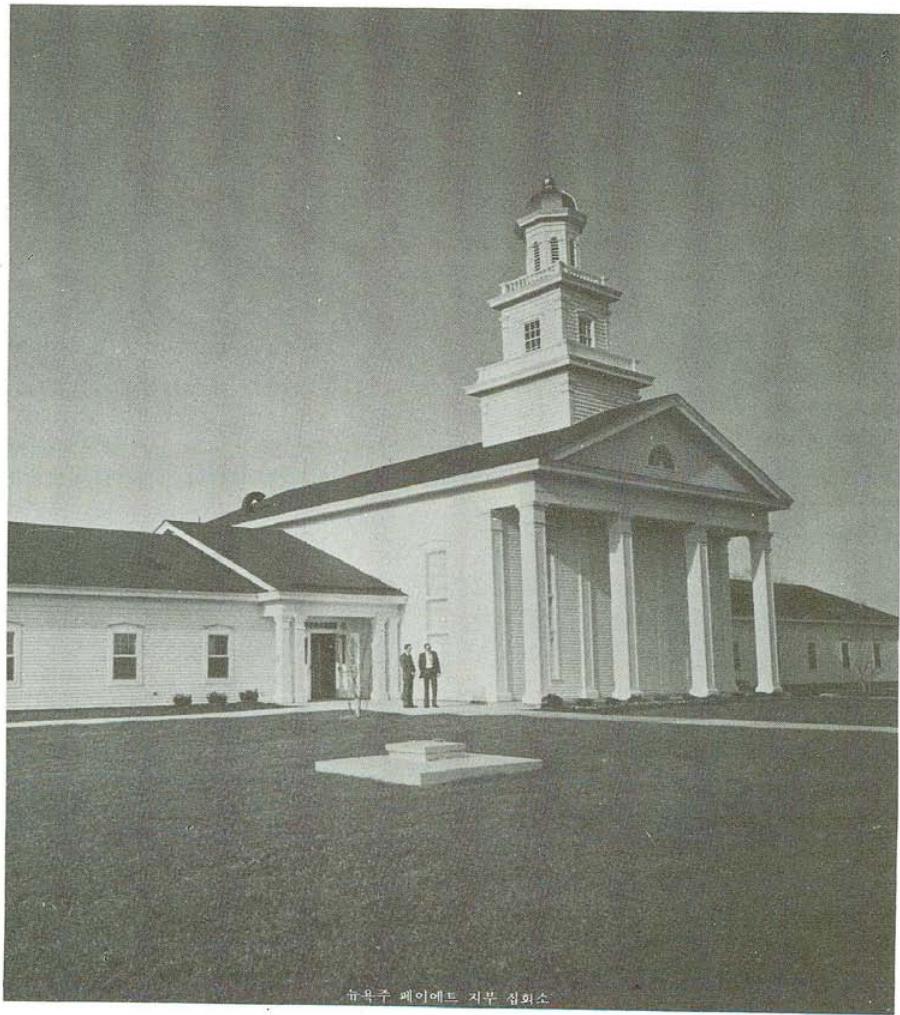
가 있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의 어느 빛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에 둘러 싸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개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서로 질주하며, 그 빛은 헷불간고, 마치 번개같이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예언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관해 수많은 훌륭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읍니다. 나는 주님의 사업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사업이 진실함을 알고 있읍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복음이 회복됨으로써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시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이 사업은 신성함을 간증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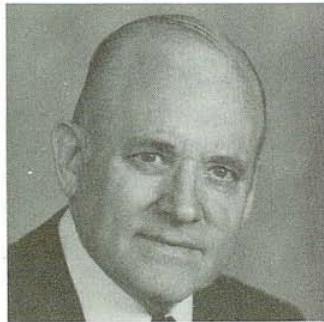
*



뉴욕주 페인에드 지부 집회소

단련 받는 백성

“개척 시대의 성도들이 겪었던 그와 같은 어려운 역경을,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또 면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십이사도 정원회

몇 년 전에 우리는 사모아에 있는 아피아 항구의 선창가를 따라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국경일의 행사가 있는 날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다로부터 고요한 항구로 포타시라하는 긴 보우트들이 결승선을 향해 오는 것을 보려고 몰려 들었던 것입니다.

관중들은 흥분되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포타시를 보려고 시선을 바다로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우트가 시야에 들어오자 관중들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배에는 오십 명의 힘센 장정들이나란히 앉아 리듬에 맞추어 노를 저으니 배가 파도를 헤치고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보우트와 노젓는 사람들은 곧 마지막 지점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힘센 장정들이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오십 명을 태운 보우트의 무게 때문에 물의 저항력이 생겨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은 제일착으로 들어온 긴 보우트가 결승선을 넘어서자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경주가 끝난 후에 보우트를 배어 놓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선원이 포타시의 뱃머리는 보우트의 속력을 떨어뜨리는 저항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물을 가를 수 있게 전조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노를 저으면 보우트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항을 이용해서 진행 방향을 반대로 또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나 저항은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 저항력이 없다면, 사람이나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며, 한번 움직인 것은 어떤 것에 부딪치지 않으면 정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뜻, 나사못과 볼트와 같이 간단한 것도 제자리에 붙어 있지 못할 것이고, 코르크 마개가 병에 끊혀 있지 못할 것이며, 전구는 소켓에서 떨어질 것이며, 병 뚜껑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 현상이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마찰이나 저항의 법칙은 우리 개인 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리하이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할 때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는 야곱에게 그의 형제들의 무례한 행위로 인해 고난과 슬픔을 받은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고난이 결국 유익이 되게 하는가를 말했습니다. 리하이가 그의 아들에게 말한 것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나니,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며”(니이 2:2)

다시 말하자면, 반대나 저항의 형태로 그에게 닥친 고난은 그에게 유익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리하이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은

이미 고전이 되었습니다. “법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나니,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의로운 것이나 죄악이나 성스러운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선이나 악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니이 2 : 11)

우리는 저항을 받고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는 영원한 진보를 위한 계획에 속합니다. 유혹, 아픔, 고통 및 슬픔이 없다면 선함, 미덕, 평온을 인식하거나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의 법칙은 선택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려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모 6 : 33) 그는 우리가 그의 영에 복종하고 유혹에 대항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물론 자유의지는 우리가 그의 지시를 거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버리고 유혹에 복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 세기 반이라는 과정을 지나 현재의 위치에 서 있읍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우리 조상들이 견디어 온 투쟁과 박해와 슬픔을 회상케 합니다. 키틀랜드, 잭슨군, 클레이군, 혼즈 밀, 나부 등은 모두 고난, 즉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견디어 내리라고 약속하셨던 환난의 한 부분(교성 58 : 3 참조)과 같은 뜻으로 생각되는 지역들입니다.

돌이켜 보면, 초기 역사에서 그러한 고난에 맞섰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와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로와 하며 울부짖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빛들어 올릴 것이요.”(교리와 성약 121 : 7-8)

“네가 부르심을 받아 시련을 겪고 있을지

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
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았어다.”
(교리와 성약 122 : 5-7)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잘 참았기 때문에, 사막에 장미를 꽂피울 수 있었고 (사 35 : 1 참조), 시련과 박해를 받은 백성들로 인해 신앙을 유산으로 받게 되고 시온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든 자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성 82 : 14 참조)

150년간의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저항과 반대가 최대로 커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실천력이 커져 성장과 발전하는 기회를 크게 받게 되고, 반대 요인이 적어 지면, 현실에 만족하게 되어 신앙이 떨어진다는 교훈을 알게 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평화와 고요함, 평온, 편안을 누리게 되어, 신앙에 대한 박해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들의 의무를 쉽게 저버리기 되며,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결국 신앙을 잊게 됩니다.”(설교집에서, 7 : 42) 교회 전체에 적용된 이 교훈은 역시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경전에는 개인적인 희생, 반대 및 역경을 치른 고대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이른 예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들의 투쟁의 일대기에서 나는 그들이 보여 준 끈질긴 신앙의 모범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끈질긴 신앙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유픽입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잃었으며 고난과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았으며, 몇 명의 자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고, 그의 친구들까지도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욥기 23 : 10-11)

또 하나님의 신앙의 본보기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 싸웠는가 하면, 심한 기근을 겪었으며, 부친이 신권을 버리는 것도 보았으며, 그의 신앙에 대한 박해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받기도 했읍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을 애타게 기다려 얻은 아들을 주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는 슬픔도 겪었읍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겪은 고난을 나 주가 겪게 하였느니라. …저들은… 아브라함처럼 징계를 받고 시험받을 필요가 있느니라.”(교성 101:2, 4)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의 쌍동이 형제와 사이가 틀어져 몇 해 동안 집에서 떠나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를 만나지도 못했읍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통하는 생활을 했으나, 사실 그 아들은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아들인 베나민을 얻은 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지냈읍니다. 그는 용감하지 못한 아들들의 인간적인 슬픔을 알았지만, 그의 자손을 축복해 주어 야곱의 가계, 이스라엘의 가계라고 불리우는 영에를 받게 되었읍니다.

신약성서는 다소 사람 바울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극적으로 개종한 날로부터 그는 커다란 시련과 고난을 받았읍니다. 그는 신앙으로 인해서 투옥되기도 하였고, 배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는가 하면, 그의 말대로 사탄의 희롱을 당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적었읍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역경을 바울의 역경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여김이 바울과 같이 된 줄로 아노라.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견저내어 주셨음이니…”(교리와 성약 127:

2)

마지막으로, 굳은 인내심으로 신앙을 지킨 자의 본보기가 되는 물문경에 나오는 니파이의 일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파이는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생활을 한 환경을 떠나 8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그 가족은 미지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육지로 갔습니다. 이려는 동안에, 니파이는 그의 식구로부터 공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았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니파이와 가족들은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헤어져 살게 되었읍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사 고난의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셨으며, 심히 깊은 물에서 나를 보존하여 주셨느니라.”(니이 4:20)고 말했읍니다.

지금까지 가장 극심하게 고통스런 시기에 하나님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신앙에 찬 사람들의 일대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사 48:10)에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진리를 배웠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일대기가 기록되고 있읍니다. 육과 같이 육체적인 고통, 내적인 슬픔, 친구로부터 불신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 나가는 성도도 있읍니다. 야곱과 같이 아들딸들이 뗇떳하게 생활하지 않을지라도, 잠재적인 능력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심한 조통을 끝까지 참아 견디는 성도도 있고, 니파이처럼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 생활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과 슬픔을 맛보는 사람, 자녀들의 타락으로 영적인 슬픔을 맛보는 사람, 건강을 잃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거나 내적인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육과 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

니다.

우리는 최근에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의 생신을 축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85년에 걸친 인생 길에 커다란 역경이 줄곧 함께 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경험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히 편안하고 안락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슬픔과 비탄의 문을 닫아 버린다면 참으로 훌륭한 친구와 은인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제심을 배우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기적을 낳는 신앙, [솔트레이크시티 : 메저넷 출판사, 1972년], 98페이지)

우리는 150년이라는 교회 역사의 정상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이 승리의 판을 쓰기에 앞서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정상도 있습니다. 그곳까지 이르려면 집단적인 시련과 개인적인 역경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계획에 필수적으로 있게 마련인 저항입니다. 개척 시대의 성도들이 겪

었던 그와 같은 어려운 역경을,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또 면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발전을 막는 바로 그 저항력이 한편으로는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이겨내는 자를 원하십니다.

나는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한 절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간증으로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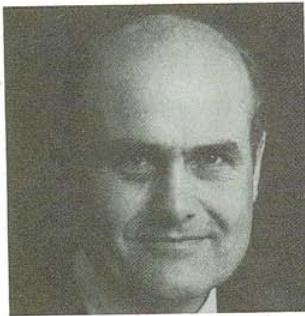
불같은 시험이 앞에 놓이나
내 은혜 충만히 널 채워 주리라
그 불길이 널 해치지 못하리라
그 불길 통하여 신앙 굳게 하리
순금만 주 앞에 나타내리라.
(찬송가 16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위적인 철학으로 표현되어 온 하나님”이 아니라 본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결정”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칠십인 계일 정원회

○ 자리에 나와 서게 되니, 처음 구도자로서 교회에 와서, 내게 침례를 받게 하려고 선교사들이 애쓰던 옛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내게는 너무나도 크게 생각되었지만, 이 사업이 진실하다는 것에는 이미 불타는 듯한 간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로서 다시 말씀드릴 권리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운 마음이기는 하지만, 선교사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어떤 직책에도 부름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절대로 말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안수례로 받은 성신의 능력과 보호, 그리고 사랑에 찬 영향력이 없었다면, 나는 교회에서 말게 된 여러 직책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원인 우리는 말일에 신의 권능을 받은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

리가 회복되었음을 증거할 특권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독일에서 선교부장으로 일하던 바로 얼마 전에 이러한 간증을 어떤 사람에게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말에 매우 불만을 품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했읍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는 마음 속 깊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는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나이까?라는 문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혹자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해도,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갈구하고 바라게 된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과연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저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생의 목적을 여러 형태로 해석하게 되었읍니다. 필멸의 존재로 있는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불확실하고 대수롭지 않게 인식할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화와 존엄, 빛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원이 거룩함을 점차 잊게 되어, 살아 있는 인간인 우리가 전세에서 악마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악마가 괴 놓은 미

로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인간이 자유의지로 타락하도록 인도하여 그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일상 생활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 증오, 실망, 고독, 추함은 사탄의 영향으로 맷어진 열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진실되게 사랑하며 신앙을 가지려는 우리의 능력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광범위하고도 사악한 계략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인 이 말일에 곧 모든 인간에게 결정이 필요한 이 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방법으로 진리를 찾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록 그로 인하여 우리 생활이 완전히 변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혼히 경전 말씀을 끌어 들이기도 하는 인간의 불확실한 진리는 한 시대나 한 세대 동안은 인간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저들을 구원의 길이나 영생의 길로 이끌 수 없음은 물론 이려니와, 오늘날 인류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답을 들려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계획을 충만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적인 욕구를 물리치고 우리 주변에 시온을 건설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길을 마련하실 때, 그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되셨고 어두움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 1:5 참조) 어두움은 그를 파괴하기 위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일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참된 제자들에게도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복된 참된 교회에서 그

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의 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맷게 된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가 힘든 결정을 내릴 때 인도해 주며, 스스로 회생하고 단련할 줄 알아 참된 사랑과 신앙을 키우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자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수없이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지침을 얻기 위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적으로 교통하게 될 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의 명에가 부드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생활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무런 마음의 동요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온갖 종류의 철학과 종교를 미끼로 하여 인간을 타락케 하고, 인위적인 합리화와 사악함에서 행복과 평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는 인간이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언행을 날낱이 보고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하려 애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구제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우리는 에녹, 이사야, 다니엘, 바울과 그밖의 많은 고대 예언자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영광되고 충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시대에 걸친 사탄의 사업은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살아 계신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이 이끄는 말일

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롭게 산 열매를 당당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천사가 지금은 온 세계 각 나라의 백성들에게 경고할 때라고 말했으며,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말할 때가 가까워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물론경 앤마서 34장 32, 33 및 35절에 기록된 예언자 앤울레크의 말씀을 들어 간증드립니다.

“보라 이 생운…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론 대로 너희가 많은 증거를 가졌음에 너희의 회개를 마지막까지 미루지 않기를 바라노라. …

“보라 너희가 죽기까지 회개를 미루면 너희는 악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 악마가 너희를 저의 것으로 하며, 주님의 영은 네 몸에 거할 곳이 없어 물러나리니, 그렇게 되면 악마가 온전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악한 자의 마지막이 이려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신권 권능은 다만 인간의 의로움의 원리를 통하여서 작용합니다. 이러한 권능은 고대로부터 에언된 바와 같이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한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30,000여 명의 선교사들은 이 능력을 받아 영원한 진리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 일생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을 찾아가르치기 위해 파견되어 나갔습니다. 수십 만의 신권 지도자와 자매들은 매일—의로운 삶, 모범, 간증을 통하여— 저들이 이룬 한 것이 진실됨을 확실히 알아 성신에 의하여 인봉되고, 하나님의 왕국은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세워지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리와 성약 58편 64절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여 배우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 음성은 이곳에서 온 세계와 세상의 모든 구석까지 퍼져 가야만 하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나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이 일일의 주님의 사업은 아담의 철대 자손인 예언자 예녹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 모세서 7장 6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의를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땅에서 진리를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과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게 하리라. 또 의와 진리로 하여금 세상을 흥수로 쓸어 내듯이 쓸어 내게 하여 땅의 사방으로부터 나의 택한 자를 모아 내가 예비해 둘 거룩한 도시로 보내리라. 이는 나의 백성이 허리를 동여 매고 내가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합이니, 거기에 나의 장막이 있을 것임이라. 그곳은 시온 곧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리라.”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때임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철학으로 표현되어 온 하나님이 아니라 본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결정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업이 살아 계신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을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하시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암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기꺼이 받아들임

여러분과 나에게는 두 개의 커다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절대로 끝이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택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리온 디 햄스
칠십인 제일 정원회

부 쉬 형제님이 방금 인용하신 모세서의 같은 장에, 나에게는 모든 문학서 중에서도 가장 교훈적이며 아름답게 느껴지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때가 지나매… 하늘로 들리워…” 간 “한 도시를 세워 거룩한 도시 곧 시온이라 칭하였더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을 보시며 [즉, 들리우지 못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시니...”(모세서 7:19, 28)

에녹이 주께 고하기를 “하늘이 울어 산에 멀어지는 비같이 눈물을 흘림은 어찌된 연고니이까?

“…당신은 거룩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어떻게 우실 수 있사옵니까?”(모세서 7:28-29)

그런 다음 에녹은 하나님에게 그 창조물의 한없이 무한하고 계속되어 나가는 본성과 하나님의 성스러운 완전성과 영광과 업적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평화와 진리만이 당신의 보좌가 좌정하시는 곳이며, 자비는 당신을 앞서 나아가 끝이 없으시니 어떻게 당신께서 우실 수

있나이까?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되,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동산에서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도다.

“또 네 형제에게 내가 이르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나 저들의 하나님을 택하라는 계명을 주었으되, 저들에게는 아무런 애정도 없어 자신의 혈족을 미워하는도다.

“…또 내 손으로 스스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 통곡하게 되리라. 어찌 하늘이라 할지라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보고 울지 아니하겠느냐?”(모세서 7:31-33, 37)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이르는 억지, 반항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문에 우셨노라고 에녹에게 말씀했읍니다.

옛날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확신할 수 없읍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믿고 있는 원리를 가르치기에 알맞게 꾸며져 있습니다.

문 앞에서

세월이 흘러, 세 사람은 우리도 누구나 결국 그려하겠지만, 지상에서 영원에 이르는 길로 떠나게 되었읍니다. 그들 세 사람은 위치가 변하게 되자, 각자 자신이 편안한 느

침을 주고, 불안감을 진정시켜 주는 어떤 인자한 분의 앞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례로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대는 그를 아는가?”

첫번째 사람은 약간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종교적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읍니다. 너무나 형식주의적이고 위선 같아서 진실된 종교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읍니다. 또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였으며, 성실하고 착실한 시민으로 생활해 왔으나, 이제 와서 보니 그는 자기가 인생의 참 목적을 잊고, 그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에서 빗나가 있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는 갑자한 마음으로 그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지정받아 갔습니다.

두번째 사람은 더 짧게 접견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자마자, 그는 곧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가 그리스도의 군병이었고, 사업계에서는 그의 십자군으로, 산업계에서는 그의 대변자로 일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 역시 꼭 알아야 할 것을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고서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세번째 사람은 온화함과 경이의 감정을 억압시키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자 그는 문 앞에 서 계시는 분의 사랑이 가득한 눈길을 눈물을 글썽이며 바라보며, 그의 발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를 경배했습니다.

거룩하신 이

경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사람 앞에 바르게 놓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 문을 지키

시느니라. 주께서 그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 하며 그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길에 이를 자가 없나니,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시며, 아무도 그를 속이지 못하리로다.”(니파이이서 9 : 41)

나는 구원과 승영은 하늘에서 기록하는 책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는 영혼의 자질에 관계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기꺼이 받아들임

영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조건에 관계되는 법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왕국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경전에는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영광의 왕국에서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는 영광이 아닌 왕국에 거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성 88 : 22-24 참조)

“나머지 사람도 또한 살리심을 받을 것이나 또 다시 자신의 옛 장소로 돌아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기꺼이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꺼이 받으려 하는 것을 받게 되리라.

“선물이 들어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보라, 저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선물을 주는 자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 : 32-33)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요?”(모사이야서 5 : 13)

우리는 그를 알고 택하여, 그에게 봉사함으로써 축복을 받고, 그와 가까운 관계를 맺기에 합당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를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비참하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게 될 때도 그에게서 위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분은 항상 그를 찾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요 14:18)

그는 우리가 어떠한 약점과 암박감과 문제를 갖고 있는지 환히 이해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각자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서로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이르려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떠고 주님의 성역에 대해 700년 전에 써어진 귀절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누가복음 4:18)

왕의 재림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에서, 그는 우리에게 깊은 자, 복마른 자, 나그네와 혈베푸는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천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따르기를 바라시는 도움의 과정이 기술되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주

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범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피로 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이사야 58:6, 7, 10)

여러분과 나,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 역시 그의 다른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필요로 하심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도구

고아원에 사는 어떤 소녀는 고아원 건물 밖에서도 땅을 수 있는 나뭇가지에 쪽지를 갖다 놓는 귀찮은 아이 때문에 매우 불쾌해 했습니다. 그 사실은 고아원 원장에게 까지 곧 알려져 원장이 그 쪽지를 꺼 보니,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읍니다. “이 쪽지를 보게 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엡 6:6)

부쉬 형제님이 기도와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앰뷸레크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더 읽어 나가면 이런 내용이 있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까지 말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족하다 생각지 말라.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혈베푸는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 너희에게 유익을 가져 오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같이 되리라.”(앨마서 34:28)

이 말씀을 어느 시인은 달리 표현했습니까.
다.

사랑은 전부가 아닐세. 고기나 술도 아니요,

정적도 아니고 비를 막는 지붕도 아니라네.

물에 빠진 사람이 잡는 떠다니는 나무 조각도 아니라네.

(에드나 성 빈센트 밀레이, 시선집, 노르마 밀레이 편, [뉴욕 : 하퍼 앤드 로우, 1956년], 659페이지)

우리는 신앙보다도 크고, 소망보다도 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희생과 봉사와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맞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가 하면 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후자의 일부는 우리 사회에 몰려 들고 있어, 수없이 많은 주의 나라 잃은 백성들이 지구 저 편에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난민들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금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기아와 무주택, 절망과 가난 및 추방 등의 문제는 우리들이 대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표명해야 할 문제로 애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제도화된 대대적인 사회 복지 및 봉사 계획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 드려야겠지만, 항상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낯선 사람들, 버릇없는 자, 노인, 병자 등에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사람 역시 때때로 버림받은 느낌을 받게 되어 격려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읍니다. 자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녀들이 길을 잘못 들어 상심하게 된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의 설교나 성

공담을 듣게 되어도 별로 위안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한 분만 있는 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욕구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섭기지 않거나 서로 진실된 사랑을 나누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신다는 경전 말씀을 간증으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진실로 악한 것 만이 결국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누구든 가장 슬픈 환경은 주님을 택하지 않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서로 애정을 느끼지 못할 때, 비극이 오게 됩니다. 고통을 주는 자는 주님을 울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정을 달리 말하면 오늘 아침 김볼 대관장님께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혼선적인 그리스도의 봉사를 말합니다. 곧 깊주린 자, 헐벗은 자, 억압받는 자, 추방당한 자, 과부, 고아, 꾀로움을 당하는 자, 애통하는 자, 마음에 병이 있는 자, 버림받은 자, 노인, 병든 자, 투옥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봉사를 말합니다.

주님을 택하고 사랑함

여러분과 나에게는, 두 개의 커다란 목표가 있읍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절대로 끝이 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주님을 택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려라”(계 21 : 3-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우리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진보하며 영성이 증가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업을 막으려는 세력이 상존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의 탄생 철 세기 전에, 이사야는 이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 일이 모든 인류에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사 29:14)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께서 미대륙에 있었던 니파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러한 말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날에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니삼 21:9) 마지막 날에 미대륙 땅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830년 4월 6일, 뉴욕주에서 이 경륜의 시대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시작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포함한 소수의 형제와 자매가 피터 휘트먼 세의 집에 모여,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에 참여하고 종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81개국에 45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150년을 돌이켜 보면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인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었지만 그 후에는 괄목할 만큼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초기에 주님의 교회의 시작을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조그만 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 은신처가 많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3:31-32 참조)

예언자 다니엘은 교회의 시작과 두드러진 성장을 거대한 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덮을 작은 돌로 설명했습니다. (단 2:34-35, 44 참조)

사람들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교회를 평가해 보려 할 때 그 추진력과 잠재 능력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풀이나 나무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반대와 박해의 기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그마한 “겨자씨”는 심어졌고, 그 성장을 저지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파괴하려는 모든 요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이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로 번창하고 성장했습니다. 요셉과 하이 람의 순교로 교회도 끝장이 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말일의 왕국은 “영원히 망하지”(단 2:44)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언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브리감 영은 “왕국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한 알의 겨자씨 만큼도 못하나 이 작은 식물은 커갈 수 있는 여전에 놓여 있습니다.”(교회 정사 6:354)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한 것처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단 2:45)과 같은 신성한 왕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재로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인간이 만든 제도도 아닙니다. 배도로 잃었던 의식과 열쇠를 회복할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자가 인간에게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조직이나 교회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교회는 네 주에서 쫓겨 나고, 회원에 대한 고통과 박해, 주지사의 근절령, 예언자가 처형되고, 정부의 선거권 박탈, 그리고 정부 지도자와 주민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가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 남았습니다. 교회는 초기 역사 60여 년 동안에 그러한 상황을 겪더니 이겨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박해와 궁핍 속에서 교회는 힘을 얻고 성숙해 갔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형 하이 람의 아들인 조셉 에프 스미스께서 대관장이 되었을 때쯤 해서는, “우리는 유아 시기를 거쳐 이제 성숙한 남성과 여성이 되었습니다.”(대회 보고, 1909년 4월, 2페이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대는 20세기에 들어서도 가라앉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적들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고 지지하는 것을 절차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몇 청년들은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에서 용감히 싸워 그들의 표준과 원리를 인정받게 했습니다. 1930년대의 세계 경제 대공황기에, 교회는 자조 자립하는 교회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를 통하여서, 말일성도는 과학, 교육, 의학, 사업, 기타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그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선교 사업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개종자가 속출하게 되었으며 선교부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뿌린 씨는 스테이크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시온은 그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며, 그 경계를 넓혔습니다. (교성 82:14 참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 형제님은 교회 대관장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나 회원들로서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었습니다.”(대회 보고, 맨체스터 잉글랜드 지역 대회, 1971년, 5페이지)

2년 후 스미스 대관장의 뒤를 이은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그의 손을 우리 성도들에게 펴 보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경륜의 시기에서나, 과거 그 어느 때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교회 회원들간에 긴박감이 있어 본적은 없입니다. 교회의 경계는 넓혀지고 있으며 스테이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유타 교회’ 또는 ‘미국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회원들은 현재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해롤드 비 리, “시온의 스테이크를 강화함”, 성도의 벗, 1973년 10월호, 35페이지)

일 년 전에, 킴볼 대관장은 이 연단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전에 …연차 대회 모임을 가진 이래, 주님의 왕국이 크게 성장하고 확장한 것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자유 세계의 전 지역을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확보했으며, 머지 않아서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 속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이르게 되리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급히 준비해야 하는 사태로 우리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와드와 지부로 구성되는 물론 교회의 지역적인 행정 구역 단위인 스테이크가 매해 약 100여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시온이 고루 발전하고

성장해 나감을 보여 주는 이 통계 수치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읍니다.”(성도의 벗, 1979년 10월호, 3페이지)

이 교회가 지상에 존재해 온 지난 150년간을 돌아켜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이처럼 기이하고 놀라우리 만큼 성장해 온 것을 크게 기뻐하여 전세계에 전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시에 따라 성공과 성장을 이루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겠읍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진보하여, 영성이 증가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온 지구상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해진 모든 나라에서, 살아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 영원한 가족 관계로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진리를 상징하는 신전이 세워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업을 막으려는 세력이 상존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845년, 십이사도 정원회는 모든 국가의 수녀에게 서한을 보냈읍니다. 그 중에서 한 귀절을 인용하겠읍니다.

“이 파업이 점차 진행되어 나가 정치적, 종교적인 면에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되면, 어떤 왕이나, 통치자, 국민 또는 단체나 개인도 중립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모두다 이러한 영이나 다른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편이 되지 않으면 반대하게 되고...”(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 6권,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5-75년, 1 : 257])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왕국의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나 적대시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려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읍니다. 또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수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을 전혀 모르는 독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830년에 뿐만 물을 준 씨가 이제는 다 큰 나무가 되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읍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해 그 나무 그늘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립적인 면에서 그 열매를 평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수, 실패, 부도덕과 맞서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승영에 이르는 길을 티없이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미덕과 영광의 표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때, 교회 파업에 대항하는 세력을 예측하게 됩니다. 물론 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어린양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땅의 모든 이방의 나라에서 큰 무리를 함께 모으더라”(니일 14 : 13) 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성도의 의로움은 교회가 지속해 나가는 데 방패가 됩니다(니일 14 : 14-15 참조)

지난 15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더 큰 성실성이 요구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 자처하는 모든 자가 꽃이 서서 하나님의 왕국에 충성심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한 옆에 비켜 서 있는 비평가나 방판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읍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불러 모으는 소리에 응답할 때입니다.

누가 주의 편이냐
지금 보일 때라
두렵없이 묻노니
누가 주의 편이냐
(찬송가 51장)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원회와 교회에서 멀어져 나간 비활동 신권 소유자에게 말씀드

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 교회에 흥미를 잃고 교회 표준을 따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여러분의 가족은 대부분이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고 여러분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계 여러분, 우리가 신권 언약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옳지 못한 삶을 위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약에 일치하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과 협력과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심한 갈등에 싸여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라고 의친 구호가 곧 우리의 결의가 되도록 합시다.

(설교집 6 : 26)

여러분이 형제들과 함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십시오. 회원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가서, 혹은 신권 지도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토론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꾀롭히고 교회를 반대하는 논쟁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이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환영하며 친분을 맺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권을 지닌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 충실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름을 열심히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시련의 시기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회복 100주년이 되는 해에 히브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병든 자를 방문하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며, 헐벗은 자는 입히고, 배고픈 자는 먹이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십시오. 주님이 계시하신 건강의 윤법에 순종하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십일조와 현금을 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쌍을 끊이 없도록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윤법과 국가의 법에 복종하고 통치자를 지지하며 존경하십시오.”(대관장단 메시지, 5 : 286) 우리는 오늘 그 충고를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 드립니다.

이 교회는 지상을 채우게 될 거룩한 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입니다. 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관해 잘 생각해 보면, 요셉 스미스가 말씀한 예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어떠한 더러운 손도 이 과업이 진행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읍니다. 불길같은 박해가 밀어 닥치고 폭도들이 규합하고, 군대가 집결하고, 중상과 모략이 판을 친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대담하고, 고귀하고, 꿋꿋하게 온 세상에 퍼져 나아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찾아 방문하고, 모든 사람의 귀를 울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모두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4 : 540)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과업은 참된 과업입니다. 이 간증을 겸손한 마음으로 온 세상에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충성하여 신앙과 용기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예언자와 교도소

“교도소에서 예언자께서 보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정원회를 높이고, 이끌어 나가고, 사랑하기에 필요한 용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빈 제이 애쉬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며칠 전에 나는 예언자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을 모시고 유타주 교도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니, 뒤에서 전기로 작동되는 문이 미끌어지면서 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벽에 반사되어 들리는 삐걱거리는 쇠소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내게 익숙해 있었습니다. 나는 전에도(방문자로서) 여러 번 교도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킴볼 대관장은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중한 문을 지나자, 우리는 준 안전지대 앞쪽에 위치한 워든 로렌스 모리스의 사무실까지 경호를 받으며 안내되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상태가 완전히 질서가 잡히기를 바랐습니다. 예언자가 방문하고 계시는 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 서는 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방문

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주위의 상황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어떤 수감자가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유능한 간수장이 잘 준비해 주었고, 사무실 주변과 건물 안의 분위기는 더 바랄 나위없이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비공식 통로로라도 예언자의 방문을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크게 안심했습니다.

무엇에 이끌려 킴볼 대관장은 교도소를 방문하시게 되었을까요? 왜 그분은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분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보고자 하시는 어떤 수감자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데도 이 위험한 환경 속으로 왜 들어가셨을까요?

나는 최근의 이 교도소 방문을 마친 후, 그때의 일을 며칠 동안 생각해 본 후에야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여러 가지 이유와 많은 사람을 위해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다는 것은 내 일생에서 겪는 가장 훌륭한 경험이 됩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예언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선임 동반자는 나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도소를 방문하고 다시 차에 올라타니, 이 훌륭한 분의 온화함과 지혜로 인해 나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킴볼 대관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특별한 지도자의 몇 가지 특성에 관해, 특별히 다른 신권을 소유한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서,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각자가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무실에 도착한 지 잠시 후에, 간수장은 수감자 두 명을 킴볼 대관장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며 들어오자, 킴볼 대관장은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한 분의 예언자와 두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지켜 보았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인사를 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가족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예배당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판하거나 당황하게 하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형기는 얼마나 됩니까? 무슨 죄목으로 왔습니까?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나요? 당신의 가족은 당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나요?”

킴볼 대관장은 이와 같이 기술적이고도 성실한 개인 접견을 통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단 몇 분 안에 몇 마디 안되는 적절한 말로 그분이 두 죄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두 죄수와의 접견을 짧게 마치고, 우리는 교도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오전 10시 30분경으로 바깥 온도는 섭씨 7도 정도였습니다. “두 구역을 타고 갈까요 걸어갈까요?”라고 대

관장께 여쭈었습니다. 대관장은 “걷는 편이 좋겠군.”하고 대답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외투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비서인 디 아더 헤이코크 형제가 외투를 벗어 대관장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관장은 “아니, 괜찮아요. 그냥 입고 있어요. 걷다 보면 외투가 필요없을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감사를 나타내는 제스처에 불과했을까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킴볼 대관장의 예의바른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간수장, 죄수, 수행원들과 함께 새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걸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시는 질문과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대답을 들으시고 관심을 끄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 번 그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억류되어 있는 상태와 처우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건축 중에 있는 예배당 안쪽 벽에서 그분은 멈추어서 죄수들도 몇 명 섞여 있는 일꾼들과 그를 알아 보는 방문자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 주시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악수를 하려고 비계목에서 뛰어내려 오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손에 묻은 모르타르와 더러운 것을 닦아 내기도 전에 대관장이 팔을 뻘혁 내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과 다른 교회에서 온 지도자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각 종파가 다 모이는 이 예배당은 수감자들이 그들의 길을 다시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들은 합당하게 생각되는 지역 사회의 모든 일에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 번 그분이 모든 사람들과 훌륭한 관계를 맺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배당 시찰과 교도소 방문의 절정을 이

문 것은 최저 안전 지역에서 두 수감자가 예언자와 사진을 찍기 위해 그의 양 옆으로 달려왔을 때였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대관장은 그들을 반가이 맞아 주시며 양팔을 그들에게 두루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사진을 찍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두 수감자는 분명히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분의 위대성과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어느 곳에 있었건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 주셨습니다. 분명히 킴볼 대관장은 죄악의 원수가 되시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교리와 성약 50편 26절의 성구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되어 파송되는 자는 그가 가장 작은 자요, 모든 자의 종이라 할지라도 임명되어 가장 큰 자가 되느니라.”

방문을 마쳤을 때, 수감자 한 명이 내게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과 악수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곧 이어 다른 수감자도 말했습니다. “나는 물론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수감자가 언젠가 킴볼 대관장이 참으로 특별한 분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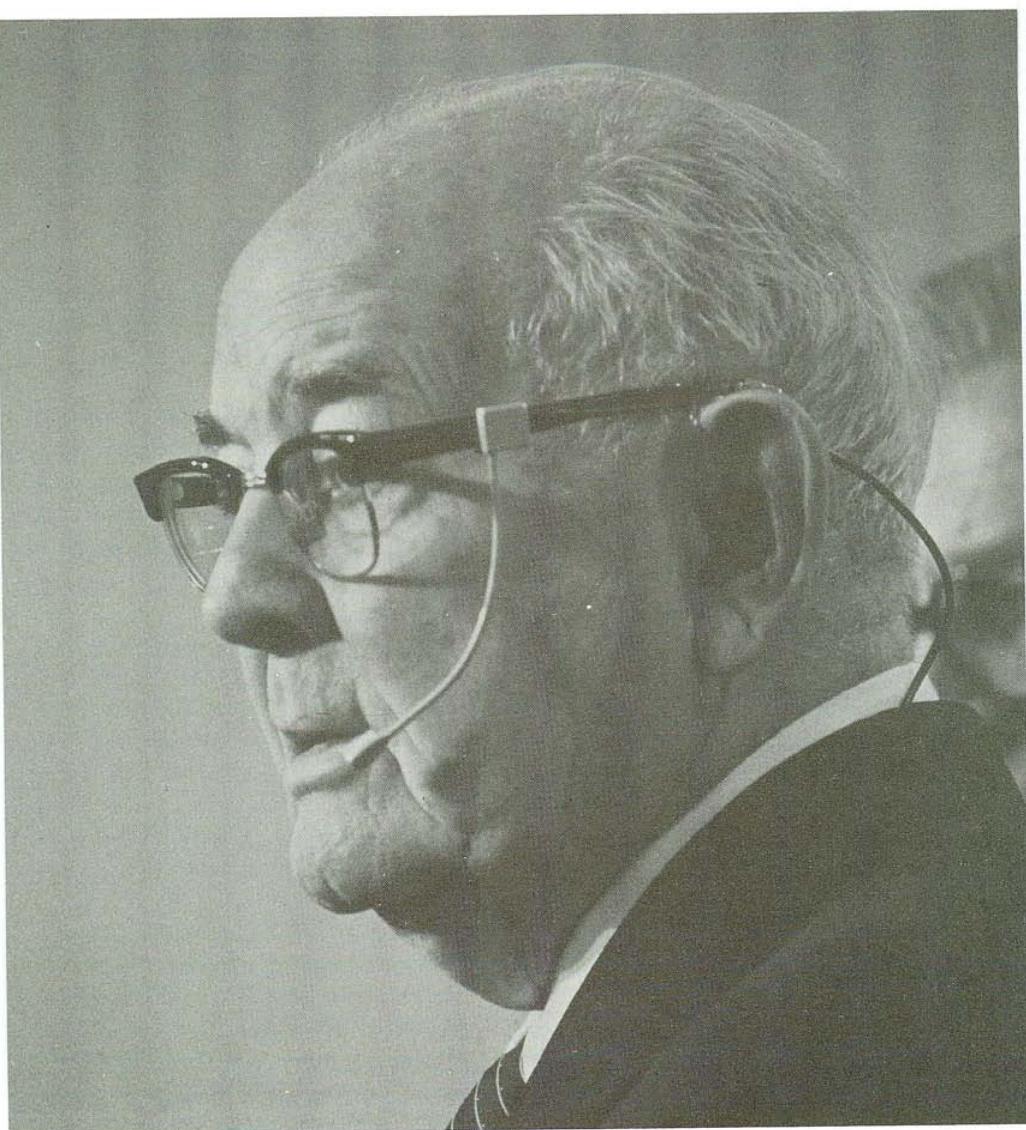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가려고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예언자와 함께 한 이 택함받은 경험으로 인해 팔리 피프렛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함께 미주리 주 리치몬드에 있는 감옥에 함께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랐지만, 참된 품위와 위엄성을 똑같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팔리 피프렛 이세 편집, 팔리 피프렛의 자서전,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3년], 193—200, 210—215, 230—240페이지 참조) 나 역시 교도소를 방문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

하며 스스로를 두려움없이 나누는 데서 오는 참된 위엄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도소 구내를 떠나기 전에, 킴볼 대관장은 최대 안전 지역을 둘러 보셨습니다. 그는 높은 담, 감시탑, 감시원, 격리 수용소를 보시고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과 일하는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착합니다. 단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 합당한 길과 습관으로 인도해 줄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김볼 대관장은 간수장에게 교도소에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김볼 대관장은 일년 전에 그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간수장은 대관장님께 매주 수십 명의 가족이 월요일 저녁마다 찾아와 합당하게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착한 사람들은 가족이 없는 수감자에게는 가족이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수감자들이 석방된 후에도 지속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가족의 힘은 정규적인 기초 위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김볼 대관장은 모든 인간은 가족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믿어 왔으므로, 몇몇 수감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참된 가족의 경험을 처음으로 가졌다는 것을 들으시고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김볼 대관장이 새 예배당을 둘러 보시고 건물 사이를 걸으시는 동안에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이 무리지어 그 옆에서 함께 걸으며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김볼 대관장이 말씀하는 중에 몇 번인가 나를 “마브”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께서 당신을 ‘마브’라고 부르시니 특별히 친분이 있읍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하나님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아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그의 참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슬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킴볼 대관장은 우리에게 교도소까지 같이 가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보여 준 반응에 대해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사랑과 끊임없는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회원과 지도자로서 우리는 킴볼 대관장의 교도소 방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느낀 열 가지 중요한 점들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모범을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좀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활동 회원”을 다정하고 성실하게 접견하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당황하게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사람을 다시 활동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2. 그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느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항상 “각자”가 아니라 “우리”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방문하는 친구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지 참석율을 높이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나 않습니까?

3. 그분은 주위 사람들의 말을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그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자기들에게 주의와 관심을 보여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47절에는 이같은 성구가 있습니다. “사흘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

에게 듣기도 하시며 물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이해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이 인용문의 귀절을 약간 수정해서 말한다면, “몇 분 후에 교도소에서 만난즉 그가 죄수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물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듣고 묻는 능력에 놀라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는 정중하셨습니다. 그는 “스카우트는 예의바르다”라는 스카우트 규율도 잘 알고 계시며 또한 75년도 넘게 그 규율을 분명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5. 그분은 모든 사람을 마치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한 부류로,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좋은 사람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좁은 시야에서 볼 때 친구가 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6.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읍니다. 모든 친절과 호의를 감사하게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도록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면”(교성 59 : 21) 우리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정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격려와 감사하는 말에 굽주려 있습니다.

7. 그는 아주 인상깊은 품위와 자세를 보여 주셨습니다. 킴볼 대관장이 교도소를 돌아보시는 동안 유타주 주지사인 스콧트 엠매드슨씨가 동행했었습니다. 나는 두 분을 모시고 그곳을 둘러 보고, 걸고, 대화를 나누면서, 킴볼 대관장이 주지사와 수감자를 똑같이 대해 주시는 것을 보고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100퍼센트 참석하는 사람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8. 그는 죄는 경멸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가 수감자의 어깨에 그의 양팔을 얹으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자랑스럽게 나타내거나 않을까요?

9. 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분은 수감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들이 오히려 대관장님께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직접 모셔 오면서, 나는 그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피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악수를 하거나 사진을 찍기를 원할 때, “좀 피곤하군요.” 또는 “지금은 안되겠는데요.”라고 말하신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10. 그는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서 같이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비활동이 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킴벌 대관장이 적당한 시기와 상황을 택해 교도소를 방문하신 것과 더구나 그

분을 모시고 함께 동행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진 찍을 때 옆에 섰던 한 수감자는 절도 혐의로 수감 중이었고, 다른 수감자는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원이고, 다른 사람은 비회원이었습니다. 대관장이 “같이 사진을 찍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내 귓전에 맵들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75: 36) 대관장이 사랑의 두 팔을 널리 벌리시는 것을 보고 마음 흐뭇한 본보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을 여유있게 대해 주십니다. 그는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예언자께서 보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정원회를 높이고, 이끌어 나가고, 사랑하기에 필요한 용기를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페이에트 지부 합창단의 합창

타임 아웃

“인생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폴 에이치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스포츠를 무척 좋아합니다. 혼히 스포츠를 통해 훌륭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읍니다. 지난밤에 NCAA(전국 대학 운동 협회) 농구 결승전을 보는 동안에 한 선수가 “타임”이라는 낯익은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들었읍니다. 선수들은 코우치의 지시를 받기 위해 한쪽으로 달려 나왔읍니다. 그러자 코우치가 지시해 주었읍니다.

한 팀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거나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타임 아웃을 부른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운동 선수로 있을 때, “타임”을 부르면 포수나 투수, 코치나 감독이 구장으로 뛰어와서 필요한 지시나 격려를 준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투수로 프로 경기에 처음 출전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1회에서 처음 세 타자가 각각 안타를 쳐서 베이스에 진출하였읍니다. 세 사람의 타자가 나의 초구를 치고 나갔던 것입니다. 코치가 선수 대기소에서 필드로 나와서, 포수와 함께 왔읍니다. 우리 셋은

피처 마운드에 서서 이야기를 했읍니다.

코치가 포수에게 이렇게 물었읍니다. “풀이 어떤 종류의 불을 던지고 있나?” 포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으니까요.” (타자를 지나쳐 온 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읍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은 다소간 프로 야구 경기와 흡사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타임 아웃을 불러야 할 때도 있읍니다. 야구 경기에서 가장 힘든 불을 던지는 데도 상대방이 잘 쳐내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읍니까? 축구 경기 중 상대방 골인선에서 단지 일 미터가 모자라는 곳에 공이 떨어지는 안타까움을 느껴 보셨읍니까? 농구에서 20점이나 앞서 있다가 지게 되는 일은 없었읍니까? 아니면 인생 경기에서, 감정이나 언어를 조절하는 데서 문제점을 겪은 일이 있읍니까? 자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아직 고치지 못하는 것이 있읍니까? 학과 과목이 문제가 됱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실패하셨읍니까? 여러분 가정의 유대가 혼들리고 있읍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무엇인가 해내려 하십니까? 아니면 코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타임 아웃을 부를 시간을 현명하게 파악하셨읍니까?

젊은 형제 여러분, 그것은 항상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방에 혼자 있든, 운동장에 있든, 어디서든 기도드릴 수 있읍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읽은 이야기가 생각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어린 소년이 무거운 돌을 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끔찍도 하지 않았읍니다. 매우 흥미 있게 지켜

보던 아버지가 “너는 네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었더니, 소년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느 순간이든 인생의 “제임”이 아무리 힘들게 생각될 때라도, 코치는 언제나 계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이는 모든 인생의 경기를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타임 아웃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안되겠어.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더 이상 계속 달려 나갈 수는 없읍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도 타임 아웃을 불렀다는 것을 아십니까? 워싱턴은 빨리 포지에서 기도했고, 링컨은 전장터에서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요셉 스미스는 숲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도 그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하였으며, 모세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젊고 위대한 승리자였던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니파이가 나이는 어렸으므로 체격은 컸고 또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심히 알고자 하여 주님께 간구하였으니, 보라 주께서 내게 입하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매, 부친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던지라 형들처럼 부친께 항거하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일서 2:16)

이와 같은 성구 내용은 항상 저에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오늘날 예언자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경전을 연구하여 도움을 받을 줄 알라고 충고해 오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러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열 여덟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제2차 세계 대전에 징병되어 갔습니다. 나는 전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밤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배웠지만, 50여 명이 함께 자는 막사 안에서는 그것이 조금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이 약간은 보장되는 방 끝쪽의 침대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전등이 꺼질 때를 기다려서 침대에서 살금살금 기어나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포트 맥아더에서의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나간 직후에 늘 하던 것처럼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술 취한 병사들이 늦게 들어와서 불을 켜고 모두를 깨웠습니다. 나와 맞은 편에 있던 두 친구는 내가 무릎을 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수작을 걸기에 안성맞춤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 명이 나를 가리키면서, 모두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거룩하신 풀, 날 위해 기도하시지 그래!” 나는 약간 분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당황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지 ?”

어머니는 나에게 커다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 놓담을 해라. 도움이 될게다.” 그래서 무릎을 끊은 채로 어깨를 펴고 두 병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을 좀 가르쳐 주겠어? 하나님이 자네들을 모르실테니까 말이야.” 그후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기도드릴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투에 참가했을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305 보병 대대에는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던의 분대로 들어가. 그는 항상 전투에서 돌아오거든.” 나는 여러 번 불안해 하는 병사들과 같이 개인 참호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코치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삼천 명의 군인을 태운 전함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직접 맞는 전투를 준비하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투에서 일곱 번에 걸쳐 갑행할 파상 공격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륙에 앞서, 신교 목사가 마지막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앞에 모여 선 군인들을 죽 둘러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중에 많은 분들이 내일 아침 여덟 시까지는 창조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나는 만 19세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나는 배에서 은밀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할 시간

을 가졌습니다. 나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파상 공격에 참여할 보병 대대가 해변가에 닿았을 때, 많은 사람이 참호를 만들지 않았지만, 나는 참호를 파고 기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시온지 진심으로 나는 알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마음에 답해 주셨고 그것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타임 아웃을 부르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기도는 그 놀라운 영향력으로 인해 스포츠에까지도 힘을 나타냅니다. 낯선 도시에서 가진 첫번 프로 시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팀에 그 시즌의 중반에 입단했습니다. 감독을 겸하고 있는 포수는 연령이 나의 아버지뻘이 되었답니다. 그는 오랫동안 프로 선수로 있었기 때-

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읍니다. 팀의 선수들은 매우 거칠었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숙박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밤 2시쯤 되어서 제 방문을 누가 두드렸읍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 밖에는 감독의 모습이 보였읍니다.

“풀 들어가도 되나?”하고 그는 말했읍니다.

나는 “들어오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말했읍니다.

“문을 닫게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왔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게.”

“네, 그러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지난 두

달 동안 계속 자네를 지켜 보아 왔다네. 자네는 주님을 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분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도 그 분을 찾도록 도와 줄 수 있겠나?”

우리는 방에 앉아 두 시간이 넘게 영원한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했읍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른거렸읍니다.

“대니씨,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

“저와 함께 기도드려도 괜찮으시겠지요?”

“저, 자네가 한다면 괜찮지.”

“영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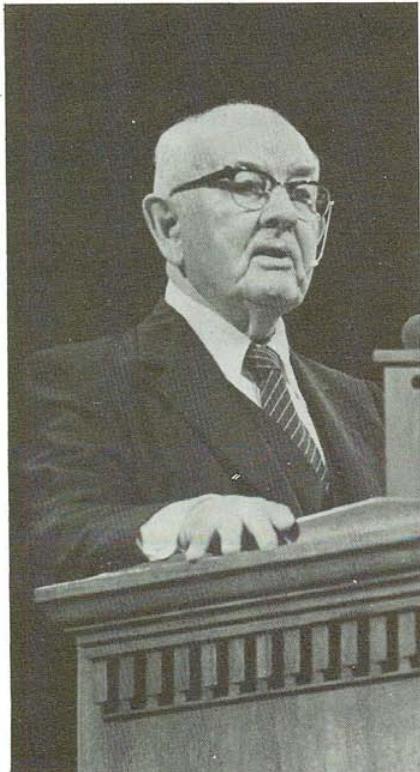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함께 침대 옆에 무릎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읍니다. 우리는 타임 아웃을 부른 것이었읍니다. 그는 무릎을 쪘고 일어서면서 눈물을 닦고는, 양팔을 내 어깨에 두르고 꽉 껴안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읍니다.

“원하시면 언제라도 좋습니다.”하고 나는 대답했읍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여러 번 그런 기회를 가졌읍니다. 그러나 그 밖에 더 흥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즌이 끝나기 전에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은, 처음에는 1루수, 다음은 내야수, 좌익수가 차례로 왔읍니다. 그리고는 모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말게나.”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구하며 바란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타임 ‘아웃’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할 지혜와 힘을 갖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그의 아들 역시 살아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영원한 고리

“과거의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신권 지도자들은 우리가 더 많은 신전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에이 디어도어 터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형 제 여러분,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난 22년간 총판리 역원으로 봉사했습니다. 나는 내 임무를 수행하며 전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나는 이 몇 해 동안에 훌륭한 경험을 했고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는 거룩한 모임에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형제들과의 훌륭한 교제는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나를 고무시켜주었습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신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속 사업은 신성하다는 것을 증거하며 나의 이 증거가 참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회의 근본 원리입니다. 신전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로 징벌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그러므로 예언자 요셉의 다음과 같은 말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징벌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353페이지)

예언자 요셉은 여러분과 내가 시온 산의 구속주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읍니다. 우리는 한데 모여 신전을 세우고, 죽은 자를 찾으며, 모든 필요한 의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를 서로 서로에게 또한 조상에게 영원히 연결시켜 주는 고리를 이어 줍니다. 우리는 가족 단위로 승영합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는 필요 불가결의 것임이라…경륜의 시대와… 결합되어야 하고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느니라”(교성 128 : 18)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아내와 아들과 딸과 함께 인봉받으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먼 조상에게 인봉되도록 하십시오. 신전은 이런 거룩한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현재 교회 회원이 많이 있는 지역의 신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신전 사업을 강화하십시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작고한 친척들을 위한 대리 침례를 무시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의식을 행한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8페이지)

그러면서도 예언자는 걱정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머리에 무엇인가를 집어 넣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까지도 이해가 더디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26페이지)

우리가 행한 실적을 보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도 않았으며 신전 사업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니다. 계보 탐구는 좀더 활기를 떨 필요가 있습니다. 4대 프로그램 양식을 제출하는 것을 좀더 서둘러야 합니다. 13년 전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회 회원의 절반이 그 이후에 태어나거나 침례받았습니다. 지도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회원들의 4대 프로그램 용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사업이 행해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4대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해서 끝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모든 조상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더 많이 탐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옛날로 돌 아감으로써 앞으로 전진하는 장소입니다.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가능한 한 완전한 계보를 마련하고, 마지막 세대의 조상까지 찾아 지구상의 첫 조상인 아담까지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유럽의 계보 활동”, 유타 계보 및 역사지, 1931년 7월, 104페이지)

이 사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조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게 되며 장막 저쪽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곳에서 조직되어 일하는 만큼은 그들도 조직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영과 영향력이 이 기록을 찾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 줍니다. 만약 이 세상 어느 곳엔 가 그들에 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브라이언트 에스 힙클리, 멜빈 제이 벨라드의 설교와 선교 사업,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벳 출판사, 1949년], 230페이지) 윗소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온 정성과 힘을 다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그것도 단지 계보를 모으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자들을 도우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 보답으로 자기 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읍니다.”(“계보 활동”, 104페이지)

나는 이것이 참되다고 간증드립니다. 수고하여 일함으로써 이 진리를 증거하는 수천 명의 겸손한 말일성도가 입을 모아 이 진리를 간증합니다. 엘리사의 말이 진실임이 증명되었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열왕기하 6:16)

우리는 이 사업이 더 잘 진전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에서 생명 초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읍니다. 형제 여러분, 어디에서나 가능한 곳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하십시오.

청남 청녀가 이 특별한 사업을 행하는 기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집사 여러분, 기억의 책을 갖고 계십니까? 교사와 제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생 기록부를 시작하셨습니까? 좀더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그림, 사진, 증서, 영적인 경험을 모으고 있읍니까? 부모가 친척을 찾는 것을 도와 줌으로써 자기가 받은 유산에 대한 참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돋고 싶어하시는 모든 분에게 오는 8월에 있을 기록에 관한 세계 계보 대회에 오시도록 초대합니다. 이 대회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방법으로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사업을 하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스테이크, 와드 및 정원회 지도자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신권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죽은 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부수적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약의 중요성에 관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

이 맷은 성약을 지킬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약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하여 우리의 관리하에 있는 자들이 성약을 깨뜨린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것입니다.”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73페이지)

형제 여러분, 과거의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신권 지도자들은 우리가 더 많은 신전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감옥 문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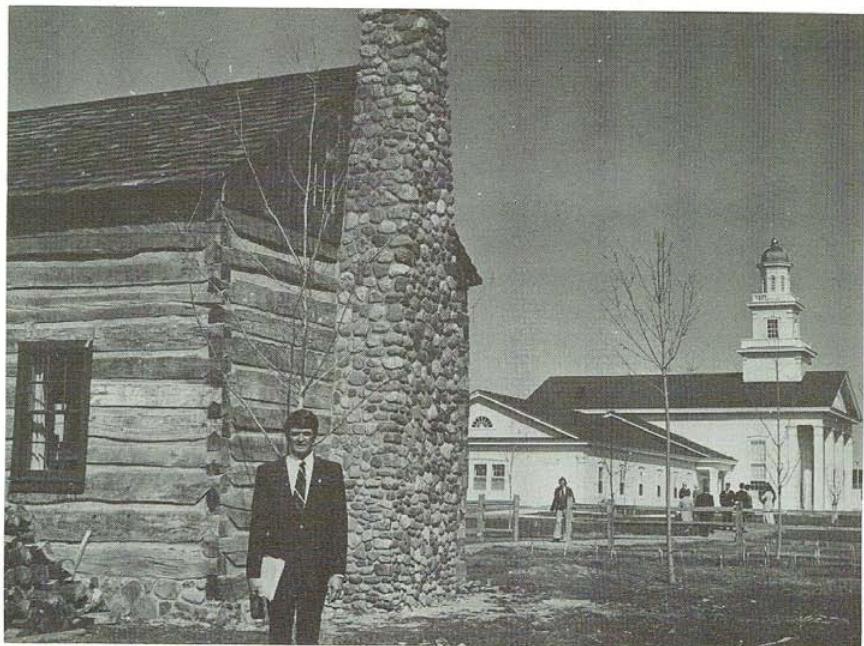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들의 구원받을 권리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브리감 영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

제를 생각하면 일곱 우뢰의 혀가 사람들에게 깨워 줄 것을 바라게 됩니다.” (브리감 영설교집, 존 에이 윗소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벳 출판사, 1941년], 404페이지)

다음 성구에서 예언자 요셉이 말한 것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이 하늘 사업입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지어다…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령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교성 128: 22)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위대한 사업이 발전하도록 당신의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교회 창립시 데이비드 핫트머의 집과 페이에트 지부를 함께 찍은 사진

세상의 소금: 그 맛과 인간의 구원자들

“복음의 가장 위대한 개념 중의 하나는 인간이 영혼을 구원하는 대업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찰자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나는 소금이 가득 든 시험관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금에는 두 개의 원소인 나트륨과 염소가 들어 있고 화학적으로는 염화 나트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얀 물질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체 세포가 살아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세균을 죽이는 방부제의 특성도 또한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식품과 생산품의 재료가 됩니다. 소금의 용도는 14,000가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한때 소금이 종교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 순수함의 상징이었던 적이 있었다. … 아직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은 명예, 우정, 호의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먹고 친구가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 사이

에는 소금이 있다’고 말한다”(1978년도 월드북 엔사이클로피디아, 17 : 69)

이 세상의 조직자며 창조자는 소금의 본질과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 물질을 35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의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 2 : 13, 민 18 : 19, 대하 13 : 5) 신약에서는 구세주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렀고, 맛을 간직하라고 하였습니다. (마 5 : 13) 그는 자기가 선택한 미대륙의 제자들에게도 반복하여 이런 책임을 주었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 소금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던져져서 뭇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니라.”(니 삼 12 : 13)

우리는 이 성구를 얼마나 많이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的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와 친숙합니까? 우리는 그 의미에 적절하게 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권을 지닌 회원으로서 또한 오늘날 세상의 소금으로서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맛”的 역할과 “구세주”的 역할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의 맛

1833년에 요셉 스미스는 이런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복음에 부름을 받아 영원한 성약을 맺을 때에는 저들은 세상

의 소금이요, 인간의 맛으로 인정되나니
“인간의 맛으로 불리우느니라.”(교성 101 : 39-40)

맛이라는 단어는 맛, 좋은 풍미, 관심있는 특성, 높은 명성 등을 나타냅니다.

나는 오른손에 갑이라는 용기에 들어 있는 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불순물이 없고 상당히 유용합니다. 소금은 이런 상태하에서 보존할 수 있고, 맛을 내고, 병을 고치며 그 밖의 유용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을이라는 용기에 들어 있는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나쁜 맛을 내는 물질과 섞였기 때문에 그 맛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물질의 색깔과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맛”이라고 표현하실 때, 사실은 주님을 대표하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대표하고, 친례의 물로 깨끗하게 되고, 그의 이름과 대업을 받도록 성약을 맺은 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약으로 그의 신권의 권세를 나누려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자가 소금은 세월이 지나도 그 맛을 잃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불순물이 섞임으로써 맛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권의 권세도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이 섞임으로써 없어집니다.

청년이나 성인 남자가 외설 문학에 생각을 쏟을 때 맛을 잃게 됩니다.

신권 소유자가 거짓말이나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맛을 잃게 됩니다.

우리 중에 대중을 따라 부도덕한 행위나 약물, 담배, 알코올 및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의 사용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맛을 잃게 됩니다.

불순한 생각으로 마음을 더럽히고, 거짓 말로 입을 천하게 쓰며, 힘을 악한 행동에

오용할 때 그 사람의 맛과 특성이 사라집니다. 베냐민왕은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언동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모 4 : 30)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나는 특히 청년들이 자신의 맛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삼도록 이 간단한 지침을 드립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선이 아닌 것은 행하지 마십시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하버드 고전, 찰스 더블류 엘리오트 편집, 뉴욕 : 피, 에프 콜리어 앤드 선, 1909년], 211페이지)

언제나 깨끗함과 진리와 선이 자기 맛을 지닌 사람의 표어였으며 앞으로도 표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 전달의 65퍼센트 혹은 그 이상이 언어 이외의 수단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적극적인 기독교인의 덕성을 모범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 보다 교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행해야 할 더 큰 봉사는 없읍니다.”(스펜서 더블류 킹볼, 성도의 벚, 1979년 4월호, 9페이지)

우리는 매일 맛과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표준에 매달리고, 인간의 맛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구세주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에게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는 저들이 세상에 빛으로 또 인간을 구원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음이니라.

“저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으니….”(교성 103 : 9-10)

신권의 완전한 정의와 함께 연구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가”라는 말의 깊은 의미에 감명받게 됩니다. “신권이란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지상의 인간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신권은 주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려는 수단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킹볼, 성도의 빛, 1975년 12월호, 1페이지)

신권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청년이나 성인이 단순히 앉아서 그 이름을 간직한다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자신과 남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하며 주는 것입니다. 신권과 그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개념 중의 하나는 인간이 영혼을 구원하는 대업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찰자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세에서…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을…등의하였다. 우리는 주님의 협력자가 되었다.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일은 다만 아버지와 구세주의 사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업이 되기도 했다. (존에이 윗소, 유타 계보 및 역사지, 1934년 10월호, 189페이지)

나는 정원회의 비활동 회원과 우정을 증진하도록 감독님의 부탁을 받은 어떤 나이 어린 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다시 활동화시키려다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감독님이 임무를 부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하고 실패를 거듭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활동 회원이 정원회에서 완전히 활동화된 것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된 기쁨을 간증하는 이 영웅의 말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몇 주일 전에 두 선교사가 교회에 관심

을 보인 미망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미망인은 몹시 아팠는데 의사로부터 신장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로들은 그 여인을 위로하고 성령의 속삭임에 유의하여 그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취소되었고 선교사들은 그들의 친구인 그 여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침례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장로들의 축복과 가르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소중한 추억 속에 남아 “인간의 구원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어떤 형제는 수천 명이나 되는 자기 아버지쪽의 조상의 이름을 찾는데 있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를 모두 끝내고 그와 그의 아내와 다른 사람들이 합당한 신전 의식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조사하려고 노력하면 절이 열리며 엘리아의 영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나는 우리가 모든 필요한 탐구를 하고 신전 사업을 행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로… 전세에서 서약을 맺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제이콥 수에스, “두 번 구조됨” 영원한 고리에서, 코니 렉터 및 다이안 데 퓨티,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77년], 120페이지)

우리와 모든 인간 사이에는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우정과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비활동 회원에게는 우정 증진의 손길을 떠고 비회원에게는 “와서 보세요”라고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조상을 자녀에게, 자녀를 조상에게 연결해 주는 고리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함으로써 구세주의 목적을 진척시키며 인간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께 복종하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구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됩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부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다는 사실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본부로부터 구원의 메시지가 온 세상으로 전해집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려고 이 소금의 도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받아들여 실행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맛을 유지하게 해주며 인간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해줍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구세주의 말씀을 더욱 완전하게 인

식하고 이 지명을 성실하고 명예롭게 수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인간도 오염되면 소금처럼 그 맛을 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신권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맛이 없는 소금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세주의 지속적이고 고무적인 관계는 우리가 맛을 지닌 인간이 되고 인간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생활함으로써 이루어 진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가 살아 계셔서 오늘날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인사를 나누는 대회 방문자들

여러분이 음성이 될 수 있음

“만약 우리가 오늘밤 맷은 약속을 지킨다면 수천 명의 잃어버린 형제들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수 있읍니다.”



엠 러셀 벌라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형 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좀더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되고 싶어하고 더욱 열심히 신권에 봉사하고 싶어 하도록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나는 여러 해 전에 친구와 함께 그의 쌍발엔진 아즈텍 비행기를 타고 네바다의 레노에서 캘리포니아의 산 라파엘까지 비행하며 몹시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친구는 레노를 떠날 때 구름이 끼어 있어서 그걸 좀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염려 때문에 테이크 타호 공항에 내려 두 번째 일기 예보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산 라파엘로 비행을 계획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 만 북부에 있는 공항이었습니다. 만 근처로 다가가자 점차 짙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보고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름 밑으로 날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주 짙은 구름 속으로 날아 들어 아

무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구름 속을 날으면 완전히 방향을 잊게 됩니다. 똑바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혹은 꺼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 감각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사가 시계 비행에서 계기 비행으로 적응하는 데는 몇 분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속 29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가노라면 그 몇 분간에 먼 거리를 이동하여 순식간에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읍니다. 불행하게도 나의 친구는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계기에 의존하는 비행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였고 계기 비행에 관하여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해내려고 하는 동안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기 비행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숨을 짚어 들이 쉬며 스스로를 자제하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계기는 고도계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도 15미터야. 빨리 움직이지 말게 잘 생각해 봐, 자네는 안전하게 그곳에 갈 수 있어.”

마침내 그가 해밀튼 공군 기지와 무선 연락을 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은 영원히 정지되어 있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도와 주십시오.” 공군 통제관은 우리를 테이다 스크린으로 잡고는 즉시 내 친구가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돋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려 주고 우리 가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밀튼 관제탑의 음성을 듣자 나의 친구는 자신감을 얻어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행기가 통제권 밖에 있으며

우리가 이 위험을 벗어날 확율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언덕, 건물, 탑, 다리 등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고도 91미터로 떨어진 적도 있고 한 번은 내머리 위쪽에 없어 둔 지도와 물건들이 내 무릎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거꾸로 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나의 전 생애가 스쳐 갔습니다. 아내와 7명의 자녀, 부모, 사업, 친구들, 내가 충고해 주어야 하는 37명의 제사, 그 밖의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위험한 순간에 내내 열심히 기도하였고, 내 생애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무겁게 내려 깔린 구름 밖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친구가 계기 비행에 관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한 신권의 권세로 나의 친구가 조종력을 얻도록 축복하노라.”하고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도와 주신다면 온 생애를 그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활주로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활주로 중앙의 흰 선은 정말로 반가운 광경이었습니다. 오늘밤 이신권 모임에 참여하신 모든 신권 소유자는 해야 할 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온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 줄 권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진지하고 의미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옆 사람에게 빌리십시오. 자, 형제 여러분, 여러분 와드에 살고 있는 비활동 또는 비회원 성인 남자나 소년의 이름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오늘밤

여러분의 권세와 주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어둠으로부터 복음의 총만한 빛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나의 친구와 내가 들은 해밀튼 관제탑의 음성처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완전한 회원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목숨까지 바쳐 봉사하겠다고 약속한지 몇 달 후에 나는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그 기간 동안 나에게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데 온 생애를 보내도록 부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의 생활에 복음을 전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활동화되도록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맷으신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는 나에게 편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소년의 이름과 주소를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그에게 격려의 편지를 적어 보내겠습니다. 내가 답할 수 있는 이상의 편지를 받는다면 총판리 역원 형제님들이 도와 주시리라고 확인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의로운 약속을 지키도록 온전히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보라, 이는 주 너희 구속주께서 육신으로 죽음을 겪으셨음이니, 그런고로 만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시려고 만인의 고통을 맛보셨고,

“회개하면 만인을 자기에게 이끌어 오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니라.

“회개한 자를 보시는 주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교성 18 : 10-13, 15)

형제 여러분, 주님의 빛은 참됩니다. 그는 인정, 평화, 자신감을 보장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신호로 모든 영혼을 어둠의 구름 밖으로 인도하며 의심과 불확실의 안개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쫓으라”(마가복음 10 : 21)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 : 12)

인생의 비행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는 사랑과 우리의 구속주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밤 맷은 약속을 지킨다면 수천 명의 잃어버린 형제들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신권의 힘은 레이다, 라디오 혹은 어떤 다른 의사 전달 방식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중한 한 아들을 회원으로 이끌도록 도와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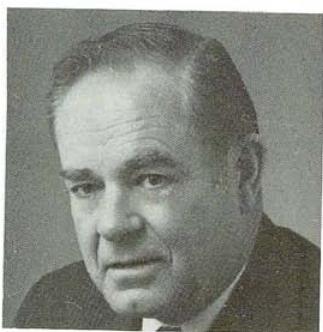
*



좌로부터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오 레슬리 스토클 장로

성령으로 가르침

“신권의 부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신의 권세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여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성 신의 권세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집행하는 부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신권의 부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신의 권세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여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읍니다.

나는 매우 강력하고 신성한 이 영향력에 관한 유익한 가르침을 출 축복을 받도록 간구합니다.

만약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대부분이 가르치는 형태로 수행됩니다. 이런 일은 신권회, 주일학교, 신학 연구원 중동부 가정학습 등의 반 활동과 수많은 접견을 통하여, 또한 토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및 회원 가족을 방문하는 가정 복음 교사에 의하여 수행되며 또한 이런 설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테이크 부장, 정원회 지도자, 선교사, 보조 조직 지도자, 가정 복

음 교사 및 반 교사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다음 경험에서 성령의 영향력을 찾아 주십시오.

내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나와 보좌들은 어떤 형제에게 스테이크 청남 조직 회장의 부름을 주려고 접견하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활동적인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을 캠핑과 낚시로 보내기를 좋아했고 그 부부는 항상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부름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으나 우리 부장단과 고등 평의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토론한 결과 그에게 부름을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형제는 접견일을 알려주자 관심도 없으며 자신은 합당하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스테이크회원 중에서 그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스테이크에는 강하고 능력있는 청소년 지도자가 필요하여 주님께 거기에 적당한 사람을 알려 주실것을 간구하며 부장단과 고등 평의회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형제님은 주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물론 형제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먼저 집에 가셔서 부인과 이 문제에 관하여 의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님에게 드리는 한 가지 부탁은 그녀와 함께 무릎을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라는 것입니다.”

삼일 후에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별로 즐겁지 않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직책과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름에서 열심히 봉사하였고 그 직책에서 해임될 때는 고등 평의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복음을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부를 때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몇 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비판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가 반쯤은 배도의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간증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활을 즐길 시간을 빼앗긴다고 말하며 강력히 저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선교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어떻게 주님의 지시를 구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쭈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부름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다음 일년 동안에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스테이크 내의 비회원의 거의 10퍼센트를 침례주었습니다. 후에 그는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 연령의 청년들과 만나 그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알려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이 선교 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이미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부름을 알려 주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이 모든 젊은이를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는 날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성령은 나에게 그 원리가 참되다고 말했습니다.

그후에 나는 오늘 여기에 계신 젊손하고 영감있는 어떤 축복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는 축복사의 축복을 주도록 훈련되거나 교육받지 않았으므로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제님은 축복받으려 오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는지 알면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계시를 느끼고 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이 그들을 선교 사업에 부르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은 주님 스스로 성별하셨고,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이는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읍니다. 나는 그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야기 하지 말고 주님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가서 기도하며 그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십시오.” 그들은 거의 언제나 그런 경험을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때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시간입니다. “우리 둘 다 형제님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나갈 자격을 갖출 단계를 밟기 시작합시다.”

여기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다가 가장 훌륭한 구도자가 교회에 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는 이 시점에서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신을 이해하는 선교사는 그 순간을 가장 큰 기회로 삽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잡시만 주십시오. 요셉 스미스가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려고 어느 날

저녁 자기 방에서 무릎을 끊고 주님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결과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나는 하나님께서 네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려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왔도다. 네 이름이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요셉 스미스 2서 : 33 참조) 요셉 스미스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 천사님, 팬찮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요셉 스미스 곁에서 같이 무릎을 끊은 것처럼 확실히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무릎을 끊고 주님이 무얼 원하시는지 묻기 전에는 교회에 속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자는 기도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침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낸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신이나타나서 주님의 뜻과 생각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던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셨고 나도 느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이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성 50 : 22)

덧붙여서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성 42 : 14) 기도는 이 영을 염으며 느끼는 근본 수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일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력을 통한 우리의 가르침에 몇 가지 원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신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신을 믿으며 성신이 우리와 함께 임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임하게 되면 그 존재를 깨달아 다른 사람이 그 영향력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선교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간증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자신의 간증을 나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앤마도 기드온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받아들여 침례받는 자를 위하여 마련된 구속에 관하여 설명할 때 이와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믿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렇게 믿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게 거하시는 영이 일려 주셨으매 내가 아노라.”(엘마서 7 : 17) 성신의 영향력에 대한 많은 훌륭한 경험을 한 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개인 및 가족 역사를 기록함

“실제로 적절하게 기록된 우리 역사는 가족 경전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됩니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은 들지 말고 생각만 하십시오.) 연령에 상관없이 여러분 중의 몇 분이 오늘까지의 개인 및 가족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예언자의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개인 및 가족 기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회에서는 금년 8월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우리 성도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기록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고 기록하는 방법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도록 기록에 관하여 큰 규모의 세계 대회를 갖습니다.

개인 및 가족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중의 단 몇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개인 및 가족 역사를 기록하고 필요한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필연적으로 조상과 자손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말4:6)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주의 한 부분이 되지 맙시다.

또한 우리는 개인 및 가족 역사를 작성함으로써 진실되고 영원한 인생의 비전을 얻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과 느낌을 잘 섞어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영적인 것에 관한 느낌이 실제로 사실인 경우가 많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영적으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나는 우리가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와 마찬가지로 단지 역사 기록을 계율리 함으로써 이 좀더 깊은 영적인 통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기록할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항상 있었으며 우리가 기록을 하면 그런 일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목표인 영생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유의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앞서 간 분들이 겪은 것을 생각해 보며 그들의 신앙과 용기를 느끼고 우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영원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관한 큰 통찰력을 얻고 우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성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다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소위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목표에서 한 눈을 팔 때에만 보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권리입니다. 신권은 영원하며 신권의 축복도 영원합니다. 신권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 및 가족 역사를 포함하여 모두 영원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전에 관한 발표를 들을 때 감격하며 겸손하게 됩니다. 지난 며칠간에 기록한 개인 역사 중에서 열심히 간구하고 진실한 회생을 치른 신전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무한한 감사를 기록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대로 그렇게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할 개인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옳은 일을 행하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개인 역사에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 신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겠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이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지시 사항을 따르겠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모든 신권 소유자가 자기 개인 역사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을 행하기로 결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혹은 “오늘 신전에 가서 증조부(혹은 다른 조상)를 위한 사업을 행했다.” 혹은 “오늘 나의 형제, 친구, 혹은 이웃과 함께 신전에 가서 그들이 인봉되는 데 증인이 되어 주었다.”

어떤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면 행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경전 자체에서 여실히 나타났듯이 기록 그 자체에 어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절하게 기록된 역사는 가족 경전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힘의 균원이 되어 줍니다.

한 예로 하와이에서 있었던 가족 역사에 관련된 간단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회생과 신전 축복과 참되고 영원한 통찰이 포함됩니다.

1900년 초에 하와이에서 한 젊은 가장과 그의 가족이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새로 찾은 종교에 열의를 보였으며 회원이 된지 2년 만에 그와 그의 아들은 신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지부의 회원으로서 번영하면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라이에에 곧 완성될 신전에서 가족으로 영원히 인봉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그렇듯이 그들에게도 질을 막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름모를 병에 걸려 낯선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이런 질병이 많은 재난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름모를 병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심에 싸인 이 가족은 다음 일요일에 회원들에게서 힘과 이해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회에 갔습니다. 그것은 작은 지부였습니다. 이 젊은 가장과 아들은 자주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날도 그런 책임을 맡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중이 성찬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경건하게 빵을 빼았습니다. 찬송이 끝나자 젊은 가장은 성찬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았습니다. 지부장은 성찬 탁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깨닫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멈추세요. 형제님은 성찬에 손대면 안됩니다. 딸이 이름모를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새 성찬 빵을 준비하는 동안에 즉시 떠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가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란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는 지부장의 얼굴을 살펴보고, 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몹시 염려하고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가족에게 몸짓을 하여 함께 천천히 예배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얼굴을 숙인 채, 황토 길을 따라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굳게 짚 주먹과 굳게 다문 입가에 나타난 확고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모두 둥글게 앉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마음이 될 때까지 조용히 잊자꾸나.”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복수할 여려 가지 방법을 그려 보았습니다. 지부장의 폐지를 죽이거나, 그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속할 것인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헐끗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주먹을 쥐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20분, 25분, 계속해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이 조금 풀리고, 입술이 가볍게 멀리는 것을 보았으며 둘릴락 말락 내쉬는 한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쳐다 보았습니다. 그의 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어머니도 울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 또 다른 아이,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눈을 뜨고 목청을 가다듬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야기 할 준비가 되었으니 잘 들어라.” 그는 천천히 아내에게 몸을 돌리며 의미깊게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로 시선을 돌리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단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며 우리가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 되어 신전에서 거룩한 신권으로 인봉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부장의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당황하게 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더라도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다음 일요일에 우리는 다시 교회에 간다. 딸의 병이 알려질 때까지만 머물려 있겠지만, 다시 돌아간다.”

이 훌륭한 사람은 영원에 대한 합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의 건강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 가족은 신전이 완성되자 신전에 갔습니다. 자녀들도 성실하게 생활하여 가족에게 인봉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가족 중 1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의 활동 회원이며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신권으로 가족을 축복했으며 그의 느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를 축복받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조상의 마음이 어떻게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조상에게 돌아와졌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자기 가족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음을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어 기록하십시오. 그것에 따라 생활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넘겨 주십시오.

나는 이 생이 끝나면 개인 및 가족 기록과 그 영향력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리라는 강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그는 살아 계시며 우리 생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이 영원한 이해력을 갖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주님의 영향력을 보고 느끼고 기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성령을 구함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이해하도록 영의 분별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대로 행할 용기를 간구하십시오.”



매리온 지 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느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매우 길며 이미 이 신권회 모임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그의 신권을 지니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내 일생에 그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그의 자비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수행하려고 애쓴 신권 책임을 지니고 있었고 오늘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듣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생애에서 부계와 모계의 모든 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까지 40여 년간 총관리 역원들과 함께 봉사하고 사귀어 왔으며 내가 하는 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나는 함께 일한 사람들의 의로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과 태너 부대관장님 같은 분들과 함

께 일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들은 흡없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크고 어려운 일을 행하며 정상적인 자신의 힘 이상으로 일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세로 지지받아 번성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그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리며, 오늘밤 이렇게 많은 영이 임하는 가운데 훌륭하게 전해진 이런 말씀에서 느낀 권세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간증을 전하고 남은 생애 동안 성실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성령의 속삭임을 받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간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구가 많이 있지만 내가 기억하는 다른 모든 성구처럼 유익한 성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깨우치느니라.

“또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사 너희에게 확인하여 주신 성약을 저에게 가르치시나니”
…(교성 84:46-4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활동에 성령이 함께 하도록 생활하십시오.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이해하도록 영의 분별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대로 행할 용기를 간구하십시오. 지금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간의 영혼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신권 소유자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되고 성실하며 사악한 자들에게 내릴 파멸을 피할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배운대로 성구를 적용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생의 원리대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생활하여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에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총판리 역원 형제들과, 교회 회원인 형제들과 함께 서기에 합당하게 되고 싶습니다. 나는 총판리 역원만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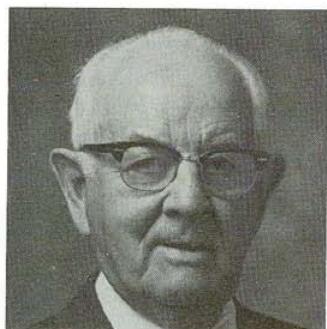
에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노력과 봉사와 일상적인 생활이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여 축복 하실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증거하며 주님이 신권을 소유한 모든 성인과 소년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충실히 종의 보상을 받도록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내리도록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에서 친송을 부르는 회원들

성명서의 소개

“우리 앞에 놓인 미래와 회복된 교회의 책임과 신성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150년 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썼던 곳에 다시 서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며 훌륭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제트 비행기를 타고 어젯밤에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조상이 박해가 없고 자신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서쪽으로 고통스러운 여행을 했던 이 아름다운 넓은 땅을 동쪽으로 6시간 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링스러운 부활절 아침 피터 휘트먼 2세의 복구된 농장에 있습니다. 이 농장은 150년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매우 중요하고 의미 깊은 사건을 새롭게 회상시켜 주기 위하여 충실히 복구되었습니다.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1830년 4월 6일 바로 이곳에서 몇 사람이 모여 정식으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나무 숲에서 1820년 봄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활하여 하늘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구모라언덕의 땅 속으로부터 모로나이 천사에게서 고대에 이 땅에 살았던 주민의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를 통하여 지금은 물론경으로 알려진 그 기록을 번역했습니다. 번역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 휘트머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50년 전인 1830년 4월 6일 화요일, 역사적인 날에 6명의 남자가 이 집에 모여 종교적인 단체로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들의 3명의 후손인 요셉 스미스의 손녀 말로레나 호너 노르만디아 자매님, 하이람 스미스의 둘째 손자 엘드리드 저 스미스, 사무엘 해리슨 스미스의 손자인 멜빈 토마스 스미스 형제가 오늘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서서 이렇게 미천한 상태로 시작하여 오늘날 이 놀랄 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도와 준 분들의 신앙과 사업을 마음에 새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눈을 통하여 이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이 거룩한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미래와 회복된 교회의 책임과 신성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온 세상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작된 이곳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고든 비 헝클리 장로님이 나와 우리 형제들을 대신하여 여러분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명서를 읽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멘. *

성명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1980년 4월 6일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150년 전 오늘 조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회복 150 주년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이 교회의 발전 상태, 교리, 사명, 메시지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830년 4월 6일에 몇 사람이 뉴욕주 페리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먼의 농장에 모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지도자로 해서 6명이 정식 조직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되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교리를 받아들여 침례의 물에 들어감으로써 계속하여 넓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거의 450만에 달하는 살아 있는 회원이 있고,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강하고 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의 모임은 북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의 나라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 오스트레일리아와 남태평양의 섬들,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도구로 하여 회복된 복음은 현재 81개국에서 46개국어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50년 전에 농장에서 열린 작은 모임으로부터 오늘날 거의 12,000개의 단위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회복된 복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출현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출현은 베드로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사도행전 3:21) 이는 주님이 오셔서 친히 지상을 다스리실 준비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그의 사업을 행할 때 실제로 세우셨던 교회가 회복된 것이며, 그의 거룩한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있으며, 그를 종식으로 하여 사도와 예언자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아론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옛날에 그 신권을 지녔던 자 즉 아론 신권은 침례 요한에 의하여, 멜기세덱 신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하여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물론경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에 의하여 출현하였으며 성경과 함께 인류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 두 경전은 모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교리와 관습은 산 자의 구원과 승영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포함하여 이 목적으로 세워진 신전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이 행해지며 그리하여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주님의 복음에 의한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위대하고 현신적인 일은 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창조물로서의 가족의 존엄성을 증거하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교성 68:28) 가르치며 부모에게 그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서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승인된 목적을 위하여 현납된 신전에서 행사한 거룩한 신권 권능에 의하여 엄숙한 결혼을 올리면 가장 신성한 관계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 유대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며 각자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곳의 생활은 영원한 계획의 일부분이며 사망은 끝이 아니라 세상의 구속주의 속죄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 또 다른 영역으로의 전환점이며,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을 향하여 일하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예언과 계시의 영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9조) 하늘은 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대에 그러했듯이 그의 말을 선포하도록 권능을 준 예언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처음부터 그러했듯이 구세주가 승천하기 전에 주시고 현대 계시에서 반복하신 계명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나가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을 행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교성 68 : 8)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깨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절림을 받으리니, 저들의 죄악이 지붕에서 이야기되고 저들의 은밀한 행위가 들어 날 것임이니라.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교성 1 : 1—4)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치고, 지상의 백성에게 개인적으로 회개하도록 호소하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신성한 의식을 집행하고, 성신의 은사를 안수하는 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고 이웃에 대한 기독교적인 봉사 원리를 발전시킬 수 있게 영감받은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따르며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오늘 150년간의 진보의 절정에 서서,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가신 분들의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 중의 많은 분은 이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 생명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 모범, 위대한 노고,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긴 이 대의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따르는 자들의 축복과 유

익이되도록 그 유산을 믿고 의지할 결의가 되어 있으며, 따르는 자들은 이 지
상에 끊임없이 늘어나는 성실한 사람들의 집단을 이룰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왕국은 그의 왕국입니다.
고대 예언자 다니엘은 이 왕국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잘리워져 굴
러내려 모든 세상을 채울 돌이라고 했습니다. (단 2:31-45 참조) 우리는 이 세
상 모든 곳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 영원한 진리의 사자로 보내어진 선교사들
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여 배우고,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참된 것인지 간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
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나이서 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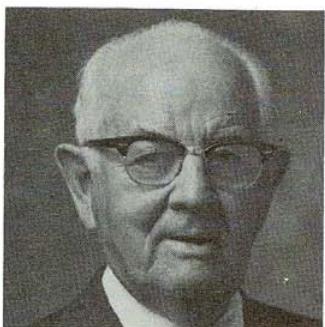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
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반드시 인식하게 되
는 형제애를 쌓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성신권의
권능으로 이 세상 어디에서나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김불 자매님과 경전을 보는 김불 대관장



뉴욕주 페이에트 말씀 및 현납

“우리의 메시지에 유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앙과 이 해력이 커지리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조직된 피터 휘트미어의 농장에서 몇 분 전에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감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의 예배당에 설 수 있는 것은 영감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5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이룩한 놀라운 발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조직 15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1980년 전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래로 인간의 역사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지난 10월 반 연차 대회 직후에 킴볼 자매와 나는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님 부처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갑람산의 올슨 하이드 기념 동산을 현납하려 성지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변형의 산과 요셉의 우물, 젯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 앉아

명상했습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 이른 아침 천사가 두 명의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 5-6)라고 말한 햇빛 비치는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합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생을 영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는 모든 인간에게 불사불멸의 문을 열어 주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부활절 안식일에 그의 실존과 신성에 대하여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고든 비 헝클리 장로님이 방금 읽으신 성명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살아 계실 때 직접 세우신 교회가 그대로 회복되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회복에 앞서 일어났던 기이하고 훌륭한 사건들을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현저한 발전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150년 중 85년 동안 이 발전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오래지 않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한 말을 잘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나의 개인적인 엄숙한 간증을 덧붙입니다. 물론경은 한때 이 서반구에 살았던 백성의 고대 기록을 번역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번성하여 부강해졌으나 하나님을 잊었을 때 참혹한 내란으로 멸망했습니다. 이 책은 주 예수 그

리스도가 인간의 구세주며 구속주로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과 함께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라는 두 거룩한 신권이 침례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회복되었음을 간증합니다. 그밖의 열쇠와 권능도 뛰어어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신성한 권세와 권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간증합니다. 나는 내 음성이 들리는 곳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이런 것에 관하여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메시지에 유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앙과 이해력이 커지리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과 가정에 더 큰 화평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신의 권세로 이와 비슷한 간증과 진리의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현납 기도를 합시다.

현납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념일에 150년 전에 계시에 의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었던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놀라운 축복과 후히 주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앞서 가신 분들, 특히 생명의 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거룩한 일에 대한 간증을 인봉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의 업적을 생각할 때 속연해집니다.

우리는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신앙을 가지고 일하여 교회가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게 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의 이정표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도를 받아 당신의 사업이 계속 발전하여 온 세상에서 모든 세대의 당신의 후손을 축복할 것과 현재 수백 명이 있는 곳은 수천 명이 있

게 되며, 오늘 여러 나라에 세워진 당신의 사업은 온 지구상에 퍼져서 모든 곳의 사람들이 무릎을 끊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경배드릴 때까지 발전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 나라의 지배자의 마음을 설득하여 물이 깊은 곳을 채우듯이 진리가 지상을 덮을 때까지 그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문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는 당신이 주신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피터 휘트먼 2세의 농장에 선 전축물, 즉 당신의 위대한 사업이 조그마하게 자리기 시작한 것을 상기시켜 주는 유적으로 복구된 통나무 집과 가구가 있는 이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할 당신의 종의 주거지인 고휘트먼의 집; 신성한 예배의 장소, 가르침의 장소, 세상으로부터의 성소, 방문자로서 이곳에 오는 수만 명을 환대하는 장소로서 오늘 우리가 도인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방문자 센터를 현납합니다. 바라옵건대 당신의 성령이 이곳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보호하는 권세로 이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를 보존하시옵소서. 관심을 가지고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당신의 거룩한 아들에 대한 간증이 강해져서 더 큰 신앙과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 현납의 날에 온 세상에 있는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드립니다. 의로운 길을 걷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당신과 당신의 영원한 진리에 대한 새로운 혼신의 태도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와 당신에 대하여 세상에 증거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수고와 사랑을 받아들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하나님이 그의 종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던고 !”

“요셉 스미스는 부활의 실재에 대한 의심이 만연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간증하였습니다.”



고든 비 힙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은 오늘 이곳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페이에트 예배당은 오늘 이곳에 계신 몇 분의 호의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킴볼 대판장님과 함께 이 역사적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생일이 부활절 주일과 일치 되었다는 사실은 뜻깊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오늘 기독교계에서는 모두 잠시 손을 범주고 역사상 가장 놀랄 만하고 중요한 사건인 인간의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부활의 실재에 대한 의심이 만연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간증하였습니다. 그 간증은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아버지와 아

들의 특별한 시현에 관한 경험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은 형태와 실체, 육신과 음성을 지닌 인격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듯이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출 33 : 11 참조)

둘째,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게 한 도구로서 그 책을 읽은 사람과 앞으로 읽을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를 증거했습니다. 그 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지상에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고전 15 : 20)로서 무덤으로부터 승리하여 일어선 약속의 메시야에 대한 간증입니다.

셋째, 요셉 스미스는 바로 이 땅에서 조직된 교회를 통하여 살아 계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회원들은 자신들이 그 이름을 받들어 모이고 봉사하는 주님을 교훈과 모범으로 증거하여야 합니다.

넷째,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의 직분의 권세로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을 하며 부활한 주님을 간증하였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려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합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 : 22—24)

끝으로 그는 순교자로 죽음으로써 자기가 그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 세상의 구속주에 관하여 이야기한 진리에 대해 생명의 피로 그 간증을 인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사망을 극복한 주님을 기억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뛰어난 증인이었던 이 예언자에게 감사하며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곳에 모여 1830년 4월 6일을 상상으로 그려봅니다. 요셉의 사명을 믿는 몇 사람이 거룩한 계시로 지정된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지 일천 팔백 삼십년이 되는 해”(교성 20:1)인 그 날에 모였습니다.

예언적인 시현을 본 요셉 스미스 이외에 어느 누가 그들이 시작하는 일의 위대함을 생각이나 했을까! 이 농촌 지대로부터, 이 땅의 초라한 통나무 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규모를 갖추고 수백만의 회원이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의 말과 얼굴이 신기한 텔레비전 기술로 하늘의 위성에 전달되고 지상 중계소로 전달되어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웨어의 태버내를 앞에 있는 큰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깊은 감회에 잡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나 사이에 4분의 3 초도 안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생각하며 뉴욕주 외곽의 농장에서 대솔트레이크 계곡, 그리고 지상의 나라들로 전하여진 웅장하고 고통스러운 이주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교회 조직에 뛰어오른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옮기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신전을 세웠고 현납 기도에서 젊은 예언자는 교회가 “혹암의 광야로부터 나와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를 세운 군대같은 두려움이”(교성 109:73) 되도록 하늘의 권세를 염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곧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커틀랜드의 평화는 모욕, 재정적인 혼란, 지도자가 타르칠하고 깃털을 풋는 린치를 당함으로써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미주우리에 또 다른 중심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시온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성과 방화, 폭도들의 이리같은 외침, 불법적인 군절령 등으로 그 꿈도 산산히 깨어지고 뛰어어 미시시피 강가의 저지대와 강을 건너 일리노이의 임시 피난처로 가는 고통스러운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는 피난하는 무리들과 함께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38—39년의 혹독한 겨울에 거짓 고소를 당하여 미주우리 감옥의 출고 비참한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계시의 응답으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리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성 122:1—2)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교회 기구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의 열국에 세워진 이 위대한 왕국의 일부인 우리 모두가 오늘 이곳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우리와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웨어의 태버내를 모인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그 일부분이 되는 날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선견자의 시현

을 통하여서만 보았습니다. 그는 1844년 무더운 6월 27일에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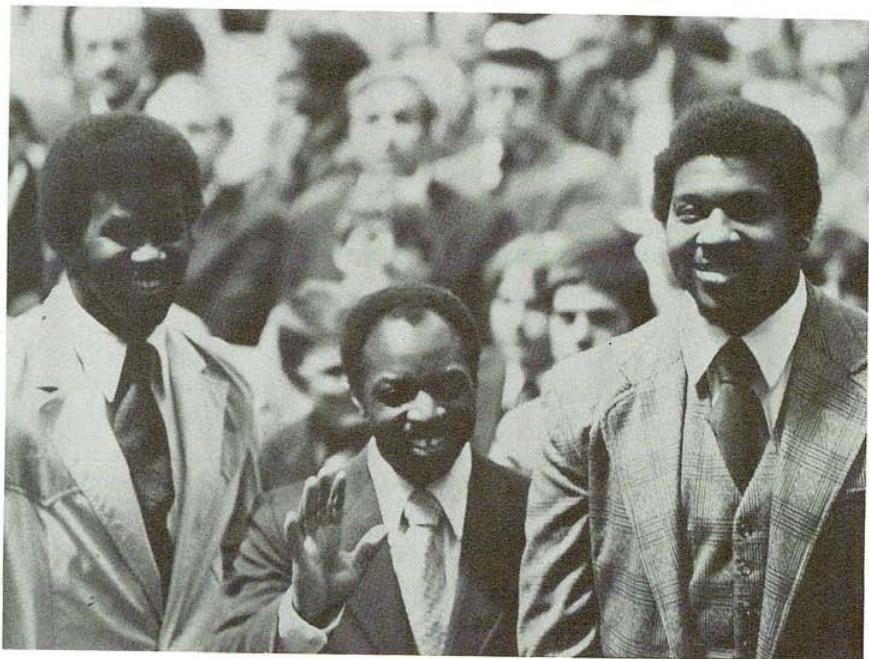
그 당시 그와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가 그의 업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보냈고 또 위대하게 죽었으니”(교성 135 : 3)

교회 조직 150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던고！”

그에 대한 나의 간증을 드립니다. 그는 성임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이 요셉은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고 “선견자와 변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교성 21 : 1)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은 요셉 스미스의 의로운 계승자이고, 우리 시대의 예언자이며, 150년 전 오늘 조직된 교회의 대관장이라는 간증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웅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불안정한 세상에서 힘의 탑, 단단한 뒷으로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왕국인만큼 그 장래가 확실합니다. 나는 이것에 관하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숙하게 증거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의 즐거운 표정

교회의 평회원에게 드리는 찬사

“생활은 복음의 영을 지닌 소박하고 성실한 회원의 영향력을 통하여 형성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50년 전의 그날은 조용히 왔다가 조
용히 갔습니다.

그 당시 초라한 농가에 모여 말일 정도에
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한 사람들은 유명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불과 몇 사람만이 참여하였으며
그들은 매우 미천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
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았습니다.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
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
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 1:26-
27)

이 몇 사람이 증인이 된 이 거룩한 일이
있기 전에 놀라운 영적인 시현이 있었습니
다.

이에 대한 준비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 그들 중의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세기 전에 끝났다고

생각한 계시의 원리가 계속된다는 것이 입
증되었습니다.

물론경이 발행되었고, 그 속에는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예
언자 모로나이의 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속되며 땅이 존속하며 땅 위에
단 하나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모로
7: 36) 계시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나 고대에 사도가 된 보
통 사람들처럼 그 당시 평범한 범인에 속하
면 이 미천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
그들을 가르쳐 주고 신권을 안수해 주고 권
능의 열쇠를 가져다 주었읍니다. 그런 것은
그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
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스스로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셨읍니다.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
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교성 1:23)

이 시작의 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먼 일이 아닙니다. 내 뒤의 단상에는 십이
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도왔던 몇
분을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는 솔트레이크 신전 현납에 참여했었고,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읍니다.

어제 파우스트 장로는 이민 그룹을 인도
하던 월포드 우드럽이 불운한 배에 타지 말
라는 영감을 받았던 일을 이야기했읍니다.
리차즈 형제님은 우드럽 형제님이 그 일에
대하여 설교하시면서 청중 가운데 여러 명의
이름을 부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

웁니다. “만약 내가 그 속삭임에 귀기울이지 않았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드럽 대관장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보다 겨우 두 살 어렸고 예언자가 순교할 때이 5년 동안 사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수한 손이 이 경륜의 시대의 시작을 이루었던 손과 악수한 손입니다.

어떤 것은 여러 해가 지났어도 별로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계의 평범한 남녀 노소 회원에 의하여 150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수백 만이 되는 현재와 과거의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평범한 회원들이 자기 뜻을 수행하였던 결과입니다.

생활은 복음의 영을 지닌 소박하고 성실한 회원의 영향력을 통하여 형성됩니다.

내가 위대한 교사이며 축복사인 윌리암 이베렛 형제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즉시 자기를 가르쳐 준 분에게 그 영예를 돌렸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한 나이 많은 개종자가 짓궂은 아론 신권 소년들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년들은 그의 서투른 영어를 몹시 놀렸으나 성령이 그의 말을 빛내 주어 곧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베렛 형제님이 여러 번 이렇게 간증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앙의 불로 우리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밀린 앤우드 감독이 13화드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문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에서 몇 가지 문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첫 문장을 적어 놓고 혼자 미소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간 학교 문법 반에서 겨우내 사용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매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4개씩 택하여 우리가

고친 것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첫 문장 이후로는 단 한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밀린 앤우드가 설교를 멈출 때 나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자 요셉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놀라운 간증 때문에 넘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설교를 들은 지 65년 이상이 되었으나 마치 오늘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나의 감정과 느낌은 지금도 그 말씀을 들을 때와 똑같이 확고합니다. …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나에게 감명을 준 것은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과 영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오늘 까지… 그들이 지닌 영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생명과 이해력을 주는 것은 글이 아니고 영이며 글은 생명과 이해력을 멸하는 것임을 확실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39년 4월호, 201페이지)

우리는 언제라도 참된 간증을 구할 때는 결국에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 및 어린이에게 오게 됩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초기 선교사인 조셉 밀레트의 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하려 가라는 부름을 받자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겨울을 지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점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잘 입지 못하고 무지한 10대의 소년이 집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서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과 축복문에 있는 약속과 영 대관장님의 격려의 말씀이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숲과…외딴 곳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에게 힘이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나

는 결코 그것을 전파해 본 적이 없었읍니다. 나는 경전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딕비의 뱃사공에게 배삯으로 성경을 주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조셉 밀레트는 그의 대가족과 함께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 내게 와서 뉴튼 홀 형제의 가족이 빵이 없어 그날 아무 것도 못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홀 형제에게 보내려고 우리의 밀가루를 나누어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때 홀 형제가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 형제님, 밀가루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밀레트 형제님.’”

“홀 형제님, 저 자루에 밀가루가 좀 있습니다. 나누어서 형제님에게 가지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형제님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게 밀가루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홀 형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집에 가 보았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숲으로 가서 기도하자 주님이 그에게 조셉 밀레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홀 형제님, 이걸 갚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내셨으니 나에게 빚진 것이 없입니다.”

그날 밤 조셉 밀레트는 그의 일지에 아래와 같은 훌륭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주님이 조셉 밀레트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조셉 밀레트의 일기, 문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록 보관소, 솔트레이크시티)

주님은 조셉 밀레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을 모두 알고 계시며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가장 기록할 가치가 있는 생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생애입니다.

150년간 이 평범한 교회 회원들이 이 세대에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진리는 가장 풍성하게 수확할 것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그는 초상화를 그리도록 앉아 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를 잘 아는 분들은 여러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괴로웠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화가는 그가 졸지 않도록 어느 날 갑작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킴볼 형제님, 형제님께서는 천국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 것이 상당히 놀라움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렇소… 분명히 보았오. 나는 이 화실로 들어오기 전에 천국의 모습을 힐끗 보았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결혼 의식을 수행한 신전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축하 인사가 오고 있을 때…기쁨의 미소를 담은 신랑의 아버지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오. ‘킴볼 형제님, 저와 아내는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뭐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이란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 대하여서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여덟 자녀의 막내 아이인데 아이들이 모두 거룩한 이 신전에서 신전 결혼을 했답니다. 모두들 오늘은 이 막내 아이의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반하고들 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못박힌 손을 내려다 보았오. 그의 거친 피부를 보면서 나는 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오. ‘여기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하게 이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스펜서 더블류킴볼, “천국의 발견”, 성도의 벗, 1972년 4월호, 4페이지)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교회의 초기 회원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지막 마차에 탄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발병이 난 채, 때로는 거의 낙담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된 복음이 참되며 주님이 맨 앞의 지도자 형제들을 인도하여 지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견디며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침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마차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울음 소리가 들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요람을 만들고, 아버지가 그 앞에 경건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차의 대열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마차는 흙 먼지 속에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선택된 영에게 육신을 주었으니 누가 감히 천사들이 그녀의 주위에 베를 지어 지켜 주며 그의 변변치 못한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임프로브먼트 이라, 1947년 11월호, 705페이지)

누가 감히

선교사 부름에 응하고,
반원들을 가르치고,
십일조와 현금을 내고,
조상의 기록을 찾고,
신전에서 일하고,
자녀를 신앙 가운데 키우고,
150년간 이 사업을 이끌어 온
평범한 교회 회원에게 천사가 오지 않는
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때 죄를 짓고 타락하였으나 열심히 노력하여 되돌아와서 죄를 용서하고 씻어 주는 친절한 회개의 영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아 그 앞에 깨끗이 섭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이 돌아와서 그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려운 교훈을 되새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성령에게 인도합니다.

누가 감히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15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그려했듯이 오늘날에도 전능하신 분의 권세와 영감이 그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며, 오직 신앙으로 인하여 천사가 인간들에게 나타나 은총을 베푸는 것이었늘, 만일 이러한 일이 그쳤다고 하면, 인간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불신앙으로 말마암음이요…”(모로 7:37)

예언자 모로나이는 하나님의 사사가 그들의 사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에게 전파함으로써, 저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을 갖도록 하여 세상 사람들간에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행함으로써 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인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하시며, 성신이 각각 저들에게 권능이 미치는 대로 저들 마음에 임하게 하시나니”(모로 7:31—32)

지난 여러 해 동안에 150년 전 시작의 때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계시의 시대임을 알려 주는 일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은 영감을 받지 않고, 예언자와 사도는 없으며, 천사는 인간에게, 즉 보통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의심과 불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불신앙이 진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도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믿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명령을 받았으므로, 주님을 특별히 증거하는 주님의 종의 자격을 주는 신성한 접견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이 그 특별한 증언

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간증과 증거는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 몇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질서 가운데 남녀노소 모두가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전세계의 평범한 회원들이 계시에 의해 이 교회로 인도되었으며 교회에서 봉사할 때 계시에 의해 인도됨을 증거합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도록 교회의 예언자와 대관장에게 주어지는 계시는 직책을 맡은 모든 역원에게도 그 부름의 범위 내에서 주어집니다.

계시는 가족을 관리하는 모든 부모에게 주어지며, 그대로 생활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집니다.

모든 총관리 역원처럼, 나 역시도 교회의 보통 회원이었습니다. 나는 이 경륜의 시대

에 78번째로 십이사도 정원회에 성임된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은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나는 우리가 나누는 증거의 확실함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조직 150주년을 맞아 기적의 날이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천사가 인간에게 성역을 베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특생자이고, 살과 뼈의 육신을 지녔고 여기에 있는 그의 종을 알고 있고 그들이 그를 알고 있다는 진실에 대한 증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좌로부터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마크 이 피터슨 장로,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 관리 역원 말일성도

대판장단



에리온 지 블루너 부임목사

십이사도 평의회



보아드 카이 케이

마이크 케이

에이브

마이크

칠십인 제일 정원회

프랭클린 디 티처스 케이토미스 페이인스

닐 에이 베스 웨

찰로스 이 에시 앤 라셀 빌라드 이세

로이든 저 테리

디어도어 에이터풀

에이 터리도어 터풀

하트만 헨터 이세

풀 에이처 터

마이크리스 고마쓰

에드나 헤일즈

찰스 에이 디레이 윌리암 알프레드 토드

로버트 앤더슨

제임스 앤 브라운

로이 터 헤일즈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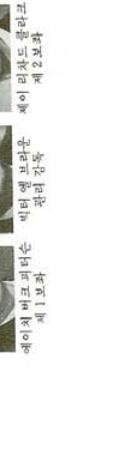
제임스 앤 브라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제이 헤이스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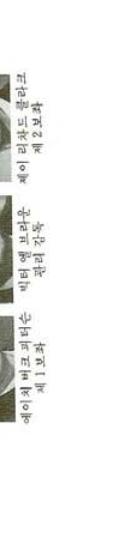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관리감독단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찰로스 이 에시 앤 라셀 빌라드 이세

로이든 저 테리

로버트 앤 헨터 이세

로비트 이 헐스

로버트 앤 헨터 이세

로버트 이 헐스

몰몬경

“이 책에는 거의 각 페이지마다 예수는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속주며 구세주라는 긴증이 들어 있습니다.”



매리온 지 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친애하는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조직 1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대로입니다.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

“진실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여러 국민의 기가 되게 하라.

“또 시온의 땅과 시온의 스테이크에 접합하게 하여 폭풍우가 내리치고 분노가 뒤섞임이 없이 그대로 온 땅 위에 쏟아져 내려울 때에 방어진이 되며 분노를 피하는 대피소가 되게 하라.”(교성 115:4-6)

예언자 요셉은 교리와 성약 20편의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다. 즉 예언과 계시의 영으로써 많은 것을 지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의 뜻과 계명에 따라 우리가 지상에 다시 한번 주의 교회를 조직할 정확한 일자를 지시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께서 재차 몰몬경의 진실성을 증거하시다.”

주님이 그의 교회가 조직될 날을 정하시며 그 계시에서 몰몬경의 진실성도 증거하셨으므로 그의 교회 조직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몰몬경의 몇 가지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님은 우리에게 몰몬경을 가르칠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계시하시려고 모로나이를 보내셨고(교성 27:5 참조) 그의 자비를 통하여 예언자 요셉에게 “번역할... 능력을”(교성 20:8; 교성 1:25 참조) 주었고 몰몬경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교성 19:26)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도 전해질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교성 20:9)이 실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 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9페이지)고 말했습니다.

니파이는 우리에게 그 내용은 “한 대를 이어 전달될 것이요... 이를 갖게 될 백성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니이 25:22)고 말합니다.

나로서는 몰몬경을 지닌 우리가 여기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보다 더 몰몬경을 읽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이유가 없습니다.

모로나이는 그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하심을”(이데 2:11) 알아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불순종에 따르는 재난을 피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초기 성도들에게 물론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에 대하여 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너희 마음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볍게 다루었으므로 어두웠느니다.

“허영과 불신앙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받게 하였나니,

“이 저주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에게 머물러 있느라.”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물론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억하여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교성 84:54-57)

이에 앞서 그는 그들에게 “물론경과 성경은 너희 교훈을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라.”(교성 33:16)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물론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교성 42:12)

물론 우리가 물론경에 있는 원리를 읽고,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 원리를 가르치라는 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물론경을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14)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계속해서 흐르는 “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며 신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항하여 거듭 나는 축복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이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투쟁은 늘 그렇듯이 인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개인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터는 각 사람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끌려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명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려 한즉”(잠 23:7)

만약 육신의 욕망을 피하고 스스로와 자녀를 위하여 위대하고 고상한 성격을 쌓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거할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거할 그들의 마음에 진실되고 의로운 원리를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것 및 세상적인 풍습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택하여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경험과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의 결론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무서운 모습을 한 괴물,

보기만 하면 증오하게 되나

그녀의 얼굴이 친숙하게 보이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우리는 처음에는 참다가 동정하게 되며 나중에는 환영하게 된다.

(포우프, 인간론, 두번째 서한, 217행, 옥스포드 인용 사전, [런던: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1966년], 383페이지)

세상의 악을 택하는 일을 피하려면, 매일 우리 마음에 성령에 속하는 것을 먹여 주고 마음이 거기로 돌아가게 해주는 과정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나는 매일 물론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계시한 진리를 마음과 생각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해 왔습니다. 그는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염숙함이 너희 마음속에 머물려 있게 하라.”(교성 43:34) 이 권고에 뛰어어 그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파송된자가 아니요, 나의 영의 권능으로 너희 손에 맡긴 것을 인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파송되었느니라.

“다만 너희는 하늘에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교성 43:15-16)

그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신 6:14)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불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찌니라”(신 6:4, 6-9)

예수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그를 배척하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요 5:39)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려고만 한다면 경전에서 그에 관한 진리와 그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영생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상고하는데 따르는 보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
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
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
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
이니이다”(시 119:97-105)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에 속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고서 세상의 욕망을 피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성령에 속하는 것들은 물론경에 있는 강력한 권세로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로서 만약 우리의 젊은이들이 니파이의 생애를 온전히 잘 알고 그의 용기와 진리에 대한 사랑의 영으로 채워져서 집을 나설 수 있다면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잘 알고 있는 니파이의 다음 말씀이 섬광처럼 스쳐 간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일 3:7)

또한 생활이 어려워지고 의로운 과정을 버리라는 유혹이 엄습할 때에는 방종한 형들에게 니파이가 간청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자. 보라, 주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하시니, 레이ண과 그의 오십이나 셜혹 수만의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보다 강하시지 아니하시겠느뇨?”(니일 4:1; 3:15 참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경의 가르침을 잘 안다면, 니파이의 모법, 힐라멘과 2천 청년 용사(엘 53장 참조) 및 물론경에 나오는 선을 택한 그밖의 인물에 의해 영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 교육을 받아 어느 것이 올바른지 알며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거의 각 페이지마다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속주며 구세주라는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증거만이 어떤 폭풍에서

나 치탱해 주는 뒷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과 거룩한 경전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의 속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하고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미덕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경은 그런 것에 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육욕에 사로잡힘에 사망이요, 영으로 충만함에 영생임을”(니이 9:39)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여 고귀한”(도로 9:9; 약 2:28 참조) 순결과 미덕을 기뻐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신성한 원리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한자의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거스리는 일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일임을”(엘 39:5)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학문과 세상의 부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니이 9:28-30 참조) 사실상 이미 이야기했듯이 물론경에서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교성 20:9; 교성 19:26 참조)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미덕으로써 그들이 배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매일 몇 분씩 물론경을 읽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방해받지 않고 주님의 영과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경험과 내가 사랑하는 분들의 경험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에 의하여 다른 어떤 책보다 물론경을 읽음으로써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직접 그 책을 읽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정규적으로 물론경을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

정과 그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전의 정신이 커지며 서로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대부분은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고에 더 잘 따르며 순종하게 됩니다. 의로움이 커지게 됩니다. 신앙, 소망,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박애가 우리 가정과 생활에 풍성하게 되어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물론경을 읽음으로써 이런 축복을 구하게 되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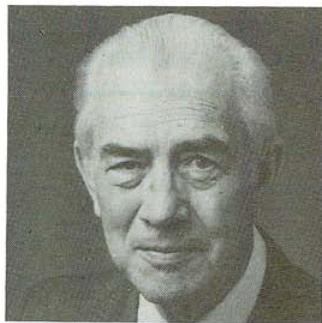


대회 방문자

1980년 4월 6일, 일요일 오후 모임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고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교회 기념일은 말일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성장한 것을 축정하게 해줍니다. 또한 지난 150년간 지나 온 방향을 보여 주고 나침판처럼 미래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현재 갖고 있는 고대 경전과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현대 예언자의 가르침에 의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따르기를 바라시는 진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내다 본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회복에 의하여 천사의 성역을 통하여 다시 지상에 온 영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함께 고대 미대록의 예언서인 물론경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전세계에 전함에 따라 매년 백만 권 이상이 발행됩니다.

우리의 선교사 제도는 1830년에 12명에서 오늘날에는 거의 30,000명의 선교사로 늘어났습니다. 회원은 지난 15년 동안에 배

로 늘어 났습니다. 4백 만이 곧 8백 만이 될 것입니다. 스테이크와 선교부는 80개국에 1,300개에 달합니다. 우리는 46개국으로 12,000개의 지역 집회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복음을 공부하도록 수백 개의 신학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개의 국민학교와 대학교도 있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는 여러 나라에서 그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광은 예지임을 알기 때문에 훌륭한 교육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세자의 세금을 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신체 장애자를 위한 직장을 포함하여 직장을 마련해 주는 수백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 사업은 팔복할 만큼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의 구원 의식을 행함에 따라 여러 지역에 더 많은 신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건물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과거 어느 것보다도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급속한 성장, 놀라운 성취, 우리 회원들의 굳건함을 소박한 자랑으로 여깁니다. 구세주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혈신, 그의 현대의 성역을 수행하겠다는 확고한 결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타당성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가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에 살아 계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며 창

조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도록 완전해지라는 구세주의 명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첫 번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나 12세에 성전에서 박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며 팔레스타인 평원을 걸었고, 당시의 사이비 종교의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혔으나 사망과 무덤을 이기고 삼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한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진실로 그는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는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사가 말한 것처럼 물리적인 실체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살아 계십니다! 현대의 우리 예언자들은 그를 마주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 계시며 부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해주어 우리도 문자 그대로 유품적으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부활절에 대한 우리의 간증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다시 이야기하시며 새로운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유다 및 그 밖의 사람들을 불러 성역을 베풀게 했던 때와 똑같은 교회를 지상에 세우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지고 계시에 의한 교리 대신에 인간의 철학이 들어서고, 거룩한 신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계시가 주어집니다. 우리 중에서 다시 예언자가 나오고, 들으려는 자 모두에게 자유로이 진리가 주어집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현대의 경륜의 시대가 빛나는 것 발처럼 여러

나라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빛나는 만큼 반대도 커 갑니다. 진리가 널리 전파되는 만큼 그것을 반대하는 속임수와 부정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종이 순결을 가르치는 만큼,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순결이 늘어납니다. 예언자 리하이가 말했듯이 “만사에 짹이”(니이 2:11) 있읍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원수가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선과 악,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사이의 격렬한 전쟁입니다.

경전에서는 악마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싸움을 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악마는 그들이 고안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읍니다.

이것은 영토나 부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남녀노소 모두의 영원한 영혼을 다투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는 영광수려운 승리를 많이 거두었고 앞으로도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귀를 기울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모세서 1:39)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집 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봅니까? 악마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은밀히 속이려고 할 때 그 악한 행위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유혹이 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유혹이 악마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것은 상당히 매혹적입니다.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처럼 그릇되게 보입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쓴 것이 달고, 겉은 것이 희고 죄가 용납될 수 있으며, 순결이란 것은 시대에 뛰어지고, 지나치게 암전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부도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순결은 이 개화된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시대의 고지식한 개념이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는 악이 선이며 표준이 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네 멋대로 해라. 양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즐기고, 원한다면 가장 천한 소망을 표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분노에 찬 적에 의하여 그런 생각이 침입하거나 부드러운 목소리와 천진난만한 미소를 통하여 이런 생각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인식합니까? 우리는 악을 볼 때 참으로 그것을 깨닫습니까? 정말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서둘러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웁시다. 그들은 즉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고, 순결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명백성을 선언하고, 거짓 가르침에 반대하고, 인기없는 싸움을 할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직면하더라도 진리를 수호하고 순결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대업을 수호할 도덕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까?

파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고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성 관계, 의설물, 부도덕한 말, 술, 담배, 마리화나 및 더 나쁜 약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적인 동시에 우리의 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수의 불화살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보루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방패를 들어 올리고 하나님의 종이 모두 해야 하는 것처럼 정의와 신앙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누가 주의 편이냐? 과연 누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주의 편이냐?

지금 보일 때라.
두렵없이 묻노니
누가 주의 편이냐?
우린 보통 천쟁파
적을 대항하잖네.
적 깨어 있으니
누가 주의 편이냐?
자랑스러운 깃발
은 세상 휘날리니
겁낼 자 없도다
누가 주의 편이냐?
(찬송가 장51)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자녀가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들을 부도덕, 의설, 술, 담배, 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싸우시겠습니까? 악한 친구들로부터 보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십니까?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십니까? 물이나 불로부터 구하는 것처럼 이런 죄로부터 구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의 가장 나쁜 적이 아닙니까? 죄는 우리의 육신과 영을 모두 멀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육신의 존재뿐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성실하며 순결한 사람도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상해를 입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며, 가장 큰 도움은 가정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젊은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강화하고 그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이 위급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장은 자기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어머니는 맨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탄의 대학살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복음의 진리를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부모에게 스스로 이 진리대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생활로 합당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순결을 읽느니 그것을 지키며 죽는 것이 낫다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정직하며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매일 가족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자녀와 함께 교회 모임에 가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일요일에 예배 전이나 후에 가족이 집에서 모임을 갖고 오늘날의 자녀를 죄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매주 월요일에 가정의 밤을 가져, 훈시와 오락을 통하여 가족에게 깨끗한 생활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주를 믿어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

입니까?

예수에 대한 간증에 있어서 용감하지 않으면 왕국을 다스릴 왕관을 잃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교성 76:78-79 참조)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계명을 받아들여 나태하게 지키면,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교성 58:26-29 참조)

열의없이 순종하는 데는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최고의 예지를 다하여 그를 섬기도록 명하셨으므로, 우리는 신앙대로 생활함에 있어서 용감하고 열의를 다 하여야 합니다.

그에게는 어중간한 측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의 편이 되지 않으면 그의 적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귀의 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촉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배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1, 13, 14, 16-17)

바울은 우리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엡 6:6 참조)이 되지 말고 온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여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말했읍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앞으로 닥칠 시험과 시련과 영광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앞에 놓인 일에 대하여 기뻐하면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상합니까?”



브루스 알 맥콤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산맥 한 가운데 있는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산 봉우리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높이에 도달하기 위하여 평화의 봉우리를 기어 오르고 절망의 계곡을 걸었었습니다.

우리 밑에는 죄의 사막과 악의 숲이 놓여 있고, 육욕의 늪과 욕망의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전쟁과 미움과 범죄의 강이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정상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는, 봉우리 위에 봉우리가 떨어 있어서 더 크고 웅장한 산봉우리를 이 있습니다. 그 봉우리는 모두 강과 숲과 절벽과 가파른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가파른 벼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길의 덤불에는 사자의 굴과 독사의 구멍이 숨겨져 있습니다. 악의에 찬 뱀이 길 옆 바위 위에 또아리치고 있고, 길 옆 어두운 동굴에는 늑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길은 음란의 산 사태로 막힐 것이고 악의 사태가 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날카로운 돌이 우리 발을 찢으며, 용암의 강이 구두 창을 녹이고, 우리는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진맥진해질 것입니다. 앞에 놓인 길은 힘들고 험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구름에 감추인 정상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멀리 떨어진 곳에는 가장 웅대한 봉우리인 시온 산이 있습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시온 산이 보입니다. 그 위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는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히 12: 22-23)

우리가 150년간 발전한 봉우리에 서서 바라보는 경치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게 되돌아보면,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시작하신 1820년 봄을 보게 됩니다. (교성 112: 30 참조)

우리는 보로니아가 하늘을 날아 다니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티끌로부터 속삭이는 신 접한 책을 계시하는 것을 봅니다. (계 14: 6 참조)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모든 열쇠가 지상의 인간에게 주어질 때까지 열쇠와 권세와 권능을 전해 주는 또 다른 성역의 천사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바빌론의 우상을 멸하고 인간의 왕국을 부수고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구르는 것을 봅니다. (단 2: 34-35 참조)

왕국의 장로들이 만방에 나아가 회개를

의치고, 이스라엘을 모으며, 신앙있는 자들을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꼭대기로 모으는 것을 봅니다. (니이 12:2 참조)

우리는 개종자와 스테이크와 신전을 봅니다. 은사와 표적과 기적이 충만합니다.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업이 전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슬픔과 고생과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에 이르기 까지 주님의 성약을 지키려 하는지 보기 위하여 온전히 시험받습니다. (교성 98:14 참조)

우리의 눈은 인간의 탈을 쓴 살인자 악마가 19세기의 가장 훌륭한 자의 피를 흘린 카테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불타는 나부와 타락하여 저주하는 악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을 더럽히는 것을 봅니다.

지친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 약속된 땅으로 가면서 겪는 눈보라와 추위와 사망과 무덤을 봅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물을 제단에 바치고 육설을 들으며 구타당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힘을 다해 “모든 것 잘 되리”(찬송가 86장)라고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들이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의 재림에 대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려 할 때 예언자가 예언자를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럽지만 우리는 기쁨은 현재와 미래에서 찾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큰 슬픔과 가장 깊은 고통도 모두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더 심한 시험을 받으며 이전에 알았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에게 영예를 돌리고 예언자를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받은 유산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면 우리는 “너의 선 끗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는 음성을 듣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살아 있는 현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운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봉우리에서 앞서 가신 분들이 잡아 놓으신 길을 따라 가면 언제고 우리의 것이 될 하나님의 시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야로부터 가려 진 것이 많기 때문에 길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산길은 계곡과 꼭대기와 바위턱 둘레와 숲 사이로 꼬불꼬불하게 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긴 여행이 될지, 또는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쁘게도 하고 두려워 멎게도 합니다. 우리는 슬픔과 전쟁과 역병이 지상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에 속하였으나 약하고 방종하고 세상적이어서, 왕국을 향한 대열이 전진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웁니다.

우리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련을 헤치고 나온 자를 기다리는 영광과 명예 때문에 기뻐합니다. (시편 24:4 참조)

앞을 바라보면 복음이 성공적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온 세상 사람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이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온 세상에서 있는 것과 선택된 백성들이 왕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거룩한 도시에 모인 것을

봅니다.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주님의 집의 충만한 의식을 받고 천년 동안 지상의 왕과 제사장으로 살며 다스릴 자격을 갖출 수 있게 온 지상에 수많은 신전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해 주는 신권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가인의 후손이 일어서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지구상의 표면에 흘러져 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권세와 영광 중에 일어나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빛으로 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가 굳게 서서 진리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권세로 왕관을 쓰고, 승리하여 왕국을 획득하는 것을 봅니다.

성실한 성도들이 자기 생활을 온전케 하 고 아버지의 오심에 대비하며, 주님이 그들 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처소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현이 모두 감미롭고 밝 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져야 할 일은 모두 과거 어느 때에 지상에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악과 위험과 고립 가 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육육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자들도 그들의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인간 중에 온유한 자가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듯이, 이 세상의 신을 예 배하는 자들은 점점 더 타락과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는 불길한 전조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악과 범죄와 육욕이 지상을 덮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장 이, 강도, 간통한 자, 동성연애자, 살인자는 별로 그런 악행을 우리의 시야로부터 감 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부정이 만연합니 다. 지상에는 평화가 없읍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가족을 멸하고, 도덕과 품위를 조롱하며 음탕하고 비열한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악의 힘이 뭉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전쟁과 역병과 해독을 봅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합니다. 어디에서나 피와 육욕과 사망이 만연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판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악의 권세가 자유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며 이 날은 그의 권세가 힘을 떨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업은 발전해 나갑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하는 자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조상의 전통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버립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므로 왕국은 성장하며 발전합니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 계시와 시현과 예언이 있습니다. 은사와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믿는 영혼이, 다시 태어나 성령의 권세로 영혼이 성결케 되며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및 거룩한 분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준비합니다.

우리가 앞에 놓인 일에 대하여 기뻐하면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상합니까?

참으로 세상은 동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온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악하고 신앙이 없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며, 작은 돌은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앞에 놓인 길은 어둡고 무서우며 두렵습니다. 순교자도 생길 것입니다. 다시 카테지 감옥의 문이 죄없는 자들을 가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의 시련과 악이 완전히 지나갔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일에 교회의 편에 서고 성령을 인도자

로 삼고, 우리에게 성역을 베푸는 사도와 예언자의 말에 귀기울인다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협통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어둡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거나 죽거나 축복받은 주님이 지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세운 거룩한 도시와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동안에 에녹의 도시의 사람들과 섞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놓인 끝없는 길을 볼 때, 끝없이 이어진 각 봉우리 위에 있는 영광과 훌륭함이 저 아래 계곡의 그늘과 슬픔을 삼켜 버립니다.

우리는 조물주와 동행하는 영혼으로 이스라엘의 산에 영원히 메아리치는 하늘 창대의 노래를 듣는 듯합니다. 그 음악은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해주며 그 가사는 경배의 시, 즉 회복의 시가 됩니다. 그 노래는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을지어다.
그가 온 땅에 기이한 사업을 이루셨으니 천지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세.

그가 거룩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순수한 말씀을
회복하셨으니 그에게 노래하세. 그는 지상에서 진
리를 부르고 하늘로부터 의로움을 내리시도다.

그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이 축복받을도다. 그
가 이스라엘에 왕국을 회복하셨고 사방에서 선민
을 모으셨도다. 이방인도 그의 백성과 합류하게
하시도다.

그가 성도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리려 오
시니 우리 왕,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세.
그는 불을 가지고 오사 사외한자는 그루터처럼 되
리라. 그가 사랑과 천지를 갖고 오사 그의 구속자
가 지상을 상속받게 하시네.

영광과 영예를 우리 주 하나님께 돌리세.
그의 훌륭한 사업을 노래하세.
그의 위대하고 거룩한 이름이 축복받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우리 왕, 우리 주님께 돌릴지어다.

우리 마음에 이런 시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우리는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듣습니다. 또한 고대의 성약의 백성을 부르셨고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의 권속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 마음에 전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편히 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에드워드 저 스미스

나부—신앙의 증거

“우리의 가정을 사랑과 아름다움의 장소로 만들고, 지역 사회를 깨끗하고 건전하게 하며, 우리 나라를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알맞게 만들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웁시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교회 조직 150주년이 되는 오늘, 이 교회의 위대한 역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에는 항상 나에게 큰 영감의 근원이 되어 온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시련과 시험의 시기라고 믿는 곳으로부터 인간 사회의 사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성취의 빛이 발산되었습니다.

미주우리주에 정착하려는 교회 회원들의 노력은 그 주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개인적인 재산을 구입하였으나 그들에게 도적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한겨울에 그 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교회 대관장단들은 모두 재판을 기다리며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지도력은 허용될 때에 한해서 편지로 격려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1월에서 4월까지 긴 겨울 동안 리버티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를 찾을 수 없자 석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일리노이주 캔시 주민으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던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여행했습니다. 미시시피 강 양쪽에 진을 치고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갔을 때 예언자의 마음은 영혼의 맨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쳤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집과 생활 도구와 충분한 음식도 없이 어떤 사람은 천막이나 움막에 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피난처도 없이 노천에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거의 모든 가족에게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오랜 투옥 후에 여위고 창백하고 돈도 없었으나 다시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시시피강이 편자 모양으로 흐르면서 만들어진 높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버려진 땅이었고, 6채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땅인 것 같았습니다. 이 모기가 우글거리는 높지의 소유자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일정 기간 후에 지불하는 약속 어음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팔았습니다.

“예언자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곳의 이름을 새로이 명명하였다. 그 땅의 토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수고로 이 지역은 ‘아름다운 도시 나부’가 되었던 것이다.”(윌리암이 베렛, 회복된 교회, 144페이지)

예언자의 신앙은 사람들을 단합시켜 주었고, 인간의 역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열의가 이들을 감쌌습니다. “이 강한 힘은 높을 대도시로 변모케 하였다. 누추한 잡자리는 홀륭한 가옥으로 변모되었으며, 무일푼의 성도들은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부유한 주민이 되었다. 그들의 선교사

업에 대한 열의는 복음을 여러 곳에 퍼뜨리게 하였으며 회원을 배가시켰다. 이 모든 것이 짧은 5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프로그램이며 성과인가! 모든 재산, 돈, 집, 공장, 토지를 빼앗겼던 이들이 불과 5년만에 많은 지역에서 부러워 할 만한 도시를 이루하였던 것이었다.”(베렛, 회복된 교회, 145페이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토마스 엘 케인 대령은 필라델피아의 역사 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부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수년 전 가을, 미시시피강을 따라 내려오던 나는 굽류 지역을 지나가야 하므로 하는 수 없이 육지로 여행해서 그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나의 행로는 해프 브리드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은 개간되지 않은 곳으로 화폐 밀조자, 말 도둑 등등의 위법자들이 은신처로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나는 낮은 폭포 밑에 있는 교육에 배를 남겨 놓고는 마차를 빌어 이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생각되는 파리떼와 함께 먹을 것을 찾아보기 위해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난폭한 방랑자와 게으른 정주민뿐이었으며 토지는 전혀 개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언덕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때 너무도 이와 같은 풍경에 대조를 이루는 광경이 나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활 모양으로 굽이 친 강줄기를 따라 반원을 이룬 아름다운 도시가 신선한 아침의 태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번쩍이는 집들은 둥근 지붕 형태의 우뚝 선 언덕 주위에 펼쳐진 신선한 푸른 정원 사이에 정연히 늘어서 있었으며, 언덕의 꼭대기에는 하얗게 번쩍이는 찬란한 첨탑이 있는 우아한 대리석 건축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심지는 수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었으며, 도심지를 벗어나면 체크 무늬처럼 구분이 되어 있는 풍성한 경작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나 눈에 띠는 풍부한 산업, 기업, 교육 시설의 행적은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윌리암 이 베렛, 회복된 교회, 218—219페이지)

나는 오늘날 나부를 방문할 때마다 초기 성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레로이 킴볼 박사의 세심한 지시 아래 이 기적의 도시의 한 부분이 재건되었으며 나는 그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나는 이 도시를 역사에서 배운 다른 도시와 그렇게 다르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으며 우리의 구세주인 주님의 원리대로 생활하려고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권고에 따랐습니다.

“그려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 : 31—33)

그들을 생각할 때 나부를 세우려고 노력한 일에서 두 가지 기본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1840년대에 필요했던 것과 똑같이 1980년대인 오늘날에도 성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깊고 한결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막과 움막이 아름다운 벽돌 구조의 건물로 바뀐 것에 놀랍니다. 그러한 변화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성도들을 불러모은 예언자의 음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체제가 붕괴되는 비명을 듣습니다. 도처에 결핍과 문제가 있읍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분석할 때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제도는 항상 그려했듯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은 아직도 풍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너지를 걱정

하고 있읍니다. 하늘에서 계산이 잘못되어 복천년이 되기 전에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오늘 날 단 한 가지 에너지의 결핍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두 쿠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자 조상의 마음에 어떻게 위대한 신앙이 자랐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기본적인 교리를 이해했읍니다. 주님은 이 지상의 그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몇 가지 원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셨읍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원리는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실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읍니다. 여러 세대를 통하여 시험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실행한 회복된 진리가 성장하였읍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경전에 들어 있는 대로 주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신앙을 쌓을 수 있는 최상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원리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원리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신앙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이해했읍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봐도 주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키우기에 지금보다 더 훌륭한 기회는 결코 없었읍니다. 새해가 올 때마다 우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도록 새 공과 교재, 훈련 보조 자료, 기록된 영감의 말씀, 총괄적인 지도서, 전후 참조 제도, 녹음 페이프 등이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날에 가족 단위로 공부하도록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하여 일요일 접회 순서를 조정했읍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세대보다 훌륭한 경전 지식을 갖고 있는 세대가 되지 못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읍니다. 결코 이전에는 오늘날의 우리처럼 진정한 복음 학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없읍니다.

우리의 개척자 조상이 가르쳐 준 두번째 원리는 근면의 원리였읍니다. 그들은 무에서 결코 아무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위대한 결과를 낳은 것은 모든 사람의 단합된 노력이었읍니다. 나는 그들이 유급 휴가, 커피 타임, 받는 것보다 너무 많이 일하는 것, 실업 수당 등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5년 후에 나부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협동해서 일함으로써 부를 낳는다는 원리를 이해했읍니다. 이 교회의 부는 장부에 기록된 재산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이 함께 일하는 능력에 의해 평가될 것입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한 사람의 기술이 다른 사람의 기술에 더하여집니다. 나는 교회 봉사를 통하여 받은 특별한 교육의 수에 놀라는 일이 종종 있읍니다. 복지 농장에 대한 부름은 원예 기술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예배당에서 일하라는 지명은 목수, 연판, 페인트, 청소 기술을 개발시켜 주었읍니다. 교회의 부름은 조직과 행정을 이해하게 해주었읍니다. 선교 사업은 훌륭한 대인 관계의 요령을 가르쳐 주었읍니다. 교회의 봉사는 대학 학위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 주었읍니다. 내가 얻은 유익은 대가를 받고 봉사했다면 내가 받았을 보수의 수천 배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봉사는 매우 재미있읍니다. 와드 건축 기금 활동을 하던 어느 무더운 여름 저녁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주 박람회에 음식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읍니다. 나는 우리 와드 회원인 베이 헛칭스와 함께 접시닦는 일을 지명받았읍니다. 우리는 고객이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는 카운터 건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산대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읍니다. “헛칭스 박사님, 병원에서 전화가 왔읍니다.” 갑자기 포크가 모두 멈추었읍니다. 고객들은 서로 마주 보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의사가 접시를 닦다니?” 우리는 즉시 이것이 교회 건축 기금을 모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읍니다. 아무도 자기가 봉사한 것에 대한 대

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웨이터, 요리사, 접시닦이, 웨이터 조수는 의사, 변호사, 상인, 기관장들로서 모두가 이 사업을 위하여 함께 일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우리의 능력이 교회의 부와 힘과 안정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가정, 직장, 이웃, 지역 사회, 국가에서 이 기본 원리에 대한 의로운 모범이 됩시다.

주님이 자녀를 대하신 역사를 보면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상생활의 경험에서 성공하기 위한 공식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우리의 지상 생활의 경험에서 기초가 되는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깊고 영속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는 그의 가치 체계와 일치해야 하며, 그의 가르침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회 조직 150주년에 다시금 산뜻대기로부터 승리의 소리가 들리게 합시다. 과거의 성취를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금년이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는 결의에 찬 노력의 해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과 아름다움의 장소로 만들고, 지역 사회를 깨끗하고 전진하게 하며, 우리나라를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알맞게 만들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이 지구를 온 인류의 마음에 화평과 이해가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시다.

나는 이 역사적인 대회에 나의 간증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생활이 그의 원리에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자신에 대한 책임과 인간의 발전

“조건 반사적인 행동은 영생에 필요한 수준의 영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도의 자유가 꼭 필요합니다.”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나는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서 있었던 고지에서 위로 솟아오르라는 킁볼 대관장님의 계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로 조정된 일요일 예배와 주중 활동에서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더 많은 융통성과 자유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발전을 지지하는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일성도는 이 지상 생활이 개인적으로 시험받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 두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자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으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 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 할 수도 있으니라.” (니이 2:27)

그는 인간들이 “타락에서 구속될 것임에

영원토록 자유로울 것이요, 선과 악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마지막 큰 날에 있을 형벌의 법을 제하고는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하느니라.”(니이 2:26)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내가 준 도덕적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미래에 관한 교리와 원리에 알맞는 행위를 하게 하며...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교성 101:78)이 그의 소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선택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에 관한 자유의지를 행사할 자유는 최대의 발전과 진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여받은 것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자유롭고 싶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은 영원한 운명을 얻는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확신시켜 주는 우리 내부의 속삭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과 규정과 소송 절차가 있다고 해서 인간을 순종하게 하기에 충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생산적인 순종은 자유의지의 행사를 통하여 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앤더슨 이 보우엔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율법도 그것을 침행하는 사람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잘 짜여지고 목적이 합당한 법일지

라도 그 목적에 맞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교회 복지 사업 계획, 주일학교 교재, 1946년 115페이지)

우리는 경전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지상 생활의 과제에 대하여 생각하면 무리의 3분지 1이 양심과 자유의지의 행사에 따르는 필연적인 위험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서 3:27-28; 계 12:4 참조) 그들이 치른 대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시간 배상, 복음 공부를 통한 개인 및 가족의 영적 발전, 기독교적인 봉사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제언에 기꺼이 응해야 합니다. 이 부수적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일요일 예배와 종교적인 생활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갖지 않는 한, 필수적인 자유에 생명을 주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행하지 않는 한, 자유가 지속되기를 바랄 이유가 별로 없읍니다. 우리가 의존성과 규정에 자신을 맡기고 독립과 자기 책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쉽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주로 계획된 활동에 응하는 정도에 의하여 의로움을 판단하게 된다면, 발전할 기회가 쇠퇴하는 현상이 전개됩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비극은 인간의 지상 생활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영원한 가능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건 반사적인 행동은 영생에 필요한 수준의 영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없읍니다. 필요한 정도의 자유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영적인 발전에 꼭 필요합니다. 올바른 원리와 그것을 적용하려는 내부의 소망을 이해하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많은 선한 일을 행할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 틀림없읍

니다. 이는 계시에서 말하는 대로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성 58:27-28 참조)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보존함에 있어 우리는 정부나 기타 다른 조직 내에서 주의 깊게 질서를 세운 구조와 절차의 필요를 무시 할 수 없습니다. 그 집단의 복지를 위하여 지시한 것과 개인의 양심과 동기를 위해 유보한 것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균형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자유와 억제의 필요한 균형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올바른 관계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의 지명에서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회원을 위하여 마련된 활동을 간단히 하고 활동 수를 줄이라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본질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개인의 창의와 책임성에 대하여 점점 더 강조하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1979년 4월 연차 대회의 폐회 말씀에서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근본적인 결정은 교회의 회원이 각자 내어야 합니다. 교회가 내딛어야 하는 큰 걸음의 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디디는 큰 걸음의 폭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왕국의 커다란 성장의 열쇠입니다.”(성도의 벚, 1979년 10월호, 124, 125페이지)

나는 살아 계신 예언자의 이 가르침에 들어 있는 정신과 의도를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회원 자격과 종교적인 생활에 관계되는 개인적인 책임을 보호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알 수 있읍니다.

교회 회원들이 복음 원리를 적용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때 이 원리에 순응하

는 데 있어서 긴장을 풀 필요는 없읍니다. 사실상 최적의 발전은 상태가 이상적일 때만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유와 자신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덜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성장이 위축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제한으로 발전할 자유가 더해짐에 따라 실패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실패할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상이 성취될 수 없읍니다. 다른 환경에서는 해의 왕국에 도달할 수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방향과 행위를 책임질 때 궁극적인 안전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는 영감있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은 모든 가능성과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부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간섭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두 인간의 발전에 대한 복합적인 웨손에 의하여 이상적인 균형이 파괴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보강해 주는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도전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창의력과 노력에 의하여 자기 생활을 더 훌륭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 진리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면 개인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생의 요소를 마련해 줍니다. 인생에 목적이 있게 해주며 충만한 약속이 있게 해줍니다. 영원히 진보할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이런 진리를 무시하고 남용하면 인간성은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온 영혼을 다하여 그것을 아끼며 지상의 모든 백성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회복된 복음

“행복에 이르는 단계 : 예언자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주를 섬기고, 거룩한 곳을 걷고, 계명대로 생활하십시오.”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오늘은 얼마나 훌륭한 날이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굉장한 시대입니까! 나는 이 세 건물을 헌납하는 이 위대한 날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가능하게 한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에 복음이 회복된 것으로 인한 놀라운 영향력도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재설립과 신학적인 근본을 연구하면 많은 사람의 질문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장과 놀랄 만한 영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무엇이 물론을 다르게 만들까? 당황해진 학자, 사회 비평가, 종교가, 문화관찰자들이 많은 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답은 이 교회를 업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회적인 기형물로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어려운 때에 항상 관심을 초래하는 보수적인 교회라는 간단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회원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깊이 생각하면 할

수록 구속주와 기타 하늘의 사자들이 직접 지상에 영원한 복음을 회복했다는 해답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이유입니다.

어떤 시인은 “정직한 이야기는 평범하게 이야기해야 빨리 전해진다.”(윌리암 세이스 피어, 리차드 3세, 4막 4장, 358행)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선 나의 자세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뭇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바로 그 개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천년 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수천년 전에 지상에 있던 교회와 동일한 제도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날 유행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우연한 일이나 기타 다른 답에 관련시키려는 학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답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가장 순진한 사람들의 갈증도 해결시켜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 예로 주님은 고대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6) 우리는 다른 양들이 미대륙에 살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지난 150년간 알고 있었습니다. 구세주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시련은 물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귀절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성서 학자에게 신비와 문제를 안겨준 많은 다른 귀절을 설

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적대적인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질적인 조직입니다. 구세주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반역적인 세상에 있는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언자며 선견자요 지도자로 알고 있고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거의 만장일치로 따르는 용기를 갖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동일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읍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사도와 예언자, 축복사, 칠십인, 감독, 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읍니까?

여기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 10:14)고 하시는 구세주의 권고에 따르는 교회가 있읍니다. 우리가 지닌 어린 이를 위한 위대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한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해줍니다.

회복된 교회의 부수적인 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조직에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매 400,000명이 참여하는 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강력하고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인 남자와 소년을 참여시키는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프로그램, 주중 첫번째 날에 갖는 예배, 영원한 결혼과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포함하는 여러 의식이 행하여지는 거룩한 신전, 30,000명의 형제, 자매가 봉사하는 전세계적인 선교사 제도,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무보수로 일하는 성직자(“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 구속과 생활의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품위와 사랑 가운데서 들픈 포괄적인 복지 프로그램 등 이러한 목록은 한없이 계속됩니다.

오늘날의 사건들은 150년 전 이곳 서부 뉴욕주에서 일어난 일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덮도록 발전할 도덕적인 개혁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더 확실히 간증합니다. (단 2장 참조)

그러나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함축된 뜻이 있읍니다. 오늘날 극심한 문화의 폭풍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어디에서 영적,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읍니까? 세상은 어지럽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경제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불안정도 우리의 모든 생활에 불안과 불안정과 혼란을 일으키는 오늘날의 환경의 한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이 회복은 우리에게 고치고 인도하고 바로잡고 치료하는 만병 통치약을 주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제도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지를 자르지 않고 등에 기름을 채우지 않는 혼명치 못한 신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우선으로 하여 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한 민감한 이 교회 회원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물을 수 있읍니다. “나는 왕국과 관계를 갖고 회원이 됨으로써 갖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 몇 가지 제언이 있읍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예언자의 충고와 권고를 유익하게 이용하십시오. 회원으로서 우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지도자가 있으며 그의 권위 있는 책임은 교회의 첫 장로인 요셉 스미스와 함께 시작되어 150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우리의 영원한 효율성을 강화해 줄 지시를 포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읍니다.

둘째, 우리의 친구, 가족, 이웃에게 이 위대한 회복에 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지십시오. 150년 전 바로 이 날 주어진 계시에서 예수님이 효과적인 선교사의 필요성을 이렇게 표시하셨읍니다. “그리

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아 신앙으로 끝까지 전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교성 20 : 25)

셋째, 부름을 받으면 왕국에서 봉사하십시오. 주님은 1830년 4월 같은 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참으로 끝까지 섬길 결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죄 사함 얻은 것을 행위로써 나타내는 자에게는 모두 침례를 베풀어 교회에 빙아들여야 하느니라.”(교성 20 : 37)

넷째, “주 앞에서 거룩하게”(교성 20 : 69 ; 21 : 4 참조) 생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150년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훌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성 21 : 6) 우리가 전파하는 가장 뜻 깊은 설교는 우리가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네 가지 단계이지만 그곳에서부터 행복이 오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빌 4 : 7)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언자와 교회 지도자의 사랑에 찬 권고에 따르십시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십시오. 고결함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회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하지 않습니까?

셋째, 주를 섬기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간증을 나타내십시오.

넷째, 거룩한 곳을 걷고, 계명대로 생활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교회회복 150주년 기념일의 한 부분으로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을 건설적이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치료하는 방법에 일치시키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온 지상에 있는 교회 일에 있어서 지금 불들어야 하는 기회가 있으며 이것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정도로 우리를 들어 올리고 전진하게 해줄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는 영광스러운 대회입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멀어져 있지만 나는 태버내클에 계신 여러분을 매우 가까이 느낍니다.

이 위대한 교회 회복 150주년 대회는 우리 모두가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된 때로 가까이 가게 해주었습니다. 옛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을 이야기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 경륜의 시대의 끝에 가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 대회는 나로 하여금 이 위대한 사업의 한 부분이 되는 특권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감사하도록 복합된 감정과 추억과 예전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50년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영원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실제로 개인이나 조직이 날짜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세월이 아니라 봉사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이 연륜이 부족한 것을

질로써 보충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150년 동안에 많은 뜻깊은 업적을 압축하여 성취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만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12명의 대관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앞의 11명의 대관장님 모두에 대하여 또한 그들과 그들의 동료와 교회 회원들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역경 속에서도 확고하게 견딘 것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날의 교회도 동일하게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자신의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도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그들은 낯선 음성이나 이상한 자들의 유혹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할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임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 지상에 있는 교회 일에 있어서 지금 불들어야 하는 기회가 있으며 이것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정도로 우리를 들어 올리고 전진하게 해줄 것입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맙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조직 두번째 세기의 하반기로 들어서며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고 단순하게 합시다.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도록”(롬 16 : 19) 합시다. 악을 인식하는 것을 배워 항상 그것을 피합시다. 교회 프로그램과 조직을 간소하게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올 날에 장렬하고 보람있는 계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는 그를 따르는 자

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고 권고합니다. 오늘날 그 권고를 따릅시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활하여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행위가 거짓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행하는 것이 되게 합시다.

쇠막대를 단단히 붙잡읍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겪손함과 주님을 믿는 깊고 영속적인 신앙을 지니고, 그를 믿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나 세상의 칭송으로 우리의 길을 바꾸는 것을 거절하며 전진하도록 권고받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회원들에게 열의와 혼신의 특성

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진합시다. 걸음의 폭을 넓혀 여행을 계속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온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위대한 관리 대제사인 부활하신 주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150년 전에 있었던 회복과 교회 조직을 기념하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활절 일요일에 이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렸습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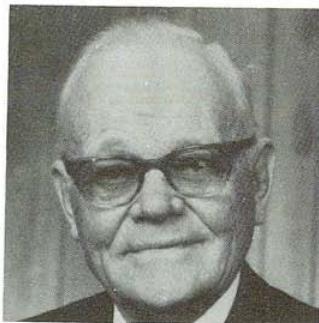


대회에서 역원을 지지하는 성도들

1980년 4월 5일 복지 모임

교회 복지—영적인 면에 대한 육적인 봉사

“복지 사업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면에서 그 성과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매리온 지 루미
대관장단 제2보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40년대 중반 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래로 나는 연차 대회 복지 모임에 참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나에게 두번째 큰 계명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이와 같이 질문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6-40)

복지 프로그램이 최초로 발표되었을 때 나는 감독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면서 내가 얻은 교훈은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하는 생활의 가장 위대한 부분은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돋는 것은 우리의 바로 곁에 있는 이웃에게 일시적인 친절한 행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이 시대의 예언자를 통한 현대 계시에 기초를 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 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주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 계시되었고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물론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엘마는 교회의 백성들에게 명하여 저들의 소유를 각각 가진 대로 넉넉한 자는 넉넉한 대로, 적게 가진 자는 능력이 닿는 대로 갖지 못한 자들과 나누게 하였으며,

“이같이 가진 소유를 저들의 자유로운 의사로써 하나님께로 향한 선한 마음으로, 궁핍한 제사들과 궁핍하고 혈벗은 자 모두에게 나누게 하니라.

“엘마가 백성들에게 이같이 명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은 까닭이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또 원하는대로 서로 나누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더라.”(도사이야서 18:27-29) (이것은 주전 147년경 미대록에 살았던 니파이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1936년 10월에 교회의 대관장단은 오늘날 복지 사업의 기본이 이념이 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을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 심과 근면과 겸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돋는 자를 돋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히버 제이 그랜트, 1936년 10월 대회 보고, 3페이지, 복지 사업 지침서 1페이지 참조)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경제적 부양 책임은 (1) 자신에게 (2) 가족에게 (3) 교회에게 (그가 충실했을 경우) 있다는 원칙을 기본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은 세 가지 주요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자신의 능력껏 자립하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때때로 육적인 복지라고 불리어지는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잉여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1937년 4월 대회에서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교회의 모든 회원이 따라야 할 자립의 과정을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회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가올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서 우리를 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전염병을 피하듯이 빛을 피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금 빛을 지고 있으면 그것을 청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갚을 수 없다면 내일 갚도록 하십시오.

“모든 가정의 가장은 적어도 일년 동안 사용할 식량과 의복과 가능하면 연료까지도 준비하도록 합시다.”(대회 보고, 1937년 4

월, 26페이지)

도움이 필요한 회원이 있을 경우 먼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교회 원리입니다. 친척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친절과 정의와 공정과 공통의 이익과 인간성에 대한 모든 고려가 필요합니다.

스티븐 엘리차즈 장로님은 교회의 모든 가족이 꼭 기억해야 할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빵을 살 능력이 있으면서도 나의 연로하신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전전한 자부심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입니다. …진실하고 자립적이며 번성하는 생활에 대한 자부심…곧 가족 각 사람에게 최고의 열의를 증진시켜 주는 가정의 자부심은 유익한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공공 단체의 원조를 받지 않고도 가족끼리 서로 협력하여 생활고를 이겨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때,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된 노동을 행하면서 서로의 학업을 도운 예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국가의 원조를 받도록 방치해 두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대회 보고, 1944년 10월, 138—39페이지)

마지막으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를 통하여 교회로부터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현대적인 표현을 빌자면, 사회 사업가였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계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열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로마서 15 : 25—27)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암흑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임무와 똑같은 비중으로 여겼습니다. 이 두 가지 수단으로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두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딤전 6 : 17—19)

말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깨끗할 수 없는 성약과 행위로서 네 재산을 하나님께 혼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 재물을 나의 교회의 감독과 두 사람의 장로 곧 이려한 목적을 위하여 임명될 자, 또는 이미 임명되어 성별된 대제사 앞에 바치라.”(교리와 성약 42 : 29—31)

앞에 기술된 원리는 회원과 지도자가 똑같이 합당하게 적용할 때 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교리를 세우고 시온을 건설하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 문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관장단에 의하여 교회 복지 계획을 처음 시작한지 2년 반이 되었을 때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1939년 6월 20일, 콜로라도 주, 에스테스 공원에서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는 재정이나 경제적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좌우되는 사실을 교회는 발견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였을 때 그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영성이 낮을 때 계획은 부진하였습니다. 교회는 제일 큰 계명을 대신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성 59 : 5—6]”(교회 복지계획 : 토론, 교회 복지 위원회, 1939년, 32—33페이지)

그때 이후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복지 원리들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면에서 그 성과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은 의로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원조에 대한 감독의 평가는 반드시 영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교사는 영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맡고 있는 가족들의 필요 사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의로운 의도로써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을 성화시키고 정신을 고취시켜 줍니다. 어떠한 복지 책임이든지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엘후 1 : 9 참조]가 되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은 영으로 충만하여 모로나이가 말한 것과 같은 사랑의 유대로 인봉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이며,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

가 이러한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어다.”(모로 7: 47-48)

우리 모두가 이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여 약속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복지 사업에서 보인 모범

“우리는 재난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주님께서는 자녀들 개개인을 사랑으로 들보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해럴드 지 헬람 부장
아이아호 폴스 아이아호 사우스
스테이크 부장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4.8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달리고 있읍니다마는 이 연단에 서니까 달리기 한 적 후보다 더 숨이 가빠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복지 사업 분야의 위대한 분들이셨던 이 연단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읍니다.

아이아호주 테톤법의 봉괴로 발생한 홍수로 아이아호주 동부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었을 때, 당시 지역 복지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던 나는 일반 재해 방지 및 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대표하여 말하도록 부탁을 받았읍니다. 책임자들은 시, 군, 주 및 연방 조직 단체 등의 대표뿐 아니라 종교인, 자원자 그리고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주어진 주제는 말일성도 교회가 어떻게 위기에 대비하여 준비되어 있는가였읍니다.

나는 그들이 이미 교회가 홍수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주목하였음을 깨달았읍니다. 그들은 우선 감독의 창고 제도를 통하여 거의 즉각적으로 많은 화물 트럭으로 생필품

이 조달되고 현지의 신권 지도자의 요청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데저렛 산업이 혼란 중에서도 질서를 가져다 주었음을 알았읍니다. 각자로부터 들어온 의류가 산더미같이 마구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용 의복과 작업화가 큰 것과 작은 것과, 남자 의복과 여자 의복이 더러운 옷과 깨끗한 옷이 마구 섞여 있었읍니다. 단시간 내에 데저렛 산업은 많은 손질을 해야 하는 이 의류들을 세탁하고 다림질하여 분류하여서 필요에 따라 쉽게 택할 수 있게 정리해 두었읍니다.

그들은 말일성도 사회 사업이 정서적인 인내가 제한당하는 때에 그들의 사회적 및 정서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또 새로운 일거리가 많이 생겼읍니다. 고용인들과 고용주들이 함께 협력할 때 말일성도 직업 알선 프로그램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읍니다.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려하였듯이, 그들은 차발적으로 자비를 들여 복구 사업을 돋쳤다고 나섰읍니다.

복구 사업을 실시하던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중장비가 요구되었읍니다. 멀고 가까운 주로부터 많은 트랙터와 적하기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여섯 대를 생각하였읍니다. 요청이 있자 곧 약 26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소다 스프링스의 지역 복지 책임자가 전화로 내게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부장님, 트랙터와 적하기가 필요하시나지요? 150대를 보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나는 그에게 20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읍니다.

홍수로 인하여 전기가 끊어진 가정에 전

기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전기공들이 필요하였읍니다. 우리는 150명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원조 요청이 있자 150명 뿐만 아니라 450여 명의 면허받은 전기공과 그 외에 둑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형태의 혼신과 희생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말씀을 들은 이 그룹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중대한 위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매일 개인적인 단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알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로 인생의 큰 위기에 부딪쳤던 한 어린 소녀가 말일성도 복지 사업 단체를 통하여 사랑과 이해와 친절을 배우게 된 것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현명한 조언에 힘입어서 낙태에 대한 일반 세상적인 개념에 대응되는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았을 때 그녀는 심각한 문제를 더 큰 불행으로 이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의 가정에 어린 아기를 입양시키는 일,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 전문적인 상담, 고아 양육 등 의 말일성도 사회 복지 단체가 행하고 있는 사업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테져렛 산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다고 확인합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이 남은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고, 이러한 일은 생활면에서 방관자가 되려 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노동의 축복을 누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게 해주는 현급의 원리의 산 표본임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테져렛 산업이 침체된 경제의 압박을 대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 구입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테져렛 산업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마치 독파점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테져렛 산업에는 다른 곳에

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상품이 많이 있으며, 매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상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매월 갖는 월례 운영 위원회 모임이 시작되기 전 먼저 테져렛 산업에 도착하여 잘 정리된 진열장과 물건을 쌓아 놓은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눈길이 외투를 파는 곳으로 끌렸습니다. 한 가지가 특별히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모로 된 영국식 외투였습니다. “내게 맞으면 사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4불 75센트였습니다. 그 가격이라면 살만하였습니다. 나는 외투를 사고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나는 그 외투를 집에 가지고 와서 아내 앞에서 입어 보았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보니 희귀한 1센트짜리 우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우표 값만 해도 내가 외투 값으로 지불한 가격과 거의 맞먹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랑이 많은 감독에게 이렇게 외치는 한 아버지에 대하여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독님, 우리 가정에 비극이 찾아들었습니다. 나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감독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에게는 복지 사업의 원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에게 필요한 것은 직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 현명한 감독은 그에게 위해한 노동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독의 이같은 말씀은 그저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창고 자원 제도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그 아버지를 와드와 스테이크 내의 고용주 뿐만 아니라 온 지역의 고용주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직업 알선 전문가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 그룹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로서 큰 재난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부

상,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습니다. 때때로 일상 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에서 그같은 개인적인 재난도 동부 아이다호의 홍수나 파테말라의 지진 또는 캘리포니아의 홍수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실질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그룹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큰 재해에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은 그의 모든 자녀를 개별적으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도움을 필요

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일을 해주는 복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관리 직분을 수행하여, 이 사업이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지 사업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과 수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하여 시온 사회에서 현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기를 이 계획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상호부조회에서의 복지 원리

“우리는 신권 지도자와 협력하여 병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동시에 복지 원리를 가르쳐서 모든 자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 사항을 스스로 충족케 합니다.”



셜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제2보좌

1842년 초봄에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는 18시온의 대업을 위한 신권을 지지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사랑의 수고를 합하였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매들에게 “그들의 현답이 주님께 열납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자매들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히 봉사하였습니다. (“상호부조회 조직의 이야기.” 상호부조회지, 1919년 3월, 129페이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라는 그의 권고가 있은 후 그들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집집마다 방문하였습니다. 여유가 있는 회원들에게 기부하도록 부탁하였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상호부조회에 보고하여 도움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대개 이러하였습니다. 한 가족 “가난하고 병들어 낙담하고 있음. 침구도 없음” 강변의 두 가족 “병들고 양식이 없음” 어느 미망인 “돈이 없음”(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상호부조회, 상호부조회사, 1842—1966년, [솔트레이크시티 : 본부 상호부조회], 24페이지) 현물의 종류로는 설

탕, 침구, 의류, 양파, 밀가루 등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줄 물건이 없는 어떤 자매는 자신의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쳤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자매들은 “뜨개질, 바느질 또는 병자 간호” 등을 도왔습니다. (상호부조회사 1842—1966, 23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를 조직할 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있어서 더 좋은 날들”을 예언하셨고, 이 혼신적인 자매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보살핌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정사 4: 607 참조)

보고서에서 인용한 다음 기록은 그들의 수고를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웃이나 침구를 받으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호부조회사, 1842—1966년, 25페이지) 이러한 거룩한 정신에 덧붙여서 그들은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고 실질적인 봉사를 행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가족 문제 현대의 급증하는 복잡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지 사업은 다각적인 체계와 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변함이 없는 원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대한 사랑 어린 관심에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물질적인 원조를 받는 회원이 와드의 4퍼센트에 불과하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역경에 처해 있는 자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완벽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필요 사항은 전전하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엘린이라는 자매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엘린 자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방금 대 수술을 마친 후 의롭게 퇴원

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2개월전에 그녀의 남편은 다섯 명의 부양 가족을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갔습니다. 감독이 그녀를 방문하였고 이제 상호부조회 회장이 왔습니다. 이 방문은 가족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 앤린 자매는 아스파라간스 스프와 블루베리 머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감독의 출고증에 들어 있는 항목이 아니었으므로 취소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호부조회 회장은 진실로 그녀를 도와 주고 싶었으며, 앤린 자매의 이같은 특별한 요구가 식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암시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함을 알아채린 상호부조회 회장은 감독의 창고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신청하였고, 그녀의 방문 교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머핀과 스프가 포함된 음식을 준비하고 그 밖의 다른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봉사하도록 자신 봉사를 지명하였습니다. 그녀는 음식으로 도움을 받았으나 그보다 우정으로 더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점은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특별한 배려를 요구합니다. 톰니 부대관장님은 지난 10월 대회에서 누가 도와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주어져야 하는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자주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단적으로 단정지어질 수 있는 법칙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서의 감독의 역할”, 성도의 벚, 1980년 1, 2, 3 또는 4월호 참조)

“자비의 본질”과 같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일은 “이중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같이 축복하며, 받는 이에게도 축복이라.”(윌리암 세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제4막 제1장, 184, 186—187행) 우리는 줌으로써 인내, 결손, 신앙 등, 순수한 사랑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성장하게 됩니다. 기혼녀이거나 독신녀이거

나, 혼자 살거나 가족과 함께 살거나 모든 자매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신권 지도자와 협력하여 병자와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동시에 교파 과정을 통하여 복지 원리와 개념을 가르쳐서 모든 자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 사항을 스스로 충족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참된 의미의 자선 봉사를 행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컴볼 대관장님이 강조하신 여섯 가지 복지 원리—사랑, 노동, 봉사, 관리인의 직분, 자립 및 협남—는 모든 복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초석입니다. 상호부조회는 공파와 함께 순수한 사랑의 그리스도다운 성품을 가르치고,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며, 봉사는 노동에게 의미를 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관리인의 직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며, 자립은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중점을 둘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협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교육 담당 보좌는 우선 상호부조회 공파에서 이러한 원리를 파악하여 분류해 넓으로써 이러한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노동과 자립의 관계, 또는 긍지를 심는데 있어서 사랑과 봉사의 중요성 등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매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생활에서 맞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들을 돋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매는 그같은 원리를 상호부조회 공파 교수에서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담당 보좌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 8:10) 교육 담당 보좌는 스테이크 내의 모든 상호부조회에서 이러한 복음의 원

리가 가르쳐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신의 관리 직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복음의 원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눅 8:15)

최근에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배우게 된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스미스 자매에게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가져다 줌으로써 복음의 축복에 대한 그녀의 감사와 사랑을 표하였습니다. 그녀는 불구자이어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더욱 감사히 여겼습니다.

와드 만찬을 위한 당근 셀기는 큰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을 하였으며, 그같은 기회를 받아들임으로써 봉사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서 신권을 돋고자 하는, 나부 자매들에게서 비롯된 열망은 해를 거듭하면서 상호부조회 자매들로 하여금 보건 설비를 설치하고, 꼭식을 저장하

며, 입양을 도우며, 그 밖의 여러 가지 중요한 필요 사항들을 충족시키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열망이 오늘날에도 상호부조회에 동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하여금 킴벌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음과 같은 중대한 약속을 깨닫게 도와 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는 자가 자기의 열망을 다스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바르게 볼 때 복음의 권세가 그 생활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현납의 법을 실행할 때 현세적인 구원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별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엔사이, 1977년 11월호, 77페이지)

우리가 자신의 관리 직분을 수행하고 이 위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와 악수하고 있는 기무찌 장로(우)



복지 사업: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계명을 보다 완전하게 지킴으로써 자신을 온전케 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차 대회의 복지 모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은 언제나 훌륭한 경험이 됩니다. 교회 조직 1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이날에 열린 이 대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복지 사업,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날의 복지 사업이 기초를 두고 있는 영원한 원리는 아담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원리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 오면서도 전혀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 3:19) 이처럼 태초로부터 주님은 노동과 자립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경전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군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합이니라.”(교성 42:42)

주님은 가장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만 할 자는 누구든지 부양하게 하라. 저는 결코 자기의 면류관을 잊지 아니하리라.”(교성 75:28)

우리 자신을 부양한 다음, 우리의 임무는 우리 중에 가난하고 낙담에 빠진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44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니니.”(교리와 성약 44:6)

이웃의 복지를 돌보는 것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파리가 되고”(고전 13:1)

모로나이는 이같이 덧붙여 설명하였읍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되리로다.”(모로 7:47)

회원들이 참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에 기부한 자원을 감독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휘트니 감독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근방의 여러 지역과 모든 지부 교회를 순방하여 가난한 자를 찾아 내며 부유한 자와 교만한 자를 낮춤으로써 저들의 부족량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교성 84:112)

이상의 성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서 몇 가지 기본되는 사항을 요구하

고 계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읍니다.

1. 주님은 모든 사람이 노동하여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기를 기대하십니다.
2. 주님은 모든 가족이 함께 일하여 독립하고 자립하기를 기대하십니다.
3. 주님은 남편과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를 기대하십니다.
4. 주님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우리의 풍요를 나누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5. 주님은 감독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고 돌보기를 기대하십니다.

6.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의 백성이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품기를 기대하십니다.

복지 사업이 복음의 실현이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불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원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위대한 원리를 150년 전에 가르쳤였습니다.

초기 성도들이 복지 원리를 초보적인 단계에서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지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형성된 것은 1930년대였읍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미국 서부와 캐나다 지역에 펼쳐되어 있던 시온의 스테이크에 적용되었읍니다. 물품 생산 공장, 통조림 공장 및 창고가 세워졌였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복지 사업 활동은 점점 성장하고 있읍니다.

1982년 말 경에는 거의 모든 감독이 창고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생산 공장은 802개소에 달하고, 51개의 중앙 및 지역 창고, 20개소의 데저트 산업, 24개소의 직업 알선 센터, 그리고 35개소의 말일 성도 사회 복지 기구가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감독이 자신의 생계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돋는 일뿐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이제 해외 여러 나라의 실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제적으로

스테이크는 41개에서 269개로 증가되는 회기적인 성장을 보였읍니다. 이 같은 성장에 발맞추어 복지 프로그램은 절 서 있게 소개되어 가고 있읍니다. 모든 새 회원은 복지에 관계되는 모든 복음의 성약을 지킬 수 있고 또 지켜야 하지마는, 지부나 새로운 와드가 복지 프로그램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 사업 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40여 년이 걸렸읍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질 날을 고대하고 있읍니다. 시기 적절한 성장이 있기에 세심한 계획과 함께 기본 원리에 대한 혁명한 가르침이 요구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기본 원리들이 먼저 가르쳐지고 지켜져야만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읍니다.

단시일에 완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언젠가 교회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읍니다. “언제 온전한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실시하실 것입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은 온전한 프로그램을 고대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스테이크에 실시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읍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음 계획의 일부이며, 한번에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다리 꼭대기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째 여러 곳에서 놀랍고도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발전상을 보게 됩니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지로부터 장기적인 복지 사업 계획을 받았읍니다.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그들 지역 내의 스테이크들은 잘 조직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 평의회의 지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영국에서는 현지의 형제들이 두 개의 경작지와 낙농 공장을 구입하였읍니다. 그들

은 또한 창고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다섯 개의 생산 공장을 확보하였고 오렌지와 여러 가지 과일을 생산하고 있고 각종 지역 산물의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대도시에서 금년에 창고용 대지를 구입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루파이에서도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루파이에는 실직율이 높기 때문에 그들은 작년에 직업 알선 센터를 세우도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훌륭한 복지 선교사들과 현지 지원자들이 열심히 협조하여 회원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고 그들의 직업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 예비 프로그램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진실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의 성공의 중심은 교회 예비가 아니라 개개인의 예비입니다. 감독이 창고 제도에서 물품을 요청하는 회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성도 중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필요 사항마저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때에 교회가 돌봐 주려니 하는 환상에 빠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한된 회원에게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지 사업의 근본 원리는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자신의 필요 사항을 충족케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제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 교회는 회원의 수고를 도와 난국을 이기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40여 년 동안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행하라고 가르침을 받아 왔던 것들—예를 들면, 일년 동안의 식량, 의복 및 가능하면 연료를 비축하고 저축하며, 기본되는 생산기술을 익히는 것 등—을 성도들이 행할 수는 없

을 것입니다. 이 권고는 근래 수년 동안 해마다 적어도 두 번씩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판리 역원의 이같은 권고에 귀를 기울여 혁명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동잔에 기름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 25:1-13 참조)

최근에 교회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긴급 상황—예컨대 실직, 질병 또는 천재지변—에서 가족이 갖고 있는 생필품은 평균 다음과 같습니다. 26주간의 식량, 52주간의 의복, 2주간의 음료, 4일간의 연료. 이것은 연간 비축량에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재정상의 비축도 매우 낫았습니다. 수입원이 끊어졌을 때 저축되어 있는 금전으로 1년 이상을 살아 갈 수 있는 사람은 겨우 17퍼센트에 불과하였으며, 45퍼센트가 겨우 3개월을 살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각자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일조와 금식 현금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이룩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탐욕을 금하라.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

“계으르기를 그치라. 부정을 금하라. 서로의 결점 찾기를 그치라. 필요 이상의 잠자기를 그치라.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희 육체와 정신을 활기있게 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외투와 같이 사랑의 곤으로 몸을 둘러 싸라. 이는 완전과 평화의 곤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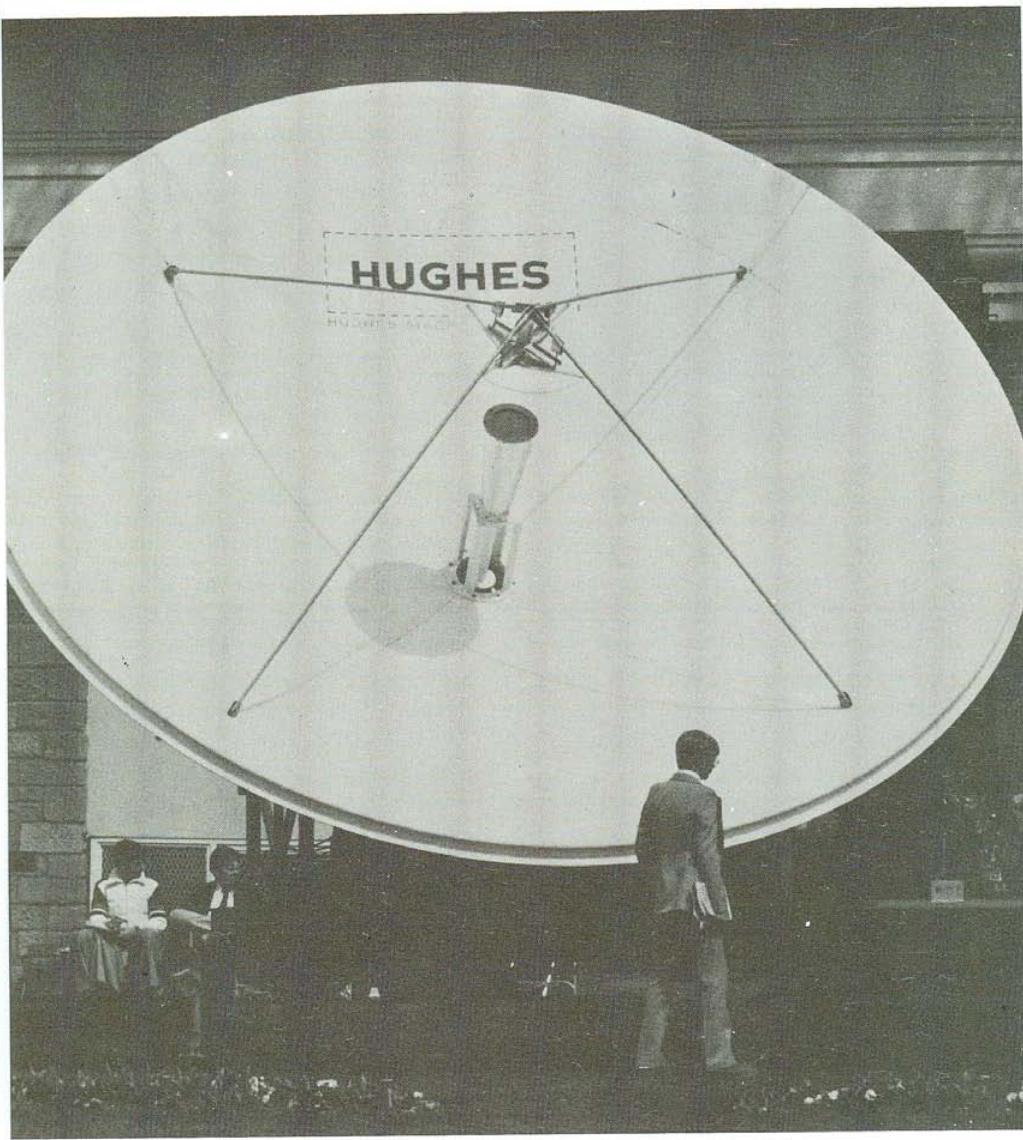
“내가 올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항상 기도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교성 88:123-29)

모든 회원이 준비를 갖추어 주님께서 오

실 때 영접받을 수 있도록 지도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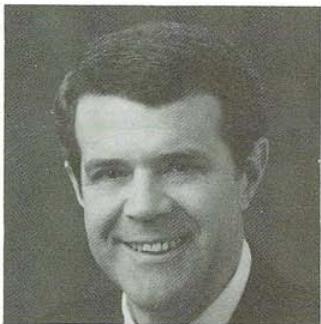
*



통신 위성 수신기가 솔트레이크시티와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모임하는 장면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수신하고 있다.

신권 평의회 : 물질적 및 영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열쇠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쟁자들이 아니라 단합된 단체의 일원입니다.”



로날드 이 포울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고대 나파이인 예언자였던 베냐민왕은 구제주를 받아들이고 죄 사유함을 받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써 권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날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거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나니”(모 4:26-27).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킹 볼 대관장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지 사업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실천의 복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엔사이, 1977년 11월호, 77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혜롭고 질서있게 복지 사업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여 가

난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신권 평의회에 있습니다.

1년 전에 지역 평의회는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여 계획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 평의회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역 평의회가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1) 복지 사업 종합 계획, (2) 복지 사업에서의 기본 복음 원리를 가르침, 그리고 (3) 실무 역원과 종무 역원의 복지 사업 조정 등에 있어서의 평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고려해 보겠습니다.

평의회의 기능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교회 평의회를 다시 강조함으로써 가져 오게 되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유익은 교회의 실무 역원과 종무 역원을 조정하는 기회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의회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협력하여 복지사업의 교리, 원리 그리고 실제를 가르치고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일로써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우정은 우리의 고귀한 정서를 높여 줍니다.

지역 대표와 총관리 역원으로서 복지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집행자는 복지 사업 지역 책임자에게 크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평의회 모임에서 복지 사업 지역 역원 및 지역에 선출된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집행 기획 위원회가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일정표도 채택되었습니다.

지역 역원은 이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필요 사항과 지원을 파악하였고 지역 평의회

와 개인적인 신권 지도자로부터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 제안한 체제에 따라 전문가들이 정보를 정리하여 복합 지역 단위의 주요 계획안을 작성하여 참고, 수정 단계를 거쳐 지역 평의회의 승인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같은 승인을 얻은 후, 제안된 계획안은 지역의 각 지역 평의회에 제출될 것이며, 다음에 지역 대표에 의하여 각 스테이크 복지 사업 위원회와 감독 평의회에 보내져 재검토되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제 1 계획은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로 제출될 것입니다.

일단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우리는 제2 계획 또는 작업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계획 및 목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치셨던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일이 되게 하고 우리가 현재 지나고 있는 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현 체제를 향상시키고 보다 많은 성취를 계획하기 위하여는 복지 사업에 관계되는 원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합 지역 평의회는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교리, 원리 및 실습을 포함하고 있는 정규 교안을 제택하였습니다. 이 교안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가르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고, 신권 권능선의 모든 사람과 상호부조회 회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의 긴급한 위기를 대비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제언과 이를 신권 권능선을 통하여 각 가정에게 전달하는 일정도 역시 계획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복합 지역 평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이 계획은 보다 완전한 가족 예비 프로그램, 곧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를 위한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무 지도자들이 실시하는 제 1차 복지 사업 연례 평가회가 최근에 실시되어 무엇이 성공적이고 무엇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평가하였습니다.

주요 계획은 중대한 예비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구입니다. 상세한 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평의회는 결정을 내리고,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평가하며, 올바른 우선 순위에 따라 혼명하게 자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

계획은 만장 일치로 채택된 절차와 목표를 명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계획은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새롭지는 않지만 신선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되는 영적인 개념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올 지장의 시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펴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의 15퍼센트 또는 30퍼센트의 회원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직자들을 위하여 의미있는 일을 제공하고, 경제 위기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인 문제를 돋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니일 3:7)십니다. 복합 지역 평의회에서 실

무 역원과 종무 역원으로서의 우리의 수고를 조정하면서 우리는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 29 : 18)

주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 올 시련의 날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비하도록 조직, 원리 그리고 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지 사업에서 주님의 영을 구할 때 우리는 목시로써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백성이 방자히 멸망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갖추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성 38 : 30 참조)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바를 모두 행하기 전에는 영적인 준비를 완전하게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후에 라야 모자라는 부분은 주님이 보충해 주실 것입니다.

평의회는 단합을 이룩함

영적인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단합은 우리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단체에서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인 단합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와 토론으로써 평의회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결정은 타협으로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일치된 영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쟁자들이 아니라 단합된 단체의 일원들입니다.

신권 평의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독특한 운행 형태입니다. 이 평의회는 신앙의 기도로써 주님의 을법을 받고, 그의 말씀에 동의하여, 주 앞에서 모든 일을 옳게 처리할 방법과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소집되는 것입니다. (교성 41 : 2—3 참조) 평의회의 힘과 효율성은 개개인의 기술과 갖가지 목적을 단합하고 조정함으로써

오게 됩니다.

“무릇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나니, 많은 은사가 있음이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이에게는 저러한 것을 주사 모든 자가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46 : 11—12)

모든 만물은 영적임

모든 영적인 부름에는 물질적 또는 현실적인 양상이 내포되어 있고, 모든 물질적 또는 현실적인 부름에도 영적인 양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브리감 영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성도들에게 필요한 의복을 제조하도록 부름을 받아, 그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전설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일에 임할 때, 그는 거룩한 복음의 영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복음의 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방법, 양모를 얻는 방법,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옷을 만들기 위한 기계 작동법 등을 알 수 있는 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에 따라 생활하기만 한다면 농사 일이나 공장이나 상점이나 어디에나 임재하십시오.”(설교집, 11 : 293—94)

계획이 대두되면서 인간의 표준으로는 이 사업이 불가능하고 필요 사항은 너무나 크며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복지 사업의 주요 계획의 기회와 목표는 더욱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영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70편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영의 나타나심이 풍족하게 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기꺼이 나누는 것에 따

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성 70:12—14 참조)

그러므로, 시온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랑과 단합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편협한 전통, 지역적인 관심사 및 이기적인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개인의 필요 사항을 잘 준비된 지원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지역에서, 사랑과 봉사와 노동과 자립과, 현납과 청지기의 직분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과 지역의 자급 자족은 지역 사회, 가족, 생산 계획 및 창고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 사업의 원리를 사람, 장소 및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에 적용사킬 때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영적인 윤법을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시킴으로써 신학을 종교로 변형시키게 됩니다.

신권 평의회를 통하여 우리는 지혜와 질서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복지 사업을 행하여 가난한 자의 영적 및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실천하는 경험을 갖고 기독교인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기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본부 청녀 회장단: 좌로부터 노마 비 스미스 제 2보좌, 알린 비 다저 제 1보좌, 엘레인 에이 캐넌 회장

복지 사업의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굳은 다짐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고 교회 지도자의 권고를 따르면 전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모임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지켜 보았으며, 여러 연사들의 말씀을 모두 지지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훌륭한 복지 사업에서 여러분 각자가 수행한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복지 사업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행한 봉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연단에서 가르쳐지고 전해졌던 복지 사업의 원리를 우리 지도자들이 각 와드와 스테이크에 적용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굳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매진하여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큰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나는 가정의 소재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지역 내에서 봄이 오면 밭에 채소를 심

고 가능한 식품을 통조림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지 사업을 향상하는 일이외에 또 다른 복지 사업 계획을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거의 모든 가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면 전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늘로부터의 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훌륭한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지역 대표 세미나 보고

제이 엠 토드 편집장

“**O** 제 교회 역사상 신전 건축에 가장 박차를 가하는 시기가 시작되었을 때.”

이와 같은 강력하고 예언적인 말씀으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총관리 역원과 지역 대표 및 그들의 아내에게 4월 2일 7개의 새로운 신전 건립을 발표하고 그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킴볼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편리한 장소에서 신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든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받을 수 있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전 건축에는 교회 회원들의 계보 탐구에 대한 강한 관심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매우 절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세미나는 4월 4일, 금요일 교회 본부 건물에서 킴볼 대관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킴볼 대관장의 말씀에 이어, 지역 대표들은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와 루론 지 크레이본 장로가 진행하는 배심제 토의를 통하여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가르침을 받았다. 지역 대표로서의 임무에 대한 지시가 주어졌고,

세미나의 나머지 오전 모임에서는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동안에 대표들과 지도자들은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가 회원의 생활과 활동에 미친 훌륭

한 영향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5월 4일부터 이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를 시작한다.

다음의 자료는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에 대한 발표에서 발췌한 것이다.

1.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이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에 위하여 승인되었을 때, 그 목적은 ‘가정 생활, 개인적인 연구, 자기 향상 및 기독교인의 봉사에 보다 많은 시간’을 제공하는 데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가 유류 절약에 한 몫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거주 지역이 극히 넓은 경우에는 실제로 크게 유류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 목적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안식일이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날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일주 중 하루를 함께 모여 백성들을 가르치며 저들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삼되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함께 모이더라.’(도 18:25)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에는 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중심의 안식일은 지금까지 바람직한 것이었고 항상 바람직한 것이 될 것입니다. 경전 중심의 안식일 역시 그려집니다. 우리는 지금 경전을 공부하는 신선한 기회를 갖고 있듯이 앞으로도 계

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하에서 경전이라는 비옥한 옥토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안에 보다 굳게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또한 이 새로운 집회 순서하에서는 모임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여전히 금식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읍니다.

“장소 문제는 깊은 사례를 요구합니다. 초등협회를 따로 가졌을 때 칸막이를 사는 비용을 수천 불이나 절약해 왔읍니다. 분명히 지역의 사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읍니다. 예를 들면, 초등협회 교사들 가운데 한 분은 계속적인 초등협회 모임 때문에 상호부조회에 참여하는 특권을 잃게 된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기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활동적인 소년단 활동과 탐험대 프로그램 등 너무 많은 활동 때문에 바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는 출석율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특별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출석율의 신장에 급급해 왔읍니다. 이제 우리는 영감적인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를 실시하게 되어 어떤 경우에는 10내지 15페센트 또는 그 이상의 출석율이 상승되었읍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우정이 미치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손을 뻗칠시다.”

2. 딘 엘 라슨 장로—“내가 주목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새로 조정된 모임 순서를 가졌으니 교회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져 왔던 많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는 교회의 근본적인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선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딘 엘 라슨 장로—“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는 전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여기에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기가 지금도 남아 있는 이 시기에 이것을 활동 촉진에 이용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와드 단위에서 이것을 계획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는 와드 협의 평의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활동 촉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4.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에 따르면 비활동적인 장로와 수련 장로를 위한 특별한 반을 갖는 것이 허용되는가? “그렇습니다. 와드 신전 준비 세미나와 기초 복음반은 주일학교 정규 공과 시간과 병행해서 가질 수 있으며 또는 와드 모임이 없는 다른 날에 가질 수도 있읍니다.”

5. 새로 조정된 모임 순서는 가정의 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정의 밤을 위한 지침에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가족은 종전과 같이 가정의 밤 교재와 기타 승인된 자료를 사용하여 월요일 밤에 가져야 합니다. 종전과 같이 가족 활동은 복음 교육을 마친 후 갖습니다. 주일 날 갖는 가족의 복음 연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의 일부가 될 것이며 가정의 밤 시간에도 갖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6. 와드와 스테이크 지도자는 어떻게 필요한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안식일의 정신을 가족에게 심어 줄 수 있는가? “신권 지도자와 그 밖의 지도자들은 가족의 안식일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때에 필요한 모임을 가질 수 있읍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 지루한 모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합동 모임 직전이나 직후에 모임을 가지면 여행을 출입 수 있고 가족 예배의 방해 요소를 최소로 출입 수 있읍니다. 여행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침 이른 시간이 그러한 모임을 갖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7. 모임 또는 다른 활동이 주일학교 시간에 계획되어야 하는가? “주일학교 시간에는 승인된 교과 과정에 따른 승인된 주일학교 반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독단 모임이나 신권 집행 위원회 모임이나 와드 협의 평의회, 합창 연습 등은 이 시간에 가져서는 안 됩니다.”

8. 어떤 감독은 이렇게 보고했다. “우리는 일요일에 어떠한 역원회나 보조 조직 모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중에 청소년 활동의 밤을 가지며 다른 필요한 모임을 조정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는 신권 집행 위원회 모임과 와드 협의 평의회와 복지 사업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의 와드 역원과 교사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뮤추얼(활동의 밤)에 나옵니다. 나머지 시간은 기독교인의 봉사에 관계되는 책임을 수행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9. “자매들은 주일학교 회장단에 부름을 받지 않으며 형제들은 초등협회 회장단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10. 교사 자질 향상 기초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던 라슨 자매—“우리는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를 갖기 전보다 많은 주일학교 시간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시간을 갖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교사 자질 향상 기초 과정을 소홀히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과정은 주일학교 관리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것은 정규 교과 과정의 일부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11.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바바라 스미스—“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임원회의 구성에 관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이 조직에는 집행 역원 이외에 적어도 다른 8명의 자매가 포함되어서 12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년반에 속하는 자매들이 상호부조회 회장단이나 교사직에서 부름을 받

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든 자매들이 안전과 성숙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자매들은 활력과 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2. “와드 및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합창단을 조직하여 스테이크 대회나 성찬식이나 장례식이나 기타 행사에서 합창을 할 수 있습니다.”

13. 본부 청녀 회장, 엘라인 캐넌—“청녀 스테이크 고문은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규모가 큰 스테이크에서는 그들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책임은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에 의해 주어집니다. 와드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청녀 회원이 많은 경우에만 고문이 필요합니다.”

14. 현행 청녀 공과 교재에는 22과밖에 없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다음의 교재에서 영적인 공과를 가르쳐야 합니다. ‘말일성도 여성상’, ‘복음 원리’, ‘개인 발전 기록부’, ‘청녀 지도서(청소년 역원 공과)’, 교회 잡지, 본부 청녀 모임에서 행한 말씀, 집회소 도서실에서 승인된 영화,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 감독단의 승인을 얻어 합동 모임 또는 분반 모임에 초빙된 특별 연사”

15. 넬 에이 맥스웰 장로—“매우 중요한 역할은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에서 행해지며 와드 단위에서 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계획은 이 모임에서 결정됩니다. 감독단이 와드 활동 위원회를 보다 유용한 모임으로 사용할 때마다 와드 활동 위원회는 보다 중요한 모임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6. “감독의 청소년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는 자는 감독단과 와드 활동 위원회 위원장과 와드 청남 청녀 회장, 제사 정원회에서의 감독의 제1보좌, 교사 및 제사 정원회 회장, 청녀 각반 회장”

17. 청소년 노번의 밥을 갖는 데 필요한 조언은? 로버트 엘 백맨—“우리가 전에 가졌던 것보다 별다른 변경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가족의 필요와 청소년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감독단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노면의 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8. 새로 조정된 집회 순서에 따르면 연극이나 로드 쇼와 같은 와드 또는 스테이크 활동을 가질 수 없는가? “아닙니다.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체육 경기, 연극 등과 같은 행사는 주중에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협의 평의회를 통해서 계획되고 감독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19. 체육 경기에 관한 교회 정책은 무엇인가?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은 스테이크, 지역, 복합 지역 등 모든 단위 조직에서 강조되고 격려되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의 지역 범위는 관리 집행자,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이 결정합니다. 아론 신전 정원회와 청녀 지도자는 12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남 및 청녀 스포츠 프로그램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와드 또는 스테이크 활동 위원회에 의하여 조직되고 관리되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20. 제사와 교사와 집사 정원회는 소년단 활동, 탐험대 활동, 모험대 활동, 그 밖에 다른 활동을 위해 주중에 얼마나 자주 모여야 하나? 로버트 엘 백맨 장로 — “아론 신권 정원회는 주일에 갖는 정규 모임 이외에 월요일 밤을 제외한 주중에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21. 스테이크 대회가 있는 날의 초등협회 모임을 갖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딘 엘 라슨 장로 — “최초의 지침에는 스테이크 대회를 갖는 일요일에 초등협회를 갖는 것은 폐지된다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유년 주일학교라고 불렀던 조직은 이제 초등협의가 되었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스테이크 대회가 있는 일요일에 이 모임에 참석한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협회를 열 수 있읍니

다.”

22. 어느 감독 — “우리 와드의 초등협회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화요일에 모임을 가졌을 때는 이와 같이 경전한 모임을 가져 본 적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일날에 참석할 때는 영적인 경험을 갖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오기 때문에 전에 가졌던 그러한 문제들이 없어졌읍니다.’”

23. 1980년 1월에 만 3세가 되어 주일학교에 등록했다면 초등협회에는 어느 반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 어린이는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까지 유아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후 내년에 헛님 반에 들어갑니다. 3세 어린이는 초등협회 지침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회, 등록 및 진급 원리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24. 연중에 초등협회를 졸업하고 12반에 들어간 12세 소년은 어떻게 되는가? “조정된 집회 순서에 따르면 회기가 시작된 후 12세에 이른 소년은 주일학교 회원이 되고 12반에 속하게 됩니다. 그는 새 회기가 시작될 때 12반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 가에 관계없이 13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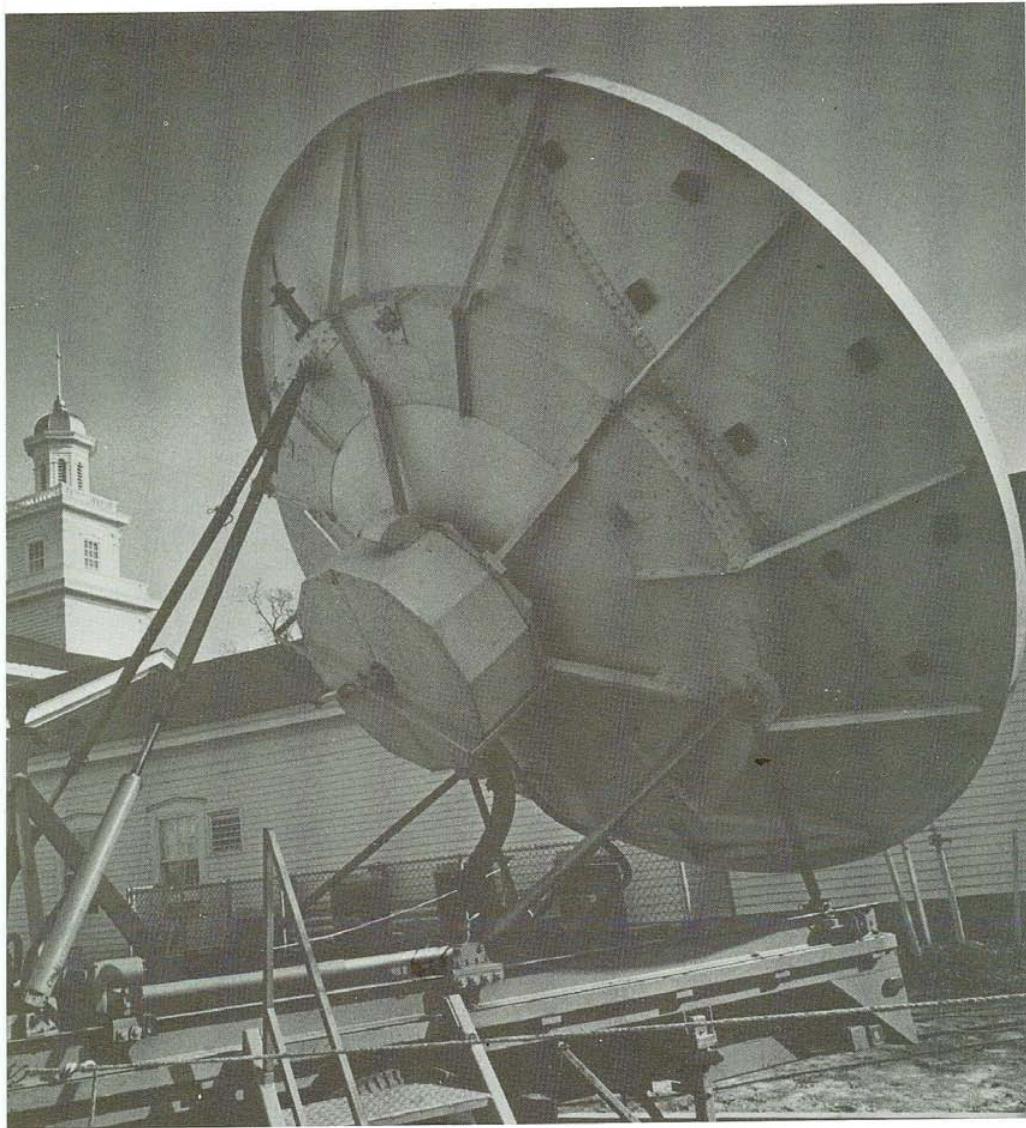
25. 와드 합창대는 계속 존속하는가? “물론입니다. 와드 합창대는 교회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합창단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성찬식에서 노래하도록 권고되어야 합니다. 와드 합창대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일요일에는 특별 합창, 독주, 중창 등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창 연습은 회원들이 편리한 시간에 갖는 것이 좋으나 주일학교 시간 동안에 가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세미나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새로 부름받은 지역 대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페루, 리마의 오스카 에이치 아구아요, 아르헨티나, 브에노스 아이레스의 휴고 앙헬 커트론, 유타, 프리산트 그로브의 데이비드 크리스텐슨 하비, 텍사스 포트네치즈의 도날드 풍 힐튼, 캐나다, 앨버타 레드브리지의 로버트 도날드 리빙스턴, 버

지니아, 유타, 솔트레이크시티의 조셉 마샬
백퍼, 유다, 바운티풀의 조지 엘 메릴, 일
리노이, 네이퍼빌의 존 소넨버그, 브라질,

상파울로의 제이슨 지 수저, 일본, 오코 하
마의 겐지 다나가와.

*



통신 위성 송신기가 솔트레이크 시티와 뉴욕주 메이에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일요일 아침 모임의 모습을 뉴욕주 메이에트에서 출크레이크시티로 송신하고 있는 송신기

대회 말씀과 교회 교과 과정과의 상호 관계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모나 교사나 회원을 위해 이 도표에는 1980년 4월 연차 대회 말씀과 성인 및 청소년 교과 과정의 상호 관계가 나와 있다. 대부분의 공과는 말일의 예언자들의 중요한 가르침을 참고함으로써 보다 알찬 공과가 될 수 있다.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총관리 역원

- 3 마빈 제이 애쉬튼
- 4 하워드 더블류 헌터 ; 브루스 알 맥콩키
에스 더블류 토마스
- 5 에이 디어도어 터틀
- 6 엔 엘돈 태너 ; 엠 러셀 벨라드 이세
- 7 브루스 알 맥콩키
- 9 스펜서 더블류 킴볼(농가) ; 고든 비 힙
클리 ; 엘 톰 페리
- 11 마빈 제이 애쉬튼 ; 휴 더블류 피녹크
- 12 제임즈 이 파우스트 ; 더블류 그랜트 뱅
거터
- 13 제임즈 이 파우스트 ; 폴 에이치 먼 ; 더
블류 그랜트 뱅거터
- 18 마크 이 피터슨 ; 칼로스 이 애시
- 19 로널드 이 포울맨 ; 빅터 엘 브라운 ; 에
이치 지 힐람
- 20 매리온 지 롬니 (복지) ; 마빈 제이 애
쉬튼 ; 매리온 더 행스
- 21 보이드 케이 패커 ; 존 에이치 그로버그
- 22 에이 디어도어 터틀
- 23 매리온 지 롬니 (일요일 오전) ; 제임즈

이 파우스트 ; 던 엘 라슨

- 28 성명서(일요일 오전) ; 브루스 알 맥콩
키
- 29 마빈 제이 애쉬튼
- 30 스펜서 더블류 킴볼(일요일 오후) ; 던
엘 라슨

가정의 밤 1980—81년도

공과 총관리 역원

- 19 마빈 제이 애쉬튼
- 20 엔 엘돈 태너
- 23 마크 이 피터슨
- 25 매리온 더 행스
- 26 고든 비 힙클리 ; 데이비드 비 헤이트
- 30 토마스 에스 몬슨 ; 브루스 알 맥콩키
- 31 매리온 지 롬니(복지) ; 던 엘 라슨
- 36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 37 제임즈 이 파우스트
- 38 보이드 케이 패커
- 41 에즈라 태프트 벤슨 ; 고든 비 힙클리
- 42 스펜서 더블류 킴볼(농가) ; 휴 더블류
피녹크
- 43 에프 엔지오 부쉬

상호부조회 1980—81년도

공과 방문 교사 메시지	영적인 생활	사회 관계	방문 교사 보총
7		에스 더블류 토마스	
8 휴 더블류 피녹크	폴 에이치 먼 엘 톰 페리	엘 톰 페리	
9 마빈 제이 애쉬튼			
10		매리온 지 롬니 (일요일 오전)	더블류 그랜트 뱅거 터

11 마빈 제이 애쉬튼
보이드 케이 패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매리온 더 행스
엠 러셀 벨라드

12

복음 교리 1980—81년도
공과 총관리 역원
25 보이드 케이 패커
26 제임즈 이 파우스트 ; 폴 에이치 던
27 에즈라 태프트 벤슨 ; 하워드 더블류 헌터
28 에이 디어도어 터틀 ; 칼로스 이 애시
30 에즈라 태프트 벤슨 ; 고든 비 헝클리
31 매리온 지 롬니(복지) ; 빅터엘 브라운
32 매리온 더 행스 ; 엠 러셀 벨라드
33 매리온 지 롬니(일요일 오전) ; 마크 이 피터슨
34 로널드 이 포울먼
36 엘 엘돈 태너 ; 제임즈 이 파우스트
38 스펜서 더블류 컴볼(농가, 일요일 오후) ; 마빈 제이 애쉬튼
39 스펜서 더블류 컴볼(토요일 오후) ; 브루스 알 맥콩키
40 에즈라 태프트 벤슨 ; 고든 비 헝클리
41 스펜서 더블류 컴볼(일요일 오후) ; 브루스 알 맥콩키

칼로스 이 애시

23 매리온 지 롬니(일요일 오전)
31 매리온 지 롬니(복지) ; 에이치 지 헐 랍
32 엠 러셀 벨라드
33 마크 이 피터슨 ; 칼로스 이 애시
37 매리온 더 행스
38 엔 엘돈 태너
40 엘 톰 페리

주일학교 제16반

단원 공과 총관리 역원

1 3 마크 이 피터슨 ; 하워드 더블류 헌터
4 휴 더블류 피녹크
2 1 제임즈 이 파우스트 ;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2 스펜서 더블류 컴볼(농가)
3 1 브루스 알 맥콩키
5 보이드 케이 패커
11 엠 러셀 벨라드
14 매리온 지 롬니(일요일 오전)

복음 교리 1981—82년도

공과 총관리 역원
1 에프 엔지오 부쉬
3 마크 이 피터슨 ; 딘 엘 라슨
4 엘 엘돈 태너
5 딘 엘 라슨
6 테이드비 비 헤이트 ; 휴 더블류 피녹크
8 매리온 더 행스 ;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총관리 역원

2 하워드 더블류 헌터
3 매리온 더 행스
4 딘 엘 라슨
7 마빈 제이 애쉬튼
11 엘 엘돈 태너
14 스펜서 더블류 컴볼(농가) ; 고든 비 헝클리 ; 테이비드 비 헤이트
17 에즈라 태프트 벤슨 ; 리그랜드 리차즈 ; 브루스 알 맥콩키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총관리 역원
22 폴 에이치 던

제16, 17반을 위한 부록 공과 주제

- “더러운 손이 이 과업을 막을 수 없음니

- 다.” 스페서 더블류 킴볼(토요일 오전, 농가, 집회소)
 “성명서의 소개”
 “말씀 및 현납”
2. “길을 예비함” 토마스 에스 몬슨
 3. “세상의 소금 ; 그 칼로스 이 애시
맛과 인간의 구원자들
 4. “영원한 고리” 에이 디어도어 터
틀
 5. “개인 및 가족 역사 존 에이치 그로버
를 기록함” 그
 6. “우리는 모두 같은 에프 엔지오 부쉬
하나님을 믿습니까 ?”
 7. “신권 평의회 : 물질 로널드 이 포울맨
적 및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열쇠”
 8. “복지 사업—과거 현 빅터 엘 브라운
재 그리고 미래”

뉴이라 기사

9. “결정이 운명을 바 토마스 에스 몬슨
꾼다” 성도의 벗, 1980
년 7월호
10. “유일한 참 보배” 에프 엔지오 부쉬
성도의 벗, 1980
년 8월호
11. “나의 친구, 나의 교회 대관장, 성
구세주 나의 주, 나 도의 벗, 1980년
의 하나님” 4월호
12. “승자의 구두” 로버트 엘 백먼,
성도의 벗, 1980
년 8월호
13. “미국의 약속” 매리온 지 롬니,
성도의 벗,
14. “이들은 정복당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본 제이 페더스토
운, 성도의 벗,
1980년 9월호
15. “일생 생활의 중심
이 되시는 구세주” 스페서 더블류 킴
볼, 성도의 벗,
1979년 12월호

새로운 복지 사업 자료집과 연관된 대회 말씀은 신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
가 복지 원리와 정책을 가르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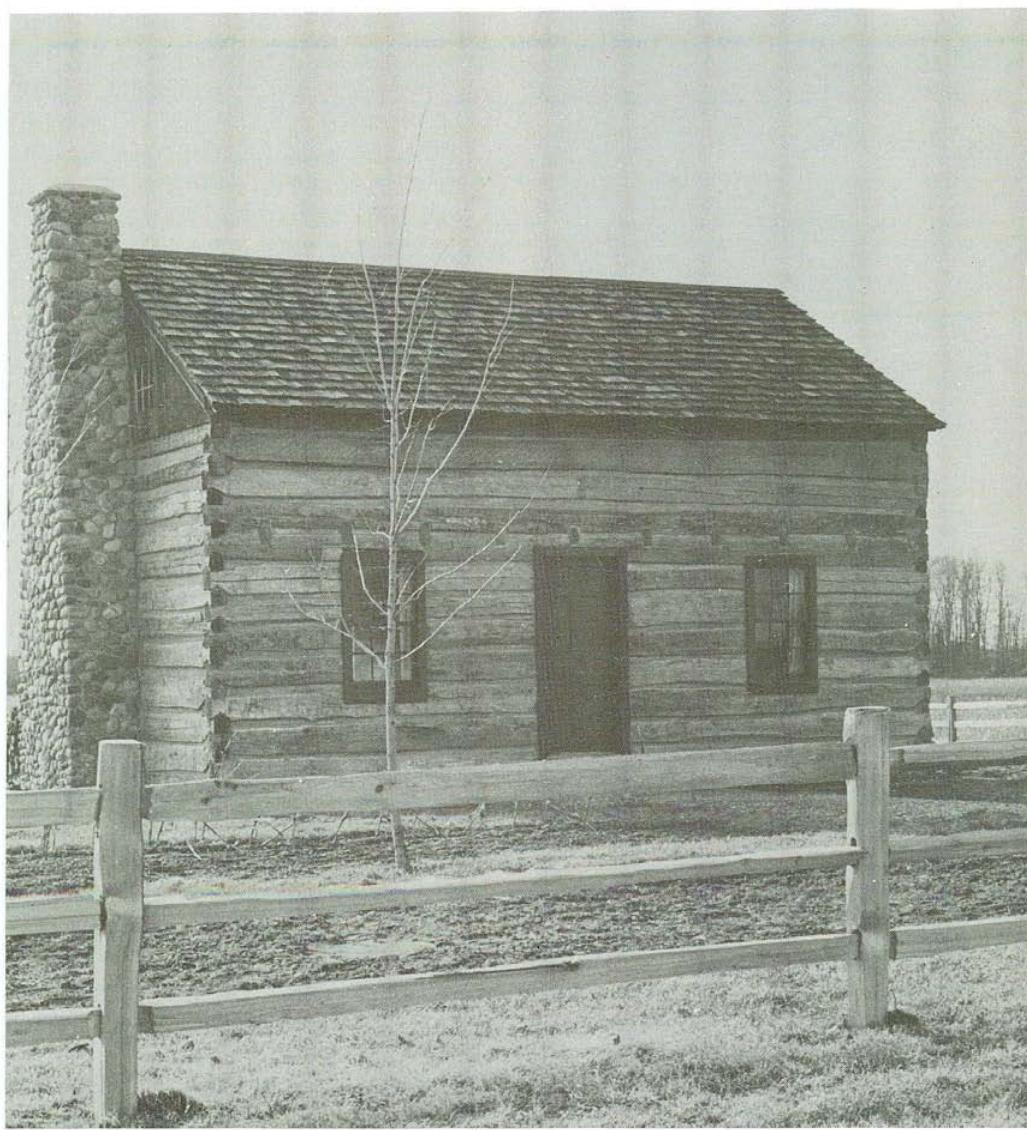
복지 사업 자료집(1980년도판)

- | 제목 | 총관리 역원／지도자 |
|--|---|
| 1. “복지 사업에 스페서 더블류 킴볼
기초를 둔 복 음 원리” | (복지, 토요일 오전)
매리온 지 롬니(복지)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빅터 엘 브라운
매리온 디 행스
로널드 이 포울맨
에스 더블류 토마스 |
| 2. “조직과 임 무” | 스페서 더블류 킴볼
(토요일 오전)
매리온 지 롬니(복지)
로널드 이 포울맨 |
| 3. “개인 및 가 족 예비를 통 한 절약 생활
과 예방” | 스페서 더블류 킴볼(복
지) 매리온 지 롬니
빅터 엘 브라운
에이치 지 힐람 |
| 4. “도움을 주는 것과 받아들 이는 것” | 매리온 지 롬니(복지)
빅터 엘 브라운
에스 더블류 토마스
에이치 지 힐람 |
| 5. “창고 자원 제도” | 빅터 엘 브라운
에이치 지 힐람 |
| 6. “특별한 도움 을 필요로 하 는 회원” | 마빈 제이 애쉬튼
매리온 디 행스 |
| 7. “계획과 훈련” 빅터 엘 브라운
로널드 이 포울맨 | |

대회 모임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는 영
어가 통용되는 모든 자료 관리부를 통하여
집회소 도서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적으로 대회 후 2개월 이내에 사용될 수 있

다. 농아를 위한 수화가 담긴 비데오 카세트 테이프는 현재 다음 주소로 신청하여 구입할 수 있다. Sepecial Curriculum,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또한 많은 상사에서 개인에게 팔기 위한 녹음 테이프를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테이프는 일반적으로 대회가 지난 후 3주 후면 구입할 수 있다.



복원된 헛트미의 집

기념 엽서 발행에 즐음하여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우리는 미합중국 체신부가 아놀드 프리버그의 솔트레이크 신전 그림을 교회 조직 150주년 판제 기념 엽서로 선정해 준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몰몬 개척자들이 지친 여행을 마치고 황량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1847년 7월 28일, 수요일, 브리감 영 대관장은 몇몇 친분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계곡의 북쪽 끝으로 메리고 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신전 부지를 될 곳과 도시 중앙에 교회 본부의 부지가 될 곳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손연장만을 가지고 약 반 세기에 걸쳐, 그 지역 안에서 나오는 자료로써 이 거룩한 성소를 이루는 데에는 온 몰몬 지역 사회의 신앙, 혈신, 수고, 그리고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개척 단이 마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이 엄청난 건축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신전은 서부에서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하고 계획하는 말일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신전은 교회가 지은 최초의 신전은 아니었습니다. 말일성도들이 솔트레

이크 계곡에 도착하기 전에 두 개의 신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신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리노이주 나부에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신전은 모두 교회 회원들이 적개심을 지닌 이웃 사람들로부터 서부로 이동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내버려졌습니다. 마침내, 룩키 산맥의 계곡에 말일성도들은 그들의 피난처인 영원한 가정을 이루할 수 있었고 신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계곡에 도착한 지 4일째 되던 날 신전 부지를 선정하기 시작하여 1877년 그가 사망하던 날까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두 번째 예언자요 대관장이었던 브리감 영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신전의 건축과 계획을 지시하였습니다. 1853년 모퉁이돌을 놓는 의식에서 영 대관장은 그가 신전 부지를 택하기 5년 전에 이미 신전을 시현으로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6개의 첨탑이 있는 신전의 외형과 규모를 설명되었습니다. (설교집, 존 에이 윗소[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41년] 410페이지). 브리감 영은 교회 대관장이요, 유타주의 지사이며, 인디안 감독원이요 많은 경제 사업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조지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진행되는 두 개의 신전 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토록 신전에 크게 관심을 두었습니까? 신전은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건물입니다. 일반 예배를 위하여는 집회실을 지어 회원과 비회원이 모두 모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전은 교회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위해서만 특별히 현납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40년 동안 두 세대의 공인들이 수고하였고, 1125 내지 2520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가는 돌을 황소가 끄는 마차로

20마일이나 되는 길을 운반하여 신전까지 운반하였으며, 때때로 석공이 돌 단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한 달이 걸린 적도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신전 건축의 주요 책임자인 건축가, 트루만 앤젤은 신전을 계획하여 건축하는 데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 신전은 다른 모든 신전과 마찬가지로 건축상의 기념비로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전은 주님의 집으로서 현납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가장 의미 깊은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 거하셨을 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 이 말씀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예수께서 영구적인 집 또는 거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게시로 주어진 양식에 따라 건축되어 주님의 집으로 현납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후 다른 성전이 건축되었으나 그것 역시 신성이 모독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새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장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마 21:13)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현납되고 받아들여진 곳이 없었으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1853년 4월 6일 솔트레이크 신전의 모퉁이돌을 놓는 날에도 주님의 집으로서 현납되고 받아들여진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브리감 영 대광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신전의 기초를 놓아서 우리의 말형이신 그의 아들이 오실 때 그가 머리를 둘 곳을 갖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417페이지).

말일 성도에게 있어서 솔트레이크 신전과 그 밖의 모든 신전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거처, 곧 주님의 집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녔던 통찰력과 시현에 대하여 경건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신전의 의식에 관계되어 주어지는 모든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전을 그린 아놀드 프리버그에게 감사드리고, 솔트레이크 신전 기념 엽서를 발행하도록 허락해 준 체신부 관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거룩한 유산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청녀 노변의 모임 소개

1980년 3월 22일, 제1회 세계 청녀 노변의 모임이 텁풀 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6천여 명의 청녀와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부근의 솔트 펠리스의 다목적 센타에서 4천여 명의 청녀들이 음악과 말씀을 청취하였고, 전세계의 1,900여 개 지역에서 많은 청녀들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 모임을 시청하였다.

노변의 모임은 청녀회에서 계획한 교회 회복 150주년 기념 활동 중의 첫 번째 활동이었으며, 이 모임의 주제는 “많은 음성 중에서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가?”였다.

노변의 모임에 앞서, 본부 청녀 회장인 엘레인 캐년 자매는 이 교회 회복 150주년 기념해가 청녀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고 사실을 선포하기에 적합한 해라고 말하였다. 캐년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청녀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들의 과거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소리와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때이며 청녀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변의 모임의 연사로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부인이신 카밀라 킴볼 자매,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그리고 캐년 회장과 그녀의 보좌인 알린 비데거와 노마 비 스미스 자매였다. 솔트레이크 계곡의 많은 가정에서 모여든 어머니, 딸, 할머니 등으로 구성된 377명의 합창단이 노래와 역사적 사실과 간증으로 교회 회복 1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노변의 모임의 결정은 이 모임에 참여한 청녀들이 그들의 유산, 가치, 목표 또는 회복된 복음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고안된 1.5미터 높이의 손으로 만든 것발을 올린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방송을 통하여 듣던 청녀들도 프로그램 중 적합한 시간 동안 것발 행렬을 하도록 격려받았다.

킴볼 대관장 부처는 청녀회에 의하여 이 역사적 행사의 일환으로 찬사를 받았다. 또한 1980~81년도 청녀회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너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라.” (모로 7:19) 경전과 교회 지도자로부터의 권고가 수록되어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을 수록한 책자가 배부되었다. *

자신에 대한 책임



카밀라 킴블 자매

교회 역사의 특별한 이 해를 경축하기 위하여 모든 아름다운 청녀 여러분과 지도자 여러분이 함께 모여 이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기로 협신하였읍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모두 즐겨 부르는 초등협회 노래의 내용보다 더 인생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길을 찾아 가게 저를
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다 함께 노래를, B-76)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친애 받은 회원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인생 여로를 가는 동안 우리를 안내해 줄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그의 면전으로 다시 인도해 줄 지침을 주셨고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길이 쉽다고 약속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는 때로 그 길이 험난할 것이나 문제점들이 힘을 기르는 데 도와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진실한 기도로 써 그를 구하기만 하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돋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지시해 주실 것과,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 주실 것과, 여러분의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구하는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항상 하루를 훌륭하게 보낸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전은 죄란 걸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라”(엘 41 : 10)고 말하고 있으며,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니이 2 : 25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 14 : 15)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니라”(마 22 : 36-40)

우리의 훌륭한 행위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생활에서의 사랑의 중요성을 증명해 줍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대히 사랑을 베풀 때 다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친구들 사이에, 어디에나 사랑과 조화가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권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시험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명랑한 얼굴을 보이고 미소를 잃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낙천적인 태도를 기르십시오.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우리가 걸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은 이같은 훌륭한 유산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천적이고 행복하며 가치있는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의 친절한 행동을 행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립하여 독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돌보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립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성은 경전을 읽고 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계발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교육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교성 131 : 6 참조)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생활에 대하여 결국은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중에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구호 시기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결은 가장 값진 보화입니다. 순결로 여러분의 일생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현명하게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강하고 하나님의 순결의 법은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에드가 에이 케스트의 다음과 같은 짧은 시를 좋아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살아야 합니다.

그리기에 나는 나 스스로 알고자 원합니다.

나는 매일 매일 언제나

스스로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지러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하여 나 자신을
증오하게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많은 비밀을
온밀한 장동에 간직해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진실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무도 모르리라는 생각에 점거

오고 가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허위로 나 스스로를 웃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명예와 재물의 투쟁에서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허세와 허풍의 덩어리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나에게서 숨길 수 없
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도 봅니
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 것도 나는 압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읍니다.

그리기에 어찌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바른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드가 에이 케스트 시선, [시카고 : 레일리 앤드 리 출판사, 1934년], 724페이지)

다음 성구는 나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인
데 여러분도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기 바랍
니다. “그려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
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민인에 대한 사랑

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
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
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
라.”(니파이이서 31:20)

결론적으로 나는 매일 매일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 성구가 큰 도
움이 된다는 것을 잔증으로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는 살
아 계시며, 그는 평화와 안정으로의 길을
지시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
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지식
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 주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
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이해를 널리 퍼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종착지인 영생으로 안
전히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담소하는 스페너 더블류 김볼 대관장

지금 이곳에서 이후의 그곳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토록 많은 젊은 선택된 영들을 교회에 보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이토록 큰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 지상에 내어 놓으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크게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낙담과 절망에 빠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이처럼 사건과 기회가 많은 오늘날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 성인 자매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은 경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교회 활동, 즉 신학 연구원 중등부 프로그램, 청녀 프로그램, 특히 가장 중요한 가정 평의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은 각 세대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 조정된 접회 순서를 잘 활용

하여 경전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봉사를 수행하여 두번쩨 큰 계명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마 22: 37-40 참조)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날이 있더라도 온 인류의 구세주께서 그가 여러분의 친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장 막역한 친구 이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세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성 42: 29; 요 14: 21 참조) 훌륭한 가족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후에 보다 훌륭한 아내요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찬송가 133장, “우리 둘러싼 산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신뢰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는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할 참으로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듣기 좋은 경험은 없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인위적인 것,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모두 거절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인생의 참으로 훌륭하고 가치있는 것 들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고양되고 번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죄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악한 길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불행과 공허에 빠지게 만드나,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은 내적인 힘과 평화를 지니게 되고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행복과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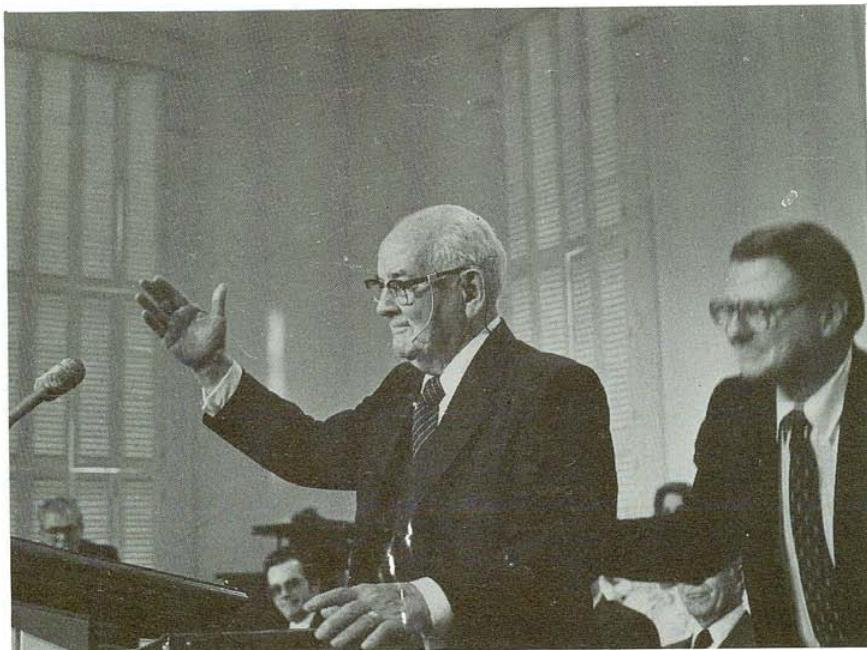
음에는 특별한 빛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레이트를 하고 있다면 또는 텐트를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중대한 구혼의 때가 올 때, 어느 누구가 말한 것과 같이 “아침이 그날의 하루를 말해 주듯이 구혼은 결혼 생활을 말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혼이 여러분의 영원한 결혼 생활의 양상을 말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훌륭한 시온의 딸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이 후의 그곳” 즉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극복하도록 주신 커다란 목표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매일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기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으며, 이 모든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손을 들어 성도들에게 담배하는 스펜서 키블류 캠불 대관장

기억하고, 즐기며, 준비하라

청녀 회원들과 어머니와 자매들이 불러 준 아름다운 노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95장)



노마 비 스미스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심 금을 울려 주는 가사에 진심으로 아엔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과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 교회 회복 150주년을 맞이하여 나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 말일에 지상에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어디에 있게 되었을까? 나의 일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나는 인생의 심오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요셉 스미스 2서 : 5 참조)고 한 곳을 찾아다녔을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청녀 회원들은 이 교회 회복 1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과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앞으로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예풀 만드는 일을 후원하는 지명을 받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역사적인 해를 기억할 무엇인가를 만들도록 격려하는 바입니다.

니다.

오늘 나는 네 가지의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제를 기억하라. 둘째, 오늘을 즐기라. 셋째, 내일을 준비하라.

“어제를 기억하라”는 말은 상당히 먼 과거의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회의에 참석하여, 지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면하는 가운데 배우고 성장하며,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을 겪는 가운데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행하는 일거일동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 가기에 합당함을 증명하겠다고 선택하였던 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른 과거의 날들은 이 중요한 한 해, 곧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탐구하는 동안에 노래와 이야기로 이곳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청녀 회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제는 우리 청녀 조직의 생일입니다. 그날은 브리감 영 대관장이 그의 딸들을 한데 불러 모아 그들에게 세상의 허영과 어리석은 유행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마음을 돌리기를 권고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나쁘고 가치없는 것에 절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임프로브먼트 이라, 1969년 5월호, 1페이지)이 메시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청녀 절제회의 탄생이었으며, 이 단체는 그 순간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면서 한 곳에서는 모임 기록에 “존경받을 만한 큰 회중이 참석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임 기록을 좀더 자세히 보면 단 두 사람만이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 부름받은 회장과 서기였습니다. 그러나 서기는 기록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모임 기록은 정확하다. 회장은 상당히 큰 체구이고 나는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항상 11월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조직이 시작되었던 어제를 기억하며, 청녀 조직의 창립을 기념하면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님의 중요한 어제는 오늘 이전의 어제입니다. 어제 실수를 범하였으면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그 실수에서 손을 빼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어제가 가방에 모아 넣은 돌처럼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결국은 여러분을 무거운 짐의 무게로 주저앉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 30)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두번쩨 말씀은 “오늘을 즐기라！”입니다. 여러분의 불꽃튀는 정열과 짙음의 원기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십시오. 시편에는 이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 118:24)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아버지는 자녀들이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즐겁게 지내거라! 영원히 즐거움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거라. 후회나 뉘우침이나 마음상함이 없이 영원히 즐겁게 기억되게 지내야 한다.”

오늘날 여러 가지 오락이 만연한 시대에 대부분의 놀이가 잘못된 것들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악을 멀리하기가 다른 어떠한 때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의 “교회” 청소년처럼 강한 세대는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밝은 얼굴에 강하고 깊게 자라는 간증의 뿌리를 박고 있는 아름답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마 13:33 참조)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달리 변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고귀한 생득권을 받은 청소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의 지구를 지배하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금 태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유산입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여러 길이 있어 여러분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 위를 기어 다닐 수도 있고 하늘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학에서는 여러분이 낙제할 수도 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태도와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처치 뉴스, 1960년 2월 13일, 4페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대답하게 맞설으로써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여러분의 오늘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춤추고, 데이트 하고,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영속적인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오늘들은 물론 세번째 말의 일부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라.” 청녀회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내일을 준비하도록, 여러분의 앞날에 놓여 있는 것을 준비하도록 돋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은 균형잡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발전은 12세에서 시작하여 18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여

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의 생활과 행복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여러분을 돋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할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제를 자신있게 돌아보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을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매일매일의 생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발전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인 칼리데어가 말했듯이

오늘을 보라! ...

어제는 한낱 꿈이요,
내일은 오직 환상이라.
그러나 충실히 사는 오늘은
어제를 행복의 꿈으로 만들고,
내일을 소망의 환상으로 만드누나.
그러므로 오늘을 보라!
그것이 새벽의 인사이다!

(질작 종교시, 제임즈 달튼 모리슨 편,
[뉴욕, 런던 : 하퍼 앤드 브라더스 출판사,
1948년], 301페이지)

여러분도 크나큰 기쁨과 목적을 지니고
이같이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관장단과 청녀 합창단



인생의 지침



알린 비 대거
청녀 회장단 제1보좌

나의 뇌리의 한 구석에서 나는 유원지의 요술집을 통과하여 갈 때 느꼈던 감흥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요술집에는 파도 기계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디디면 두 발자국 뒤로 밀리는 기계입니다. 또 똑바로 걸어 나가려 해도 자꾸만 돌아가는 배럴 통이 있습니다. 팬케익이라는 놀이는 뱅글뱅글 돌아 사람들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꼬대기까지 오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한 모든 사물이 이상하게 뒤틀려 보여서 여러분 자신마저도 분별하기 어려운 거울이 있습니다. 끝으로 터널이 있는데 그 속은 깜깜해서 쉽게 길을 잊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혼동시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관념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여러 가지 음성들을 가려내려는 청녀들과 청녀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녀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 아버지의 영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의 생

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행하는 결정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생애의 지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녀 지도자의 관심사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일의 여성으로서, 인생의 창조자로서, 왕국의 수호자로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충실히 수행하게 돋고, 여러분의 일생을 중요한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훌륭한 여성, 모범적이고 영감을 주는 여성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로 부름받아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어 여러분이 상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과업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족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개인 예비와 훈련의 여러 면에서 이해력, 능력, 기술 등을 계발시키고 성장하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나는 청녀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를 다음 다섯 가지로 열거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 대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시야를 분명하게 해주고 실수를 없애 주는 비행기의 레이다와 같은 것입니다.

두번째 분야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째서 필요한 사람인지 등을 알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압력을 보다 잘 이겨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 분야는, 다른 사람들, 곧 가족, 부모, 친구, 감독,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수립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생활과 봉사를 위한 준비가 네번째 분야

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방 한 구석이든지 아니면 집 전체이든지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사 기술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마지막 분야는, 개인의 기록 작성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 대하여 알고, 우리의 업적과 즐거움과 고통에 대하여 그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향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과 간증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돋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의 범위를 기꺼이 넓히려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 애쓰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올바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우리, 청녀와 지도자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복음이 생활화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것을 생활과 교훈이 함께 학습의 경험으로 어울려 신앙을 향상시키고 상대방을 염려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복음의 실험적 부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는 원리대로 생활함으로써 실험하며,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행사한다는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살기 위해서만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봉사는 복음의 메시지이며, 사람들의 생활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있는 방법이며, 우리 스스로를 혼신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청녀 활동 프로그램의 역점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없읍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성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성만이 받은

특별한 은사이며, 우리의 시간, 우리의 특별한 능력, 격려, 충성심, 이해력, 인내심, 그 밖의 여러 면에서 우리 자신을 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에 행복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날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작은 충동도 큰 충동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충동은 우리에게 주는 습관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청녀들이 다른 청녀들에게 책임을 지고 똑같이 주고 나누는 태도를 보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태도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광범위한 원리가 있으니 그것은 투자와 이윤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줄 때 우리 스스로를 풍요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는 음덕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전 11:1 참조) 키플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식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방법은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스페서 더블류 키플, “작은 봉사 행위”, 성도의 벚, 1976년 12월호) 교회의 청녀는 다른 사람의 힘, 지지, 지도력을 필요로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성 81:5)

스페인 도시의 정원 표지판에는 이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정원은 만인을 위한 것이며, 만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인을 위한 것이며 만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파를 대항하여 곧게 나가며, 서로 서로 어두운 터널을 통하여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돋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소리



헬레인 에이 캐넌
본부 청녀 회장

언젠가 룸니 부대관장님이 아내에 대하여 재미있는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하여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를 의사에게 보이기 위해 예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의논했답니다. 의사가 그에게 간단한 실험을 하여 아내가 청자 때문에 의사를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룸니 부대관장에게 집에 가서 여러 곳에서 아내를 불러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가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면 의학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의 말하였답니다.

그래서 룸니 부대관장은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여보!” 하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여보!”하고 또 불렀습니다. 이제는 식당에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엌에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불렀잖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알아요. 그래서 세 번이나 대답했는걸요.”

그제야 룸니 부대관장은 “문제는 아내에

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는 여러분에게 이 모임의 일부로서 배부되었던 특별한 소책자 주제로 사용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렇게 많되” 우리 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키틀 대관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노래와 해설로 즐거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중요한 각오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원하신 대로 되오리”(찬송가 164 장 참조)라고 찬송합니다. 이것은 진정입니다. 특별히 따스한 북음의 분위기와 훌륭한 사람들의 지지 안에 둘러싸여 교회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견해에 따라 세상에 속하여 살기는 쉽습니다. 또한 각자 자신의 소견에 따라 생활하기도 용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여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세상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때때로 우리를 혼란으로 몰아 넣습니다. 그 소리들은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더 자극적이고 유혹적이며 크고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언젠가 내가 부엌 싱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라 싱크대 위의 창문을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원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아들은 같이 놀고 있던 여자 아이와 놀이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들어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읍니다. 세번째 불러도 답이 없자 나는 결국 일을 중단하고 그를 데려오기 위하여 나갔읍니다.

“왜 대답안했니?” 내가 단호하게 야단을 쳤읍니다. “엄마, 말 못들었어?”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 그런데 왜 안 들어왔어?”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하지만, 엄마. 그 애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귀에다 대고 말을 했단 말이예요!”

교훈을 줄 순간이 왔읍니다. 나는 그에게 소리, 곧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좋은 소리와 그다지 좋지 못한 소리, 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언제, 왜 들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도와 주어야 했읍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의 주인은 누군가? 경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흥분의 소리입니까? 사랑이 많은 지도자의 소리,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속임수의 소리,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정된 집회 순서라! 그것 참 잘됐다! 이제 우리는 스키를 타려 갈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영화 구경을 할 수도 있게 되었구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리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화평과 명성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불하는 값이 무엇인가,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오게 되는가 등을 상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팔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가 더 커서,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귀 곁에서 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장자 상속권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리는 이유는 될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여 교회의 표준을 잊어서는 안되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도 안됩니다.

나의 아들은 나의 음성을 무시하고는 “친구의 소리가 더 커서…내 귀에 대고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구실로 정당화시키려 하였읍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그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소리였읍니다. 그는 아직 어린 아이였으며,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아직 없읍니다. 그는 평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책임 능력도 없었읍니다. 우리는 모두 책임 연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고, 합당한 권능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선과 악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읍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나는 젊은이 대부분이 바른 일을 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여기 수천 명이 모인 것도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바가 곧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에 치고 말입니다.

청녀 여러분, 진실로 싸움이 시작되었읍니다. 사탄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여러분에게 더욱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쟁 계획은 교묘합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많은 전략과 거짓 정당화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밟어야 합니다. 그의 소리는 바로 우리 귀 곁에서 울리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의 한사람도 사탄에 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여러분 내부에서 들리는

작고 세미한 음성을 계발하도록 돋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고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에 킴볼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바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결점이 있으면 그곳으로 사탄은 과고 들어와 공격할 것입니다.”(엔사이인, 1980년 3월호, 2페이지)

그러므로, 세미하고 작은 음성을 들어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행복이나 천국으로 가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주님의 제도가 여러분에게 가치있는 것에 대하여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금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순간적인 회yan은 그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키이츠의 다음 시는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들리는 멜로디는 아름답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멜로디는 더욱 아름답다.

그러니 부드러운 피리들아, 계속 불어라.
육체의 귀에 대고 불지 말고, 영혼에게 불어라.

소리없는 노래를. (키이츠, 그리스 고병부)

나는 여러분에게 “기다리라. 지금이 아니라. 기대하라.”고 말하는 세미하고 작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기를 부탁합니다. 세상

에서 어떠한 소리들이 들리든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즐거움을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듣는 소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청녀 여러분에게 진리의 소리, 의로움의 소리, 사랑의 소리가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행하여지고 있는 선한 일은 인상깊은 일입니다.

와드의 15반 역원은 그 반의 활동을 증진시키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반원 중의 한 소녀가 온갖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녀의 노한 엄마는 팔을 집에 들어와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교회와 학교에 다니지 않게 되었고, 바르게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원은 감독과 상의한 후에 청녀 회장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장이 이 가엾은 소녀를 그녀의 집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그들이 케익을 팔고 어린 아기 돌보는 일을 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회장이 동의하였고, 그녀의 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심을 끊임없이 주며 교훈의 원리와 신권의 도움을 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외의 와드에 있는 청녀 조직에서는 “백시” 봉사대를 조직하여 노인 회원들을 병원이나 상점으로 태워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15세의 소녀는 매주 그녀의 전 고문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고문은 현재 남편과 함께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또 다른 반에서는 말썽많은 비활동 소녀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성공하기 위하여 본부 임원에게 금식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한 어머니를 갖지 못한 소녀를 위하여 특별히 개인적인 인사 편지를 보내 달라고 내게 부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작은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은 도움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의의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니는 오랫동안 보고싶던 영화를 친구들과 함께 구경갔습니다. 영화가 얼마 동안 상영되는 동안 영화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당하지 못한 장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쥐푸리게 되었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과의 우정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를 피하여 영화가 끝날 때까지 토비에서 기다리겠다고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곧 그녀의 남자 친구가 그녀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도 당황해 하고 있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나머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한 소녀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용감히 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를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올바른 일을 수행함으로써 의의 부드러운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격려의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청녀는 이 모임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올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면 그것을 중요한

방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 이 성구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형제들과 남자 친구들에게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갖추도록 격려해 주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킴볼 대관장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세상은 우리 선교사들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도록 돋고 그들이 신권의 임무를 수행하여 선교사의 부름을 받기 위해 당하게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도록 격려하는 소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페테는 “넉망있는 남자는 여인의 부드러운 말에 인도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선교사로 떠나려는 한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환송 모임에서의 말씀에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의 남자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고 싶은 것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남동생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사업의 발전과 영광에 관한 자신의 편지를 읽으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지니며 자리에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격려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테레사는 훌륭한 귀한 선교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서로 바른 방법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잘 자격이 있었으며, 신전에 가게 되는 것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테레사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신전 추천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딸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녀의 아버지를 사랑하였으며, 자신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격려, 지칠 줄 모르는 부드러운 대화와 아버지와의 기도로써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교회의 활동 회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테레사의 신전 결혼식에서 그녀의 아버지 곁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자 테레사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 가 얼싸안았습니다. 테레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감정에 복받쳐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고맙다！”

테레사는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어떤 여인의 아버지로부터 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합당하다면 교회 밖의 여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세 살 된 어린 아이가 웃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혼자 여기 저기를 다니다가 춤고 걸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자 이 젊은 여인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집앞 계단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흑투성이이가 된 내의 하나만을 입고 있었으며, 물씨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경찰에게 그의 어머니를 찾아 달라고 신고하고는 그동안 소년을 담요로 싸서는 무릎에 앉혀 놓고 노래를 불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콘을 모자를 쓴 광대 얼굴로 만들어 주었으며, 소년과 함께 그림을 그려서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소년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소년의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현관으로 뛰어가다가 갑자기 젊은 여자와 지냈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한 듯이 멈추었습니다.

“저, 아줌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인인가요?”라고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곧 정신을 가다듬고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나는 우리 여성들—청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어 우리가 진리의 소리, 기쁨과 도움과 격려와 사랑의 소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간구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는 말을 듣기 바랍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사업을 사랑합니다.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요 10:4 참조)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중요한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등대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랑하는 청녀 여러분, 이 모임은 말입니다. 성도 청녀 모임 중에서 가장 큰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 주시어서 이 훌륭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정 양복에 흰 셔츠를 입고 대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띠이는 일반 신권회 모임보다 이곳에 모인 청중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니 거의 잊혀졌던 시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섬광처럼 지난 세월이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소년으로 돌아가게 해다오.”

20년 전에는 아마 여러분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던 곳은 하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의 존재에 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 뿐입니다. 그러자 이 지상 생활이

우리의 진보에 필요하게 된 때가 다가 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확신의 말이 주어졌으며, 필멸의 기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지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를 지상의 가정으로 즐겁게 받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돌보고 사랑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한 시인은 우리의 유아기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어여쁜 새로운 인생의 꽃이여,
하나님의 본향에서 지상으로 갓 떨어진
싱그러운 꽃이여.

(제랄드 매세이, “추구와 달성” “스티븐슨, 버튼 편집, 인용문집, [뉴욕, 도드, 미드 앤드 컴퍼니, 1956년], 121페이지)

윌리엄 워즈워드는 그의 고전시 “불멸의 송가”에서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우리의 탄생은 다만 하나의 잠이요 망각
우리와 더불어 솟는 영혼, 우리 생명의
별은

이미 어디엔가에 진 곳이 있어
멀리 그곳으로부터 오나니
그곳은 아주 잊음도 아니요
아주 알몸으로도 아니요
영광의 구름자락 걸게 끌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신으로부터 오느니라.
우리 어려서는 하늘 나라
우리 주변에 있고
소년으로 자랄 제
(윌리엄 워즈워드 전집, [런던 : 맥밀란
사 1924년], 357—59페이지)

아기가 태어난 처음 몇 해는 귀중하고 특

별한 해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합니다. 그들은 여러 해를 두고 배웁니다.

곧 우리는 사람들이 “무서운 십대”라고 이름붙인 시기에 접하게 됩니다. 나는 “놀라운 십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대야 말로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 성장의 시기, 발전의 시기, 지식의 쟁취와 진리의 추구로 점철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시기를 쉬운 시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이 십대의 시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안정의 정박소에서 슬며시 빠져 나와 평화의 항구에서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용, 부도덕, 호색 문학, 그리고 동료로부터의 압력 등은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바다로 몰아 버리고, 상실된 기회, 거짓으로 웃임은 축복, 산산조각이 난 꿈 등의 균열된 벼랑으로 떠밀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안전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인도할 수 있는가? 위협의 파멸로부터 구출될 길이 있는가? 대답은 분명히 “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님의 등대를 찾으십시오. 신호등이 길을 잃은 자를 구출해 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거나 밤이 어둡거나 질풍이 강하거나 선원이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등대는 생명의 폭풍우 속에서 비춥니다. 주님의 등대는 이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등대는 쉽게 볼 수 있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호등을 말합니다. 신호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승영과 나의 승영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화평을 줍니다.

신앙은 기적을 낳습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입니다.

잠시 이 특별한 신호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화평을 줍니다.

아담이 기도하였고, 요셉이 기도하였으며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도의 결과를 암니다. 주님은 참새 한 마리가 멀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의 부드러운 탄원을 들으십니다. 주님의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입니다.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소녀는 행복합니다.

십대의 많은 소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독과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로서는 너무나 힘에 겪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인생이란 전체로 볼 때는 어렵지만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쉬운 것이다.” (맥스웰 드레이크 편, 크리스찬 리더스 끌든 트레저리, 인디아나폴리스, 드레이크 하우스, 1955년, 312페이지) 우리 각 사람이 단 하루 동안 진실할 수 있다면…그 다음 날에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필로로 하는 도움은 그것을 상상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은 올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조그마한 선교부 산하 지부의 아름다운 청녀들의 월계반 교사이인 웨슨 자매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귀중한 반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영감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진리의 길에서 떠나 죄의 길로 들어서려

는 유혹과 강한 압력에 굴복되었던 줄리라는 소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줄리는 학교 반 친구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그같은 길에 들어서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상향회 개최 순서에 참석하고, 분반 모임의 처음 부분에만 참석하여 출석부에 출석이 기재되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동차의 크락손 소리가 울립니다. 그것은 그녀의 여자 친구와 줄리보다 경험 풍부하고 나이도 많은 남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는 잘 계획된 탈선의 밤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특별히 친밀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출석을 부르기 전에 이 사랑이 많은 겸손한 교사는 교회 본부로부터 소포가 도착되었다고 광고하고는 그 소포 꾸러미를 끄르고는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이 쓰신 소책자를 꺼냈습니다. 소책자의 제목은 순결이었습니다. 헨슨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배울 공과는 다음주에 다른 기로 하고 오늘은 이 소책자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각 반원이 한 문단씩 읽어서 모든 반원이 다 돌아가며 읽기로 하겠어요.” 헨슨 자매는 사랑스런 반원들을 돌아보다가 “줄리부터 시작할까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줄리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이 이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갑동뇌였습니다. 양심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의 크락손 소리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공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길로부터 왜곡되는 유혹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이 지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방법으로인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나는 아노라.

그가 하신 말씀을 내가 아노니,
기도는 언제나 응답되고,
빠르거나 늦거나 반드시 응답되리라.
나는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리노라.

내가 구하는 축복이
내가 생각하면 방법으로 올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나보다 지혜로우신 그분에게
내 기도를 맡겨 두면
그가 나의 부탁을 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더 축복된 응답을 주실 것이라.

(엘리자 엘 히콕, 종교 애송시, 제임즈 길크리스트편, [뉴욕 : 플레밍 에이치 리블 컴패니], 160페이지)

다음으로 신앙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무릎을 끊고 기도드리기 전에는 하늘로부터의 두 인격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준비하였을 때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앙의 시험이 있은 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과 회의가 동시에 한 마음에서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다른 것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항상 산을 움직일 수 있고 천국을 마음과 가정에 가져올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도록 힘쓰십시오.

바로 이 태버내클은 신앙이 일으킨 기적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 연차 대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도록 지명받은 모임에서 나는 발코니의 첫째 줄에 앉아 있는 금발 머리의 어린 소녀에게로 차꾸만 신경이 써졌습니다. 내가 그 소녀를 보면 볼수록 내가 준비했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져 갔습니다. 나는 영감에 굴복하고는 멀리 루이지애나에 있는 크리스탈 배스빈이라는 소녀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발코니에 앉아 있는 어린 소녀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나의 사무실로 돌아오자 나는 그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미스티 화이트였습니다. 소녀의 집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몬순 장로님. 그러나 이제는 없어졌어요. 저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18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해 주셨어요. 저의 할머니는 제게 지금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응답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할머니께 ‘저를 대회에 데리고 가 주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저를 도와 주실거예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대회에 참석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미스티는 내 손을 잡고는 열심히 외쳤습니다. “장로님께서 주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도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스티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후 곧 나에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글을 적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몬순 장로님, 저는 11월 29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미스티로부터.” 신앙은 기적을 낳습니다.

오래 전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시 118:8-9)

마지막으로 정직은 최선의 정체입니다.

부모님께 정직하십시오. 부모는 고의로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

십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줍니다. 부모에게 그와 같은 정직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숨기고 말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밤이 깊어지고 시간이 늦어지면 시계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고, 귀중한 팔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지금 뭐 좀 먹으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집에 들어갈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최상을 구하십시오. 별 아래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너무 낮은 집을 짓는 자이니라.”(에드워드 영, “밥의 명상” 존 바틀렛, 인용문집, [보스턴 : 리틀, 브라운 앤드 컴파니, 1968년], 399페이지)

영원한 안목을 가지십시오. 미래에 신전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그 특별한 날처럼 아름답고 성스러운 순간도 없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여러분의 해의 왕국의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주의를 게울리 하지 마십시오. 유혹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빼앗아 가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뮤지컬 캐밀롯에서 게네바 여왕이 탄세롯에게 빠져 들자 그녀의 남편인 아서왕은 그녀에게 이렇게 간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꿈을 파괴시키도록 허락해서는 안되오.” 이 탄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귀중한 청녀 여러분,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다음과 같은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여 이기게 하십시오. 이 결정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 결정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되게 하십시오. 내적인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인받을 때 권능을 지닌 사람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으시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진리를 증거해 주는 그 특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언자 이사야가 약속하신 것처럼 “네 뒤에 서 말 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 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사 30 : 21)

오늘날은 허용의 풍조가 만연한 시기입니다. 주요 신문의 일요일 종보판의 가장 인기있는 기사는 영화의 우상, 체육계의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곧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죄악의 행위를 합리화시켜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결산의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신데렐라에게도 자정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며,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업적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씨들의 저자, 루이자 메이 알코트



씨의 다음 시를 나는 좋아합니다.

나는 이기지 못할 왕관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의 세계 이외에는
다른 세계를 정복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왕국” 종교시, 제임스 달튼, [뉴
욕 : 하퍼 앤드 브라더스 출판사, 1948년],
274페이지)

여러분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여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109 : 7)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딸들이 십대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표준 경전 합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는 경전 책갈피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의 사랑스런 딸에게,
이 경전을 진리와 인간의 철학을 판단하여 가름하는 표준 척도로 삼고, 지식을 쌓아 감에 따라 영적인 힘도 강건케 하여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경전을 선물로 주는 것이니, 이 책을 자주 읽고 일생 동안 소중히 여기기를 바란다.

너를 사랑하는 아빠,

해롤드 비 리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 보고, 1970년 4 월, 98페이지)

또 다른 도움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하여 올 수 있습니다. 이 축복에는 영원한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연구하십시오. 축복문에 실려 있는 지시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여로에서 그릇된 길로 접어 들었을 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구세주께서는 그같은 축복의 은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을
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사 1:
18)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42).

정직은 최선의 정책입니다.

오늘밤 이 태버내클과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많은 집회소를 떠나실 때, 하나님 아
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과,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청녀들보다도 가장 훌륭한 세
대의 청녀인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올프는 그의 논문에서 과거 경험
을 회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읍
니다. 그는 “여러분은 다시 집으로 갈 수
없다.”고 지적하였읍니다. 토마스 올프는 그
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읍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하

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고 간증합니다. 주님의 등대에서는 우리를
안전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신
호를 보내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신호등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는 화평을 줍니다.

신앙은 기적을 낳습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의 폭풍우가 잠잠해지
게 되고 이 격변의 시대가 조용해질 것이
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에 대하여 나는 간증을 드리
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인도를 받고 있
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